연구보고서 2022-01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최은영

김진영

서울노동권익센터

발 간 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환경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노동은 어려워졌고, 특고,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 양극화는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지표로 나타나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노동자 그룹의 특성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취약노동자를 설정하고 취약노동자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취약노동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시기/시대에 맞춰 취약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성을 가늠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특성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특성에 맞게 정책을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 발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 자문을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문지선 교수님, 연구과제 최종보고회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연구원 김진하 연구위원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영삼 객원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 남 신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청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실업자수	5천명 ↑
실업률	0.1%p ↓
취업자수	5만 7천명 ↑
고용률	3.9%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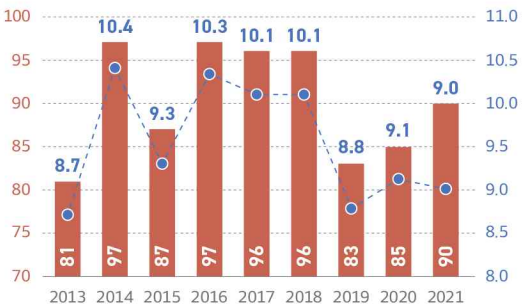
* 전년대비 증감(률)

코로나 19 이후 청년 실업률, 고용률은 회복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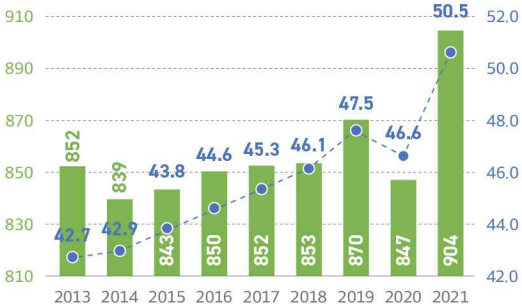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었던 구직단념자 등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직활동을 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된 가운데, 이들이 취업하기 보다는 아직 실업자로 남아있다.

* 청년 실업률 = (15~29세 실업자 수 ÷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 청년 고용률 = (15~29세 취업자 수 ÷ 15~29세 인구수) × 100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



기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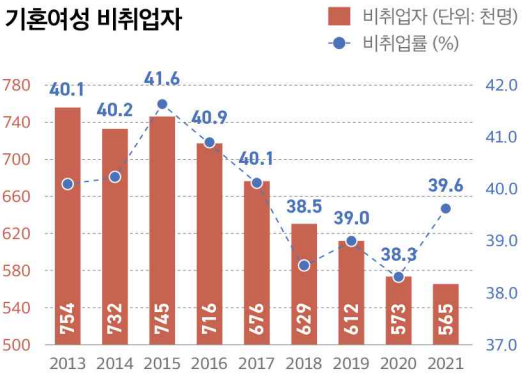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2021)

비취업자 (전년대비)	56만 5천명	(8천명) ↓
경력단절 (전년대비)	23만 9천명	(8천명) ↑

코로나19 이후 기혼여성 경력단절, 하락추세 반등

* 기혼여성 비취업률 = (비취업 기혼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인구) × 100
* 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율 = (경력단절 기혼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인구) × 100

기혼여성 비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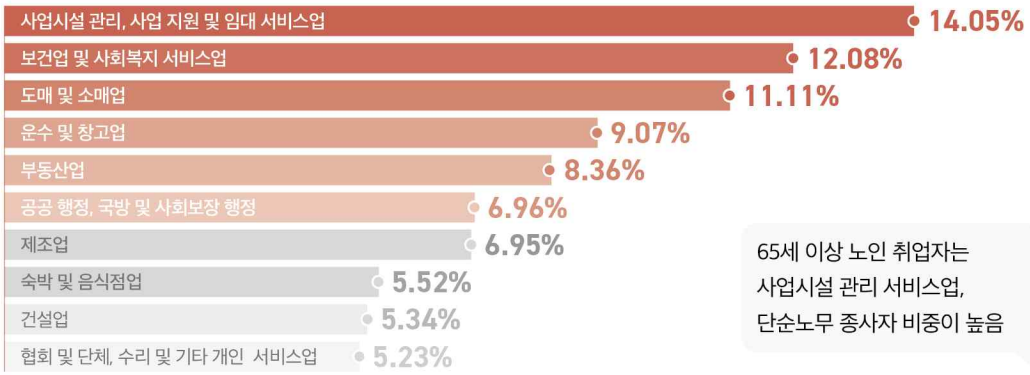
기혼여성 경력단절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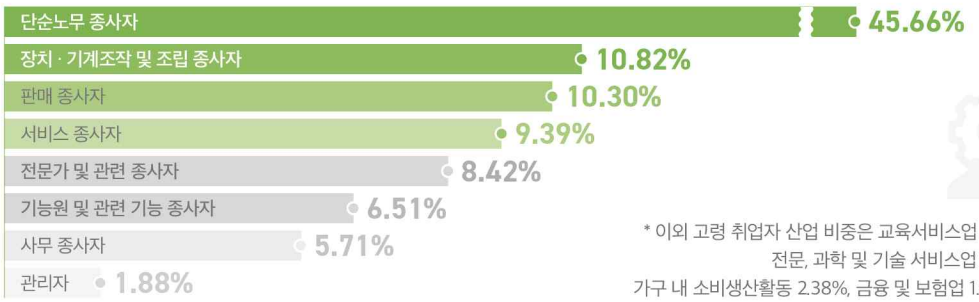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산업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높음

직업



* 이외 고령 취업자 산업 비중은 교육서비스업 4.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8%,
가구 내 소비생산활동 2.38%, 금융 및 보험업 1.62% 등

장애인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 (2013-2021)

구직자 (전년대비) **2천 6백명** (227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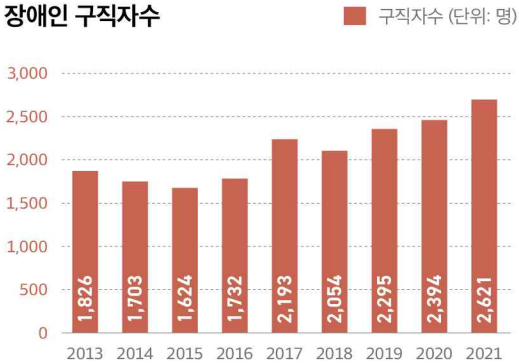
취업자 (전년대비) **2천 2백명** (250명) ↑

장애인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은 모두 증가 추세

장애인 취업률
84.9%

* 장애인 취업률 = (취업자수 ÷ 구직자수) × 100

장애인 구직자수



장애인 취업자수

불안정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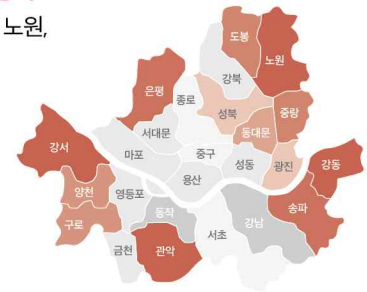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임시/일용직 노동자	**117만 4천명**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56만 9천명**
특수고용종사자	**15만 7천명**

* 임시/일용직, 1인 자영업자는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로 계산
* 서울서베이는 특수고용종사자를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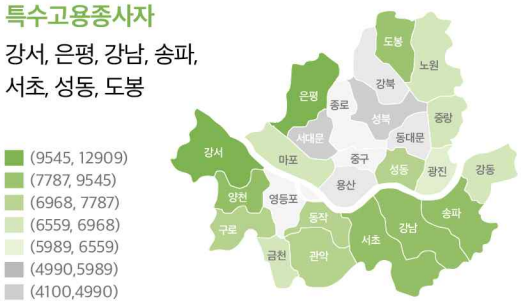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노동자

관악, 강동, 강서, 노원, 송파, 중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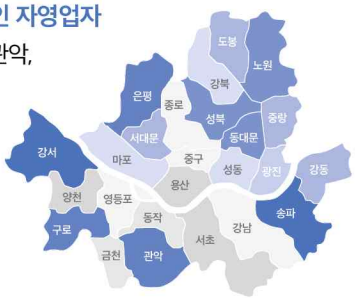
특수고용종사자

강서, 은평, 강남, 송파, 서초, 성동, 도봉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강서, 송파, 은평, 관악, 구로, 노원



임금불평등

출처: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A형 시군구 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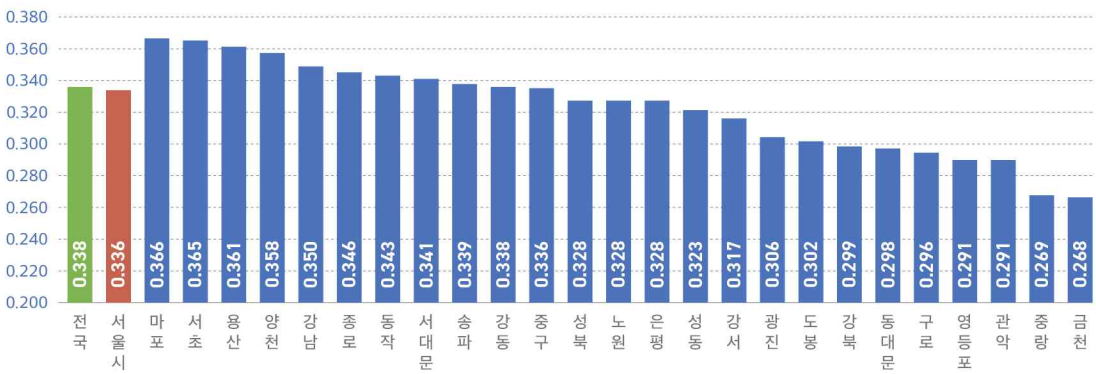
서울지역 임금불평등 지수 —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 지니계수는 임금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배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의 값을, 완전불평등한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의미함

마포, 서초, 용산, 양천, 강남 — 임금불평등 ⬆ 높음

금천, 중랑, 관악, 영등포, 구로, 동대문, 강북 — 임금불평등 ⬇ 낮음

임금불평등도 지니계수(Gini)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저임금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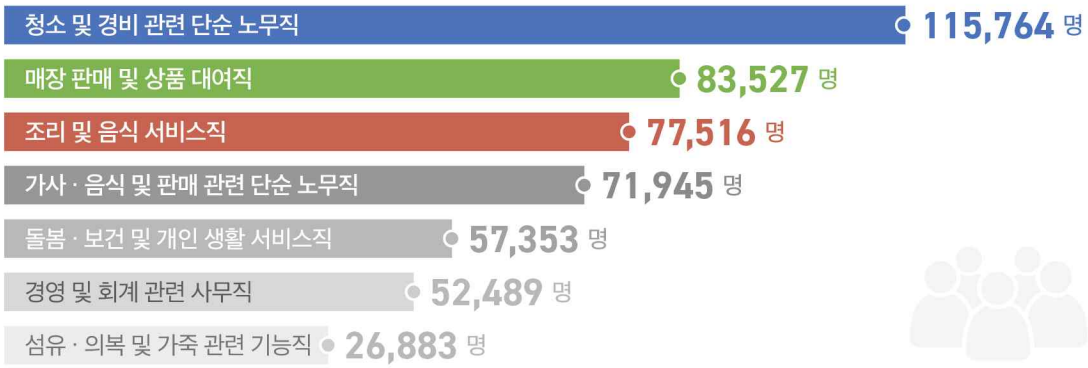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저임금 노동자	69만 4천명
월 평균 임금	120만원 미만
서울 전체 임금노동자의	16.9%

* 저임금노동자는 서울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하반기(A형 시도 가중치)

최저임금 미만

9.6 % 374,060명



종사상지위별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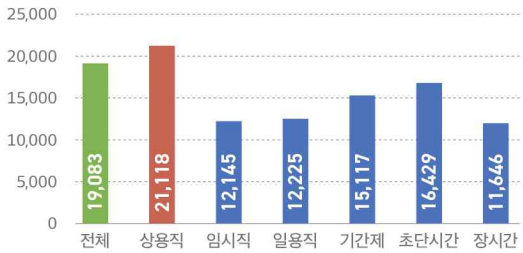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A형 시군구 대분류)

임시/일용직 노동자 시간당임금	1만 2천원 상용직 노동자의 약 58%
5인 미만 사업장 시간당임금	1만 3천원 300인 이상보다 14,297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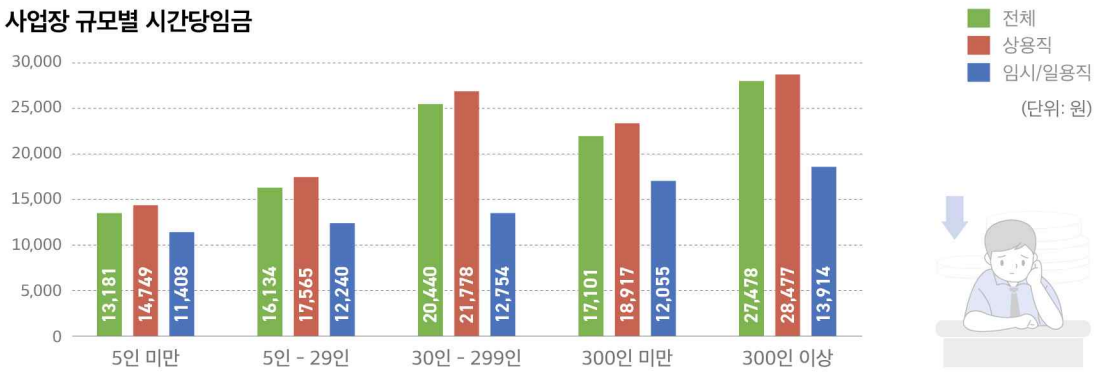
* 임금노동자 시간당임금 평균(가중치 적용)

종사상지위별 시간당임금

(단위: 원)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임금



산업·직업별 임금

출처: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A형 시군구 대분류)

산업

금융 및 보험업	28,598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883 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4,164 원
국제 및 외국기관	23,406 원
정보통신업	22,825 원
교육서비스업	20,416 원
제조업	20,010 원
운수업	19,137 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133 원
건설업	18,550 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17,233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483 원
예술스포츠	15,435 원
협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14,839 원
부동산업	14,804 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632 원
광업	13,010 원
농업, 임업 및 어업	12,094 원
숙박 및 음식점업	11,431 원

직업

관리자	42,382 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792 원
사무종사자	20,930 원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16,395 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5,294 원

'단순노무종사자'의 시간당임금은 '관리자'의 1/4 수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5,015 원
판매종사자	14,607 원
서비스종사자	12,281 원
단순노무종사자	10,733 원

임시·일용직 고용과 임금지수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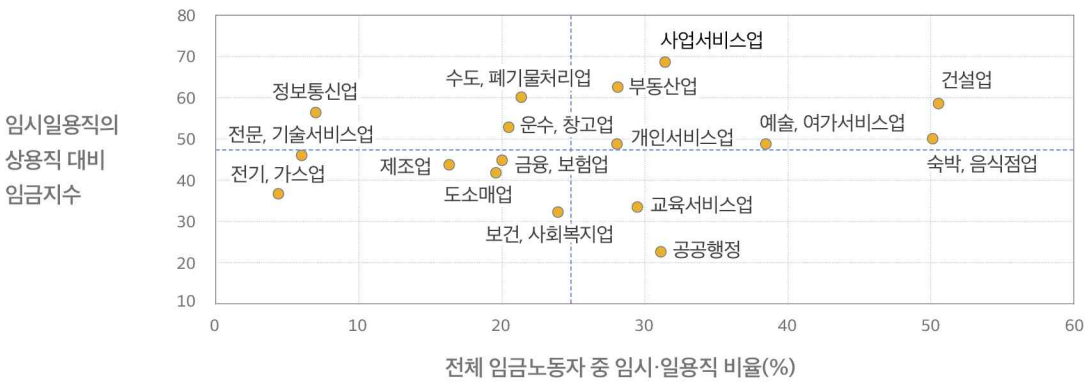
임시·일용직 비율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 높음
전기·가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낮음

임시·일용직 임금지수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수도, 폐기물처리업	⬆ 높음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 낮음

* 임시·일용직의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 = 임시·일용직 평균임금/상용직 평균임금(=100)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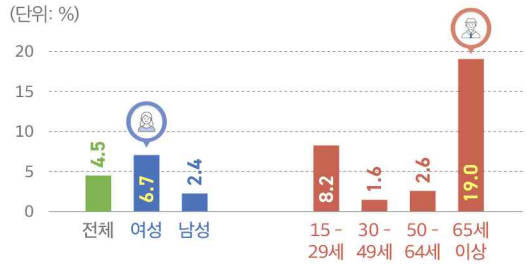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단시간 노동자 (주 36시간 미만) **117만 3천명**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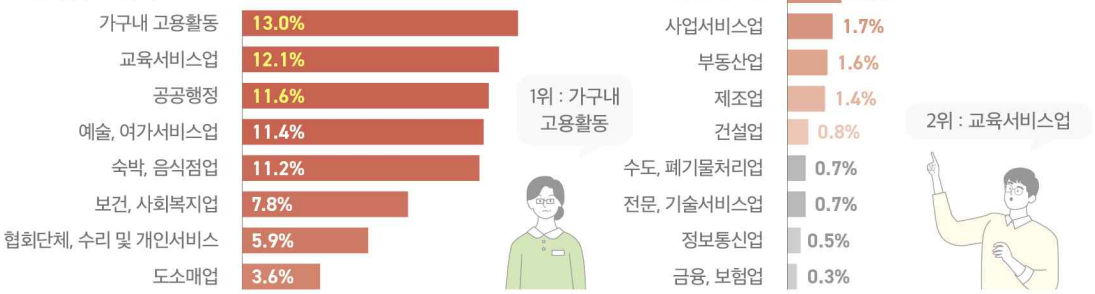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18만 6천명** (4.5%)

* 단시간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 주당 주업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 주당 주업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는 여성,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음



초단시간 노동자



장시간 노동자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주 48시간 초과 **66만 9천명** (16.1%)

주 52시간 초과 **32만 2천명** (7.8%)

주 60시간 초과 **18만 3천명** (4.4%)

* 장시간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 주당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장시간노동자는 남성, 50-64세 장년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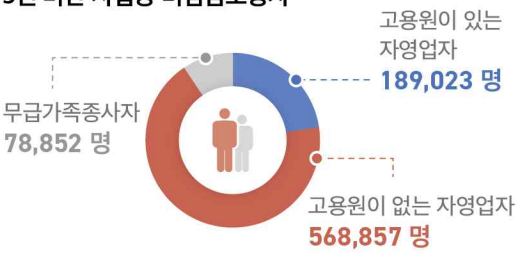
장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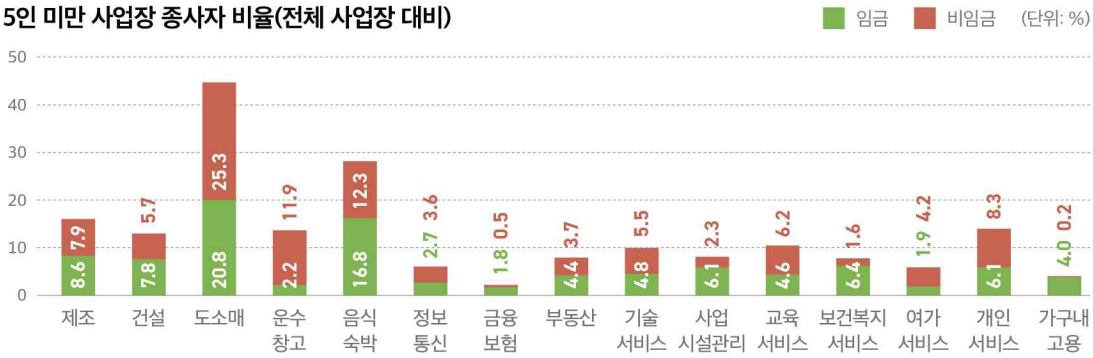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비임금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전체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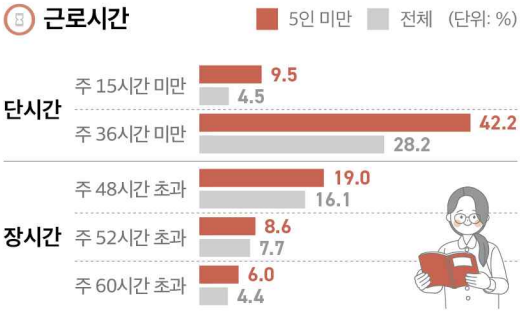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주 평균 근로시간	39시간
월평균 임금	188만원
시간당 임금	12,84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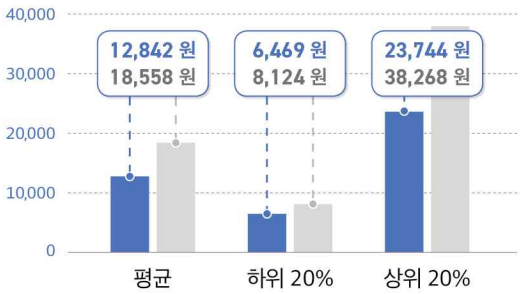
월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63%** 수준
단시간 ·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높아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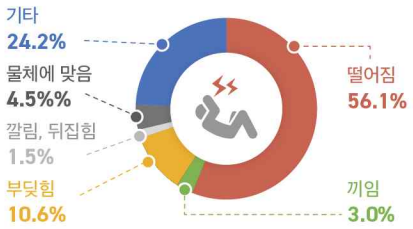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최근 5년간 (2017-2021)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27명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서울지역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2%** 수준

재해유형별 사고사망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인 자영업자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비임금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노동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인 자영업자

*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율(%)

92.7%	80.8%	77.2%	76.4%	76.4%	70.7%	64.6%
운수, 창고업	예술, 여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건설업

59.3%	58.9%	57.3%	55.8%	44.1%	39.2%	14.6%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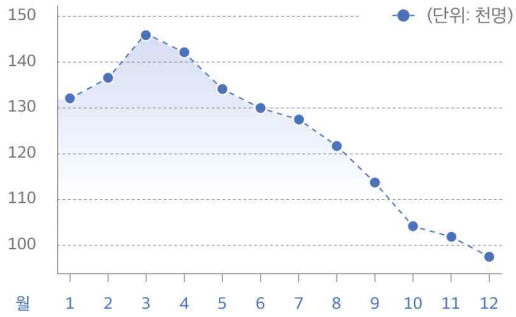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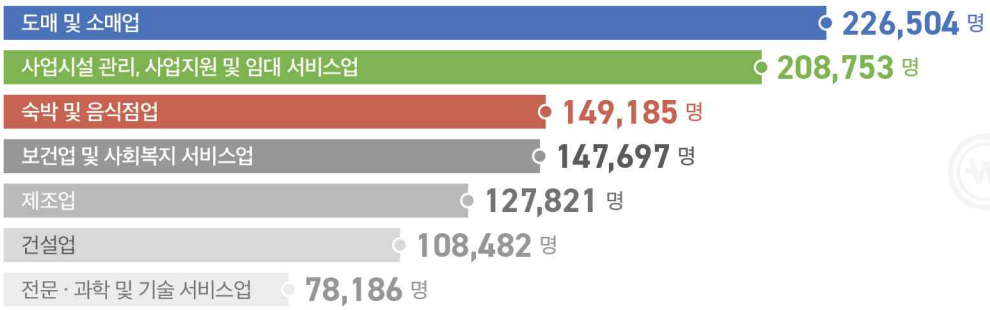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2021년 실업급여수급자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 **148만 6천명**

서울지역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2.8%가**
매월 실업급여를 수급 (3월 수급자 수 최대)

* 2021년 서울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401,436명,
월평균 실업급여지급자수 123,8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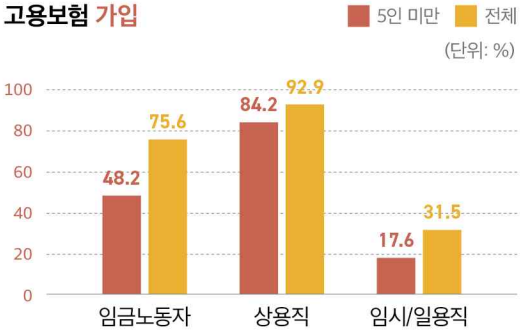
고용보험 미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반기, C형)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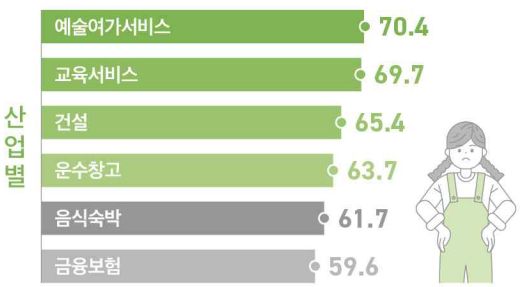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		48.2%
고용보험 미가입	단순노무직	76.4%
	예술여가서비스	70.4%
	교육서비스	69.7%
	건설	65.4%

고용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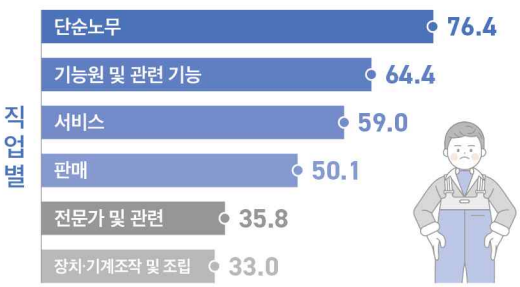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단위: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단위: %)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출처: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A형 시군구 대분류)

서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37만 4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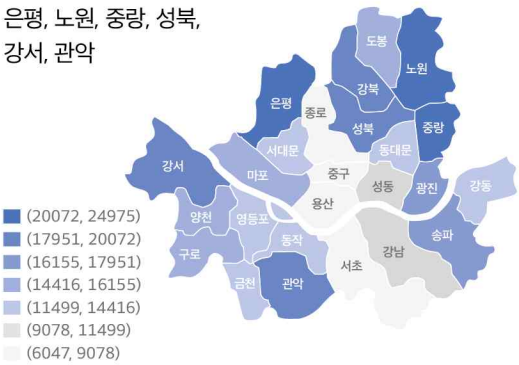
청년	**11만 3천명**	임시/일용직	**24만 8천명**
여성	**22만 8천명**	5인 미만 사업장	**13만 6천명**
노인	**8만 3천명**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자치구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단위: 명)

은평, 노원, 중랑, 성북,
강서, 관악



산업재해 사고사망

출처: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2022.03.15.)

최근 5년간 (2017-2021)
서울지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4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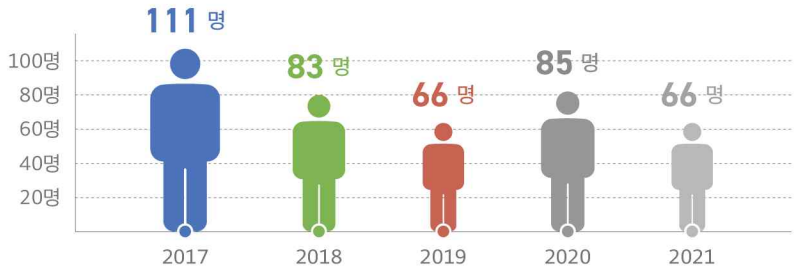
2021년 사고사망 만인율 **0.15‰**

* 사고사망 만인율 = [(사망자수/임금노동자수) × 10,000]

산업재해 사고사망 지역

강남, 강서, 서초, 송파,
성동, 성북, 영등포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노동환경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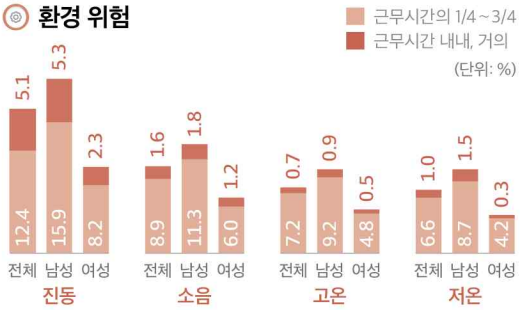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환경 위험 노출	진동 17.5% 소음 10.5%
생물·화학적 위험 노출	분진 8.2%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	반복동작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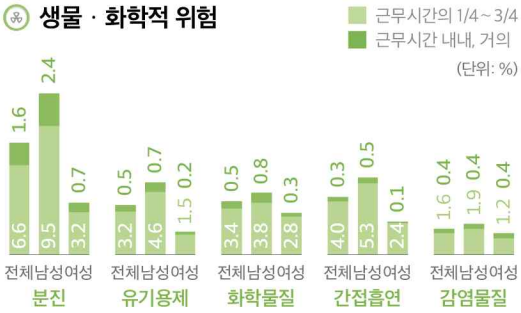
*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해당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
- 여성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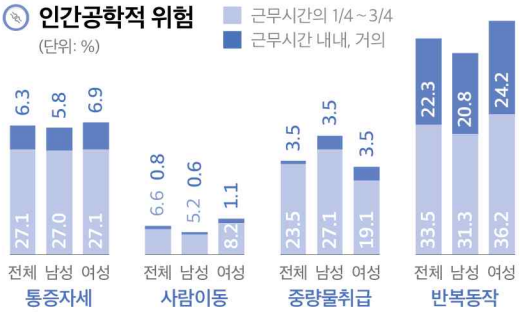
환경 위험



생물 · 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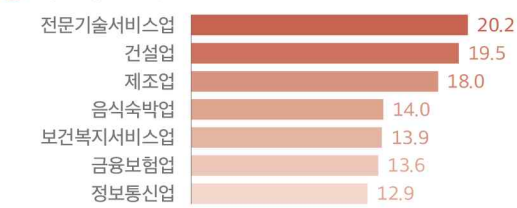


노동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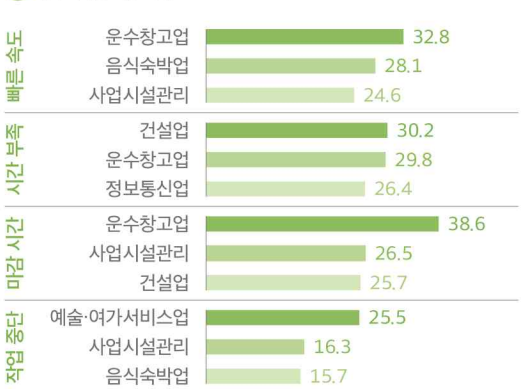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육체적인 일의 양	운수창고업
	(빠른 속도 32.8%, 시간부족 29.8%, 마감 시간 38.6%)
작업속도 결정	전문기술서비스업 20.2%
감정노동	보건복지서비스업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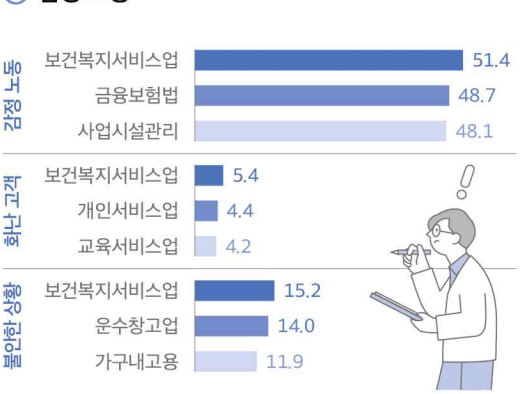
작업속도 결정



일의 양적 요구



감정 노동



2022 한눈에 보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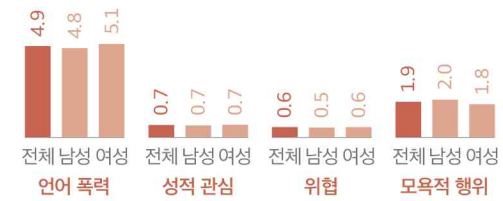
노동 사회적 환경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반사회적 행동_정신적 폭력

* 지난 1달 동안 경험 (단위: %)

업무 수행 중 언어 폭력 피해 경험 4.9%



반사회적 행동_물리적 폭력

* 지난 1년 동안 경험 (단위: %)

업무 수행 중 성희롱 피해 경험 0.4%

반사회적 행동_차별 대우

* 지난 1년 동안 경험 (단위: %)

연령 차별 대우 경험 3.5%

사회적지지

(단위: %)

작업상황에서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6.2%

노동자 건강상태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사무 종사자 81.7%
전문가 80.7%

건강상의 문제와 업무상 관련
요통 기능 종사자 67.5%
근육통 장치·기계 종사자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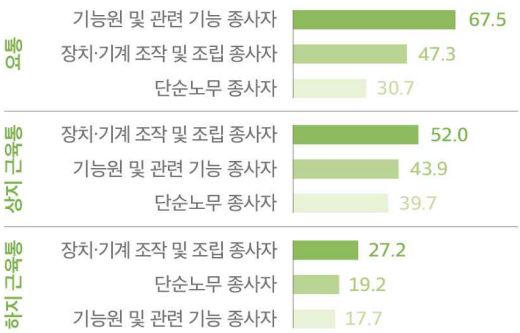
수면장애 경험
관리자 36.7%
장치·기계 종사자 36.5%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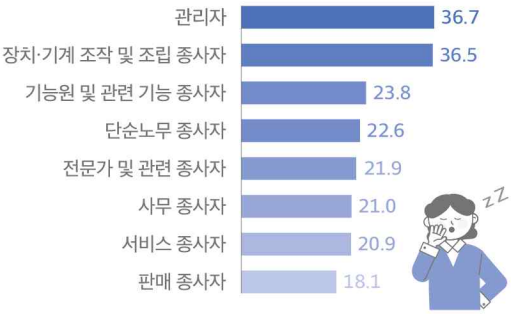
근골격계 건강문제

(단위: %)



수면 장애

(단위: %)



- 목차 -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연구내용 ····· 2

2) 연구방법 ····· 3

3) 연구자료 ····· 3

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 6

1. 코로나19 충격과 회복 ····· 6

2. 코로나19와 노동시장 ····· 7

1) 고용·경제지표 추이 ····· 8

2) 코로나19 이후 산업·직업별 고용 ····· 11

3. 코로나19와 노동 취약계층 ····· 15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17

2) 취약노동자 현황 ····· 23

Ⅲ.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 ····· 30

1. 고용동향 ····· 30

1) 청년 ····· 30

2) 기혼여성 ····· 32

3) 노인 ····· 34

4) 장애인 ····· 36

2. 노동조건 ····· 38

1) 불안정 노동 ····· 38

2) 저임금과 임금격차 ····· 44
3) 장시간 노동 ····· 51
4) 5인 미만 사업장 ····· 52
3. 사회보장제도와 취약노동 ····· 56
1) 실업급여 지급 ····· 56
2) 고용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 ····· 57
3) 최저임금 미만 ····· 59
4.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 60
1) 산업재해 사고사망 ····· 60
2) 노동환경 위험요인 ····· 62
3) 노동 강도 ····· 63
4) 사회적 환경 ····· 66
5) 주관적 건강상태 ····· 67
5. 소 결 ····· 69

Ⅳ.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환경 변화 ····· 73

1. 분석 개요 ····· 73
2. 직업 전망 ····· 74
3. 업무 인정 ····· 80
4. 직업불안정성 ····· 86
5. 이직가능성 ····· 92
6. 소 결 ····· 98

Ⅴ.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 ····· 101

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 ····· 101
1)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 ····· 101
2)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102
3)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 ····· 102
2.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 103
1)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 ····· 103

2)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 103
3)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104
3.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 ····· 104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 104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 105
4.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 105
1)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 105
2) 서울지역 산업재해 예방 조치 ····· 106
5.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106
1) 서울시 노동센터 지원사업 ····· 106
2)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 ····· 107
3) 지역노동 네트워크 활성화 ····· 107

참고문헌 ····· 108

- 표 목차 -

〈표 1- 1〉 자료별 주요 내용 ····· 4
〈표 1- 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제공형태 ····· 5

〈표 2- 1〉 2019~2021년 산업별 취업자 수 ····· 11
〈표 2- 2〉 2019~2021년 직업별 취업자 수 ····· 13
〈표 2- 3〉 취약노동자 ····· 21
〈표 2- 4〉 비정규직 고용동향 ····· 27
〈표 2- 5〉 한시적 근로자 고용동향 ····· 28
〈표 2- 6〉 비전형 근로자 고용동향 ····· 28

〈표 3- 1〉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경제활동 ····· 32
〈표 3- 2〉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경력단절 ····· 34
〈표 3- 3〉 산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 35
〈표 3- 4〉 직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 36
〈표 3- 5〉 2013-2021 서울시 장애인 취업자 ····· 37
〈표 3- 6〉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 38
〈표 3-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39
〈표 3- 8〉 자치구별 임시직·일용직노동자 ····· 40
〈표 3- 9〉 자치구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41
〈표 3-10〉 직종별 저임금 노동자 ····· 45
〈표 3-11〉 임시일용직 비율 및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2021년) ····· 50
〈표 3-12〉 산업별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 51
〈표 3-13〉 산업별 장시간 노동자 비율 ····· 52
〈표 3-1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 ····· 53
〈표 3-1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금 ····· 54
〈표 3-16〉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 ····· 57
〈표 3-17〉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사고 사망 현황 ····· 61
〈표 3-18〉 노동환경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 63

〈표 3-19〉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경험 ····· 66
〈표 3-20〉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 ····· 70

〈표 4- 1〉 직업 전망 ····· 75
〈표 4- 2〉 직업별 직업 전망 ····· 76
〈표 4- 3〉 산업별 직업 전망 ····· 78
〈표 4- 4〉 업무 인정 ····· 81
〈표 4- 5〉 직업별 업무 인정 ····· 82
〈표 4- 6〉 산업별 업무 인정 ····· 85
〈표 4- 7〉 직업불안정성 ····· 87
〈표 4- 8〉 직업별 직업불안정성 ····· 88
〈표 4- 9〉 산업별 직업불안정성 ····· 90
〈표 4-10〉 이직가능성 ····· 93
〈표 4-11〉 직업별 이직가능성 ····· 94
〈표 4-12〉 산업별 이직가능성 ····· 96
〈표 4-13〉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 99
〈표 4-14〉 직업별·산업별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 100

- 그림 목차 -

[그림 2- 1] 1991~2021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 6
[그림 2- 2] OECD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 7
[그림 2- 3] 코로나19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3가지 경로 ····· 8
[그림 2- 4]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 9
[그림 2- 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10
[그림 2- 6] 소비자물가지수, 명목임금 상승률 ····· 10
[그림 2- 7] 2019~2021년 산업별 임금노동자 ····· 12
[그림 2- 8] 2019~2021년 산업별 비임금노동자 ····· 12
[그림 2- 9] 2019~2021년 직업별 임금노동자 ····· 14
[그림 2-10] 2019~2021년 직업별 비임금노동자 ····· 14
[그림 2-11] 저임금 고접촉 직무군 ····· 16
[그림 2-12] 취약계층의 유형화 ····· 23
[그림 2-13] 청년(15~29세) 인구 ····· 24
[그림 2-14] 고령 인구 ····· 24
[그림 2-15] 장애인 수 ····· 25
[그림 2-16] 비정규직 고용동향 ····· 26
[그림 2-17]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고용동향 ····· 27
[그림 2-18] 저임금노동자 비율 ····· 29

[그림 3- 1]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실업률 ····· 31
[그림 3- 2]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률 ····· 31
[그림 3- 3]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비취업률 ····· 33
[그림 3- 4]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경력단절 비율 ····· 33
[그림 3- 5] 산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비율 ····· 35
[그림 3- 6] 직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비율 ····· 36
[그림 3- 7] 2013-2021 서울시 장애인 취업자 ····· 37
[그림 3- 8] 자치구별 임시·일용직 노동자 분포 ····· 42

[그림 3- 9] 자치구별 1인 자영업자 분포 ····· 43
[그림 3-10] 자치구별 특수고용종사자 분포 ····· 43
[그림 3-11] 서울지역 자치구별 임금격차(Gini) ····· 44
[그림 3-12] 종사상 지위 및 고용상태별 시간당임금(평균) ····· 46
[그림 3-13]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임금(평균) ····· 47
[그림 3-14] 산업별 시간당임금(평균) ····· 48
[그림 3-15] 직업별 시간당임금(평균) ····· 48
[그림 3-16]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2021년) ····· 49
[그림 3-17] 산업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 ····· 53
[그림 3-1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단시간/장시간 비율 ····· 55
[그림 3-19]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 55
[그림 3-20] 2021년 월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 56
[그림 3-21] 산업별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율 ····· 58
[그림 3-22] 직업별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율 ····· 58
[그림 3-23] 2021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59
[그림 3-24] 2021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분포 ····· 60
[그림 3-25] 2017-2021 서울시 자치구별 사고사망자 분포 ····· 62
[그림 3-26] 일의 양적 요구 경험 ····· 64
[그림 3-27] 타인/외부적 요인에 의한 작업속도 결정 경험 ····· 65
[그림 3-28] 감정 노동 경험 ····· 65
[그림 3-29] 주관적 건강상태'좋음'비율 ····· 67
[그림 3-30] 근골격계 건강 문제 비율 ····· 68
[그림 3-31] 수면 장애 경험 비율 ····· 68

연 구 요 약 문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현황을 국가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속성, 노동조건,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연구배경

- 코로나19는 가난한 노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자녀 돌봄 부담이 가중된 여성,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직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서비스업의 기업화로 밀려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 타격을 입혔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실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대면접촉 서비스 직군과 민간 소비 영역, 비정규직, 특수형태종사자 등에게 피해가 컸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양극화는 더 벌어졌음
  - 소득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는 2020년 기점으로 모두 반등

○ 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지역 노동환경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의 현황을 국가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함
- 기존의 취약노동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을 검토한 뒤, 취약노동자(vulnerable working) 또는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의 관점에서 접근
- 취약노동자 현황과 관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인적 속성별 청년(15~29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을 살펴봤고, 고용불안정성은 비정규직(통계청 기준)과 저임금노동(중위임금 2/3 미만)을 살펴봄

-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은 인적속성별 고용동향, 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고용 형태,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만,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규모 및 현황 등을 분석함
- 안전보건공단의 5~6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관적인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불안정성, 이직가능성을 분석함

○ 연구자료

- OECD 국가 경제성장률 데이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EIS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

○ 노동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차상위계층
- 노동 취약계층 선행연구
  · 나영선 외(2003): 전통적인 경제·사회적 배제 집단, 노동시장 배제 계층, 특수취약계층, 한시적인 취약계층
  · 유경준·심상달(2004):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단순 직무의 비정규직, 영세기업의 저임금 직종 등), 고령 노동자
  · 이경용 외(2006): 산재 다발 집단,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설업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 집단
  · 심상완 외(2022): 불리한 인적 속성,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

자, 이주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2018)

- 코로나19 이후 근로조건이 열악해진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시간 감소로 근로소득 창출 기회 축소
  ·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임금 감소
  · 자영업자: 경제활동 위축(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취약노동자 분류 >

○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

- 인적속성별 고용동향
  · 청년(15-29세): 코로나19 이후 청년 실업자, 취업자는 동시 증가, 회복세 전망
  · 기혼여성: 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율 16.7% 하락추세 반등
  · 노인(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건물관리, 청소업무와 같은 단순노무·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 장애인: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모두 증가 추세
- 노동조건
  · 불안정노동: 임시직 93만명, 일용직 24만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만명
  · 저임금노동: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노동자 69만명(17%)
  · 초단시간노동: 주업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19만명

· 장시간노동: 주당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67만명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50만명(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약 30%)

- 사회안전망
· 실업급여 지급자: 월평균 실업급여 지급자수 12만명
· 고용보험 미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율 51.8%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7만명, 임금노동자의 9.6%

- 산업안전
· 최근 5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11명
· 서울지역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은 진동 17.5%, 소음 10.5%, 반복동작 55.8%, 통증자세 33.4%
· 육체적인 일이 양적 요구가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 감정 노동 경험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복지서비스업
· 지난 한달 동안 업무 수행 중에 언어폭력 피해 경험은 4.9%
·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동자는 서울의 취업자 중 76%

○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변화

- 노동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전후 서울지역 일자리 전망 및 고용불안정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전망은 나빠졌고, 직업불안정성도 높아졌음
· 서울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졸의 일자리 환경이 나빠졌고, 대졸 이상은 자신의 업무에서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는 인식이 낮아졌음
· 임시노동자의 업무 인정과 이직가능성은 낮아졌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안정성, 이직가능성 모두 부정적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직업불안정성은 높아졌고, 산업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환경이 나빠졌음.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직업 전망과 업무 인정이 높아졌음

○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

-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
·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

-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
·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
·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지원
·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서울시 취약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서울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왔음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정책기획·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단체·노동단체 등과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는 가난한 노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자녀 돌봄 부담이 가중된 여성,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직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서비스업의 기업화로 밀려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 타격을 입혔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실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고용시장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소득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는 2020년 기점으로 모두 증가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 상·하위 계층의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40~50대 가구들 간의 불평등도 2019년도보다 커졌다(여유진, 2021).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1)]

하지만, 계층 간 양극화 완화는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조건 개선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전병유, 2005).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득불평등과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약 1/5이 서울에 속해 있으며, 2020년 서울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코로나19 이후에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했고(2019년 4,510만원, 2020년 4,590만

1)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68793

원), 2020년 실질성장률도 -0.1%로 전국 -0.8%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2020년)보다 3.8% 높고, 2021년의 여성 실업률은 5.0% 수준이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 통계의 부족으로 서울지역 자치구별 노동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흩어져 있는 통계자료들을 수집·가공하여 서울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노동환경을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즉 취약노동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취약노동자 정책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정책과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연구를 시행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살펴보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취약성'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 취약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취약노동자 현황을 파악한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이후 우리나라 고용·경제지표 추이와 산업·직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국 비정규직, 저임금, 청년, 고령자 고용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취약노동의 범위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취약노동의 개념을 응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인적속성별(청년, 기혼여성, 노인, 장애인)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취약노동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만,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 그 규모와 현황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환경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전망 및 직업불안정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서울시 취약노동자 보호·지원 방안과 노동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가통계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고용동향, 산업·직종별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고,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규모를 파악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국가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이다. 자료는 통계청 KOSIS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을 이용하고, 통계결과는 표, 그래프, 맵(Map) 등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3) 연구자료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서베이, 고용행정통계, 근로환경조사 등이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주로 사용된 지역별 고용조사는 국내 가구고용조사 중 가장 큰 표본으로 전국 23만 4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조사되며,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 기초구 단위에서 고용실태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에 필요한 변수가 제공되어야 하나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제공범위의 제한이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2021년 이후에서야 서울시 기초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표 1-1> 자료별 주요 내용

자료	주 요 내 용	출처
OECD	- OECD국가 경제성장률(GDP)	OECD
주민등록인구	- 청년, 고령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장애인	-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경제활동 인구조사	- 종사상지위별/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청년 고용률,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명목임금 상승률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KOSIS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직업별 노인 취업자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원 - 임금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고용보험(가입, 미가입) - 자치구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장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임금 - 자치구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기간제 노동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인원, 임금, 근로시간	KOSIS (MDIS)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취업) -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장애인 구직자, 취업자)	data.seoul.go.kr
서울 서베이	- 서울시 자치구별 임시일용직 노동자,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서울연구원
고용행정 통계	- 실업급여 수급자	EIS 한국 고용정보원
근로환경조사	- 노동환경 유해·위험요인, 노동강도 - 업무 수행 중 반사회적 행동 경험 및 사회적지지 경험 - 주관적 건강상태 -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 안정성, 이직 가능성	안전보건 공단
정보공개청구	-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고용노동부

<표 1-2>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제공형태

	마이크로데이터 자료구분	서울시 자치구 자료	산업/직업 중분류
2013~2020년	A형 시군_중분류	×	○
	B형 전국_소분류	×	○+소분류 제공
	C형 시도_대분류_부가항목	×	×
2021년 이후	**A형 시군구_대분류**	○	×
	B형 전국_소분류	×	○+소분류 제공
	C형 시도_대분류_부가	×	×
	D형 시군구_대분류	○ (기본정보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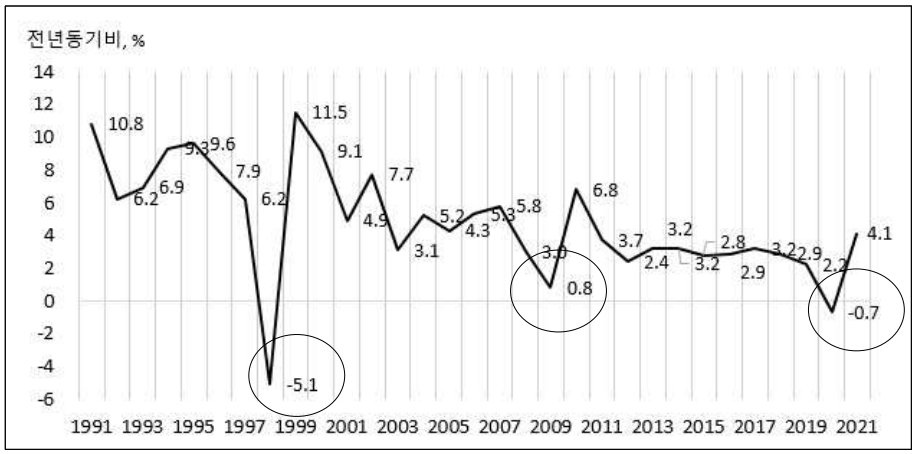
출처: 박영삼(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특징' 2022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사업 최종보고회 토론문 자료

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 코로나19 충격과 회복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행히 2021년에는 4.1%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9%→2.5%로 하향 전망치를 내놓았다.[2] 한국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소멸 등이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림 2-1] 1991~2021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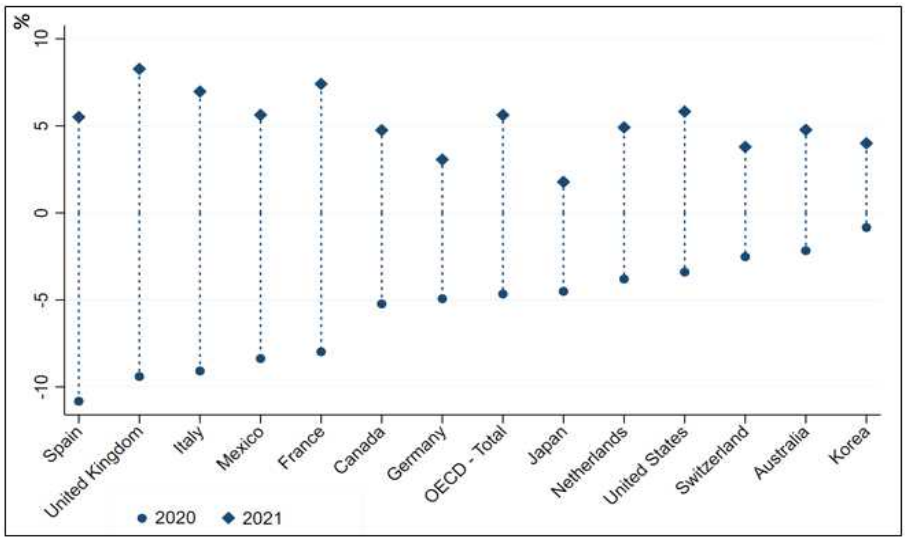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22.07.27. 다운로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은 2020년에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2020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2021년 OECD 평균 GDP는 5.6%를 기록했다. 유럽 국가들은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2021년 GDP는 영국 8.27%, 프랑스 7.41%를 기록했

2) 한국경제연구원(2022.05.09.) 경제동향과 전망(2022년 1분기) 보도자료

고, 미국은 5.8%, 일본은 1.8%에 그쳤다.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적었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에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림 2-2] OECD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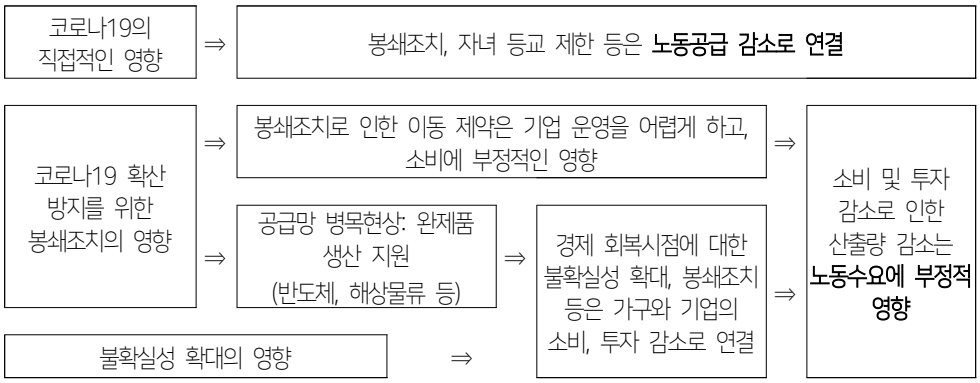
출처: https://www.oecd.org/economy/weekly-tracker-of-gdp-growth

2. 코로나19와 노동시장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2019년 마지막 분기보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실제 근무 시간이 거의 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억 5,5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3,300만 명이 실업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8,100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을 떠났다고 밝혔다(유명환·이정민, 2021).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충격은 불확실성 증대 및 이동 제한 등에 의한 소비 및 투자 위축,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수요충격을 야기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대인 접촉 제한은 경제활동의 공급측면에서 충격으로 작용하여 소득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시 수요에 부정적인 악순환을 초래했다.

[그림 2-3] 코로나19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3가지 경로



출처: 송상윤(2021), 코로나19와 노동시장, 한국은행 금요강좌 제864회(2021.10.15.)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요둔화는 노동시장의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노동 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신규 구인(vacancy posting) 및 채용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노동 공급측면에서는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 인구가 늘어나고,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박창현·유민정, 2020).

최근 미국 노동시장은 펜데믹 이후 노동수요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 퇴직 급증으로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고용회복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세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금상승세는 급격한 경기회복과 노동공급 차질이 맞물리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유휴인력(slack)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3] 그리고 이러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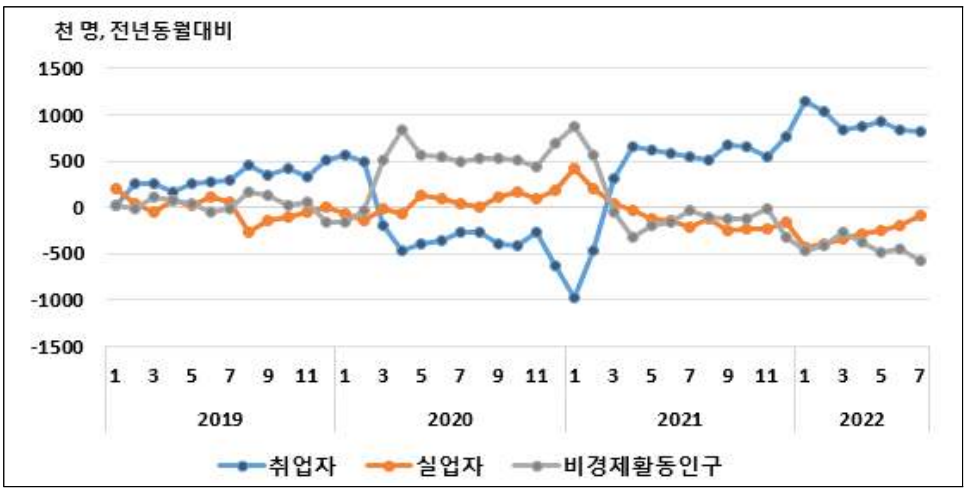
1) 고용·경제지표 추이

최근 국내 노동시장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2022년 상반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용회복세가 이어진 시기였다.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가 94만 1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 2022년 6월 실업률도 3.0%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치상 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3) 한국은행(2022), 美노동시장의 퇴근 특징과 평가 한국은행 제2022-1호 국제경제리뷰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4)]

[그림 2-4]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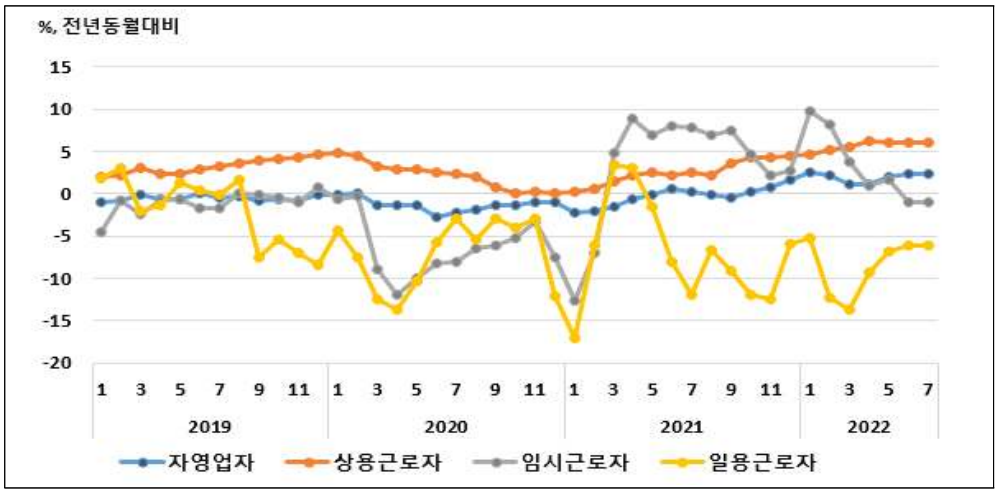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자영업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용직의 고용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일시휴직자의 복직, 신규 채용 증가가 고용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증가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는 여전히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노동자들에게 고용 지원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직업과 고용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오삼일 외, 2022).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명목임금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가격 급등, 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2년 8월 5.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명목임금도 기저효과, 고용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중 4.6%까지 상승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오삼일 외, 2022).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

4) 한국노동연구원(2022),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107호 (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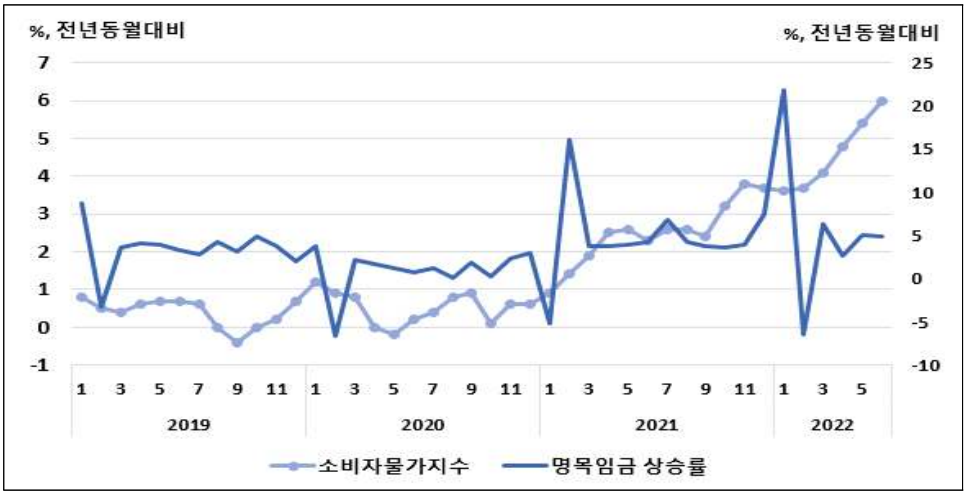
고 있다. 최근에 대기업과 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5)]

[그림 2-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2-6] 소비자물가지수, 명목임금 상승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5) 대한상공회의소(2022), 코로나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도자료 2022.08.31

2) 코로나19 이후 산업·직업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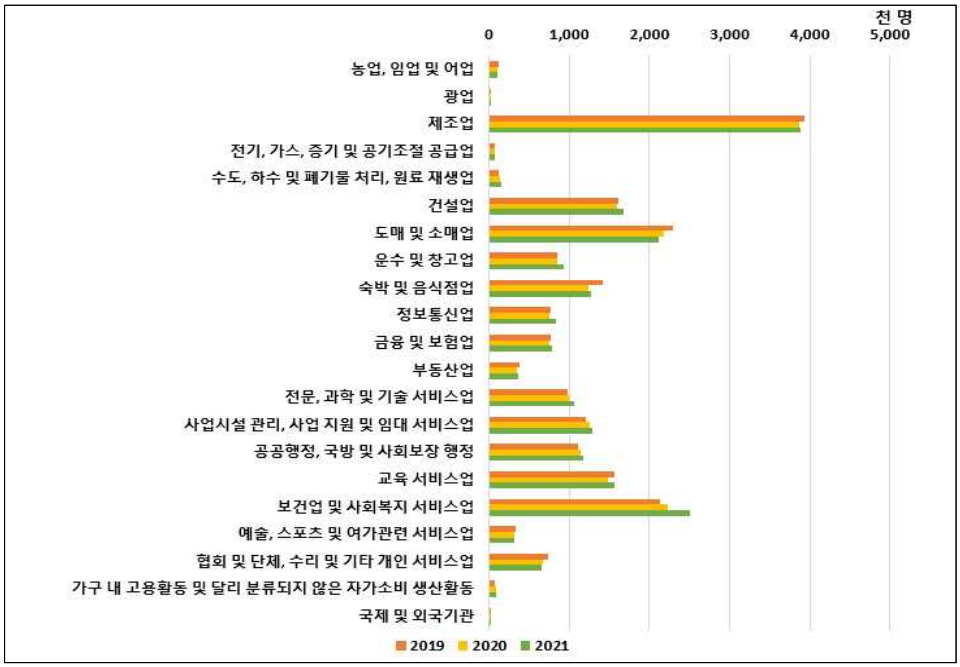
2021년 취업자 수는 2,727만 3천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7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취업자 수(약 20만명) 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53만 4천명, 8.5%p), 운수 및 창고업(158만 6천명, 7.0%p), 정보통신업(90만 1천명, 6.4%p)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3만 5천명, -4.6%p), 도매 및 소매업(335만 3천명, -4.3%p)이다. 하지만 2021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2020년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그 이상으로 증가했다.

<표 2-1> 2019~2021년 산업별 취업자 수

산업(대분류)	2019		2020		2021	
	인원 (천명)	비율 (%p)	인원 (천명)	비율 (%p)	인원 (천명)	비율 (%p)
전체	**27,123**	**1.1**	**26,904**	**-0.8**	**27,273**	**1.4**
농업, 임업 및 어업	1,395	4.1	1,445	3.6	1,458	0.9
광업	15	-23.3	13	-11.0	12	-9.3
제조업	4,429	-1.8	4,376	-1.2	4,368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8	-3.0	74	8.4	71	-3.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5	6.6	153	12.9	169	10.7
건설업	2,020	-0.7	2,016	-0.2	2,090	3.7
도매 및 소매업	**3,663**	**-1.6**	**3,503**	**-4.4**	**3,353**	**-4.3**
운수 및 창고업	**1,431**	**1.8**	**1,482**	**3.6**	**1,586**	**7.0**
숙박 및 음식점업	2,303	2.7	2,144	-6.9	2,098	-2.2
정보통신업	**861**	**2.8**	**847**	**-1.6**	**901**	**6.4**
금융 및 보험업	800	-4.7	778	-2.7	800	2.8
부동산업	556	5.3	517	-7.0	531	2.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57	5.5	1,164	0.6	1,219	4.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12	0.1	1,347	2.7	1,397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6	-3.0	1,112	3.3	1,143	2.8
교육서비스업	1,883	2.0	1,798	-4.6	1,840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06**	**7.8**	**2,336**	**5.9**	**2,534**	**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95	11.3	496	0.3	467	-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33**	**-0.3**	**1,189**	**-3.5**	**1,135**	**-4.6**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75	56.3	98	31.6	87	-11.2
국제 및 외국기관	12	66.2	17	44.1	15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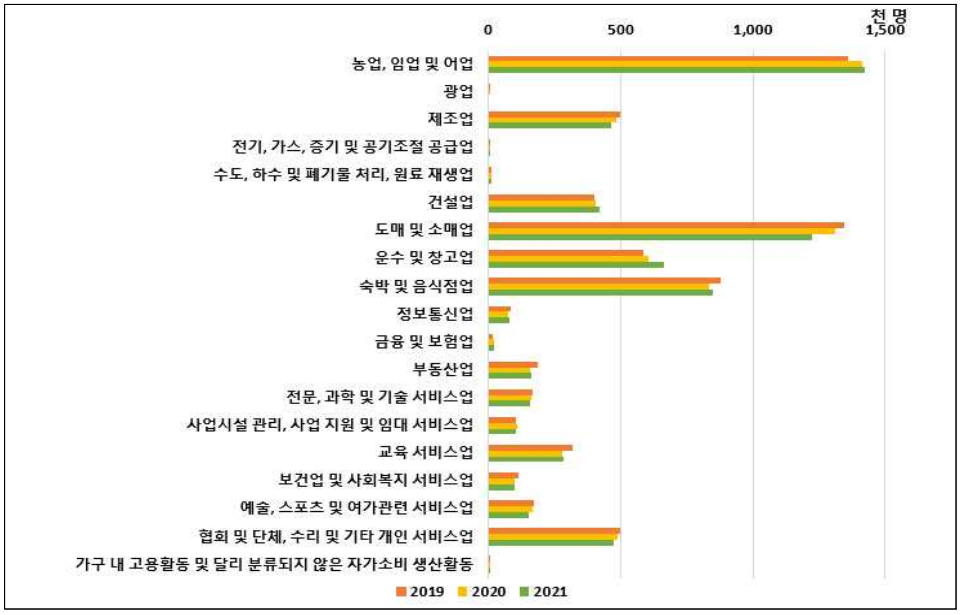
각주: %p는 전년대비증감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그림 2-7] 2019~2021년 산업별 임금노동자



출처: 통계청, KOSIS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종사지위별 취업자

[그림 2-8] 2019~2021년 산업별 비임금노동자



출처: 통계청, KOSIS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종사지위별 취업자

고용형태별 2021년 임금노동자는 2천 88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70만명 증가했고, 2021년 비임금노동자는 66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5만명 감소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약 12%p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임금노동자는 최근 3년간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했지만,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이 속한 운수 및 창고업의 고용증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19~2021년 직업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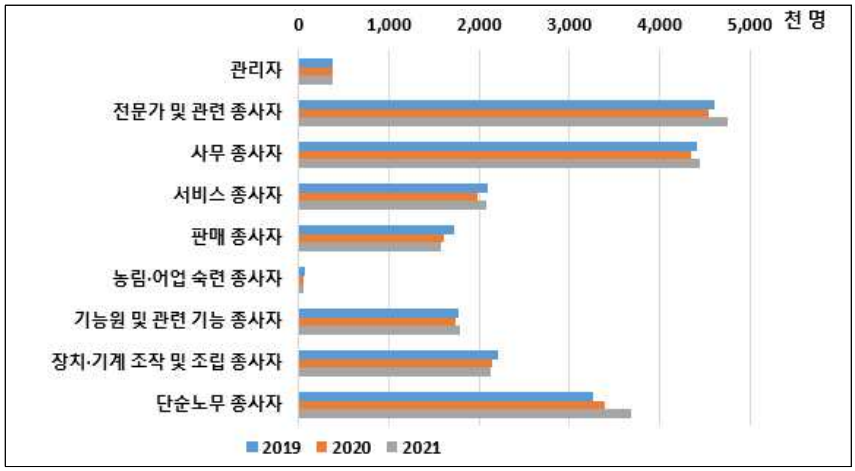
직업(대분류)	2019		2020		2021	
	인원(천명)	비율(%p)	인원(천명)	비율(%p)	인원(천명)	비율(%p)
전체	**27,123**	**1.1**	**26,904**	**-0.8**	**27,273**	**1.4**
관리자	408	10.2	395	-3.2	393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57	1.2	5,480	-1.4	5,585	1.9
사무 종사자	4,749	-0.3	4,691	-1.2	4,751	1.3
서비스 종사자	3,116	5.0	3,046	-2.2	3,073	0.9
판매 종사자	**3,030**	**-0.2**	**2,897**	**-4.4**	**2,766**	**-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32	5.2	1,383	3.8	1,396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372	1.1	2,336	-1.5	2,406	3.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26	-2.3	2,957	-2.3	2,979	0.7
단순노무 종사자	**3,534**	**1.4**	**3,718**	**5.2**	**3,925**	**5.6**

각주: %p는 전년대비증감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9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5.6%p 증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2020년에도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직종으로 현재까지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6] 판매 종사자는 3년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서비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도 2020년에 감소한 취업자가 2021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58만 5천명, 1.9p%), 사무 종사자(475만 1천명, 1.3%p),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40만 6천명, 3.0%p)는 2021년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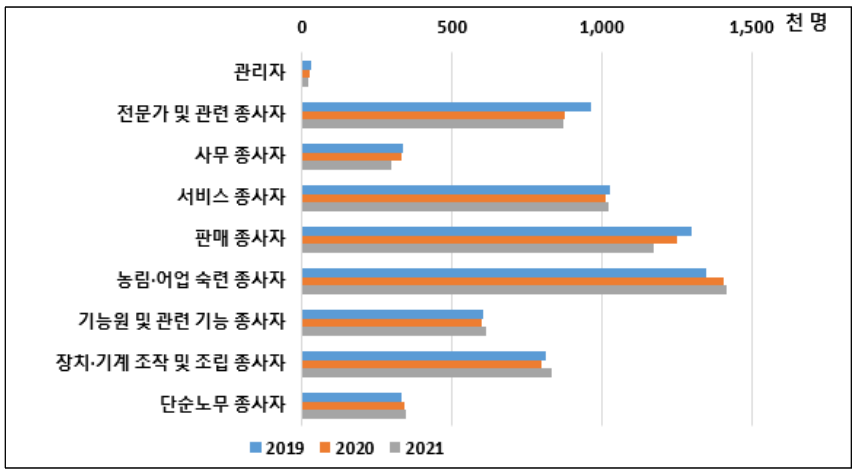
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70378/

[그림 2-9] 2019~2021년 직업별 임금노동자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직업/종사지위별 취업자

[그림 2-10] 2019~2021년 직업별 비임금노동자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직업/종사지위별 취업자

임금노동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는 2019년 326만 6천명, 2020년 338만 7 천명, 2021년 368만 6천명으로 3년 간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는 3년간 감소했다. 비임금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1년 판매 종사자는 전년대비 약 6%p 감소했다. 이 같은 판매 종사자의 고용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 위축, 매출 감소 등이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 수가 많아진 것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코로나19와 노동 취약계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주로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 소상공인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들 집단이 노출되어 온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상호작용하면서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최혜지 외, 2021). 전병유(2020)는 코로나19의 1차적 충격이 운송, 건설, 유통, 호텔여행, 개인서비스, 전문/임대 등의 업종에서 나타났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중고령자, 질병을 가진 자, 청년, 여성, 외국인 등이라고 밝혔다.[7)]

유진성(2022)'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즉, 저소득층에서 실직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고, 소득 상위층에서는 고용에 코로나19의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8)] 정한나(2020)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용직 구인 건수 하락 폭이 컸고, 여성가장과 장애인의 구직 건수 하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장은 가족돌봄과 주소득자(breadwinner)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역할 갈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고용불안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근로환경도 열악해질 수 있다.

특히, 보건·돌봄·택배·환경미화 직종에 종사하며 대면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작업환경에서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고, 업무강도가 더 높아졌다. 맥킨지는 코로나19가 물리적 대면성이 높은 직업군에서 타격이 컸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맥킨지가 밝힌 물리적 대면성이 높은 직군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의료서비스, 개인관리, 현장 고객접대, 레저 및 여행, 가사지원, 실내 생산직 및 창고 관리, 컴퓨터 활용 내근직, 교육 및 훈련, 운송·유통, 실외 생산직 및 관리 순이다.[9)]

---

7) 전병유(202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영향 진단 및 대응방향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 자료

8) 한국경제연구원(2022), '코로나19,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보도자료, 2022.08.03

[그림 2-11] 저임금 고접촉 직무군

출처: https://www.politico.com/interactives/2020/coronavirus-impact-on-low-income-jobs-by -occupation-chart/?fbclid=IwAR0ZSSbuPcQY8chKwXurWpJNnN_seReA3IQNaQb43_2f- 5oBP4jQFzBnV88

또한, 미국 노동부 임금데이터와 O*Net의 근로조건 서베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은 계산원, 웨이터(웨이트리스), 개인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조리사, 보조교사 등으로 저임금이면서 고객들과 접촉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즉, 이들이 바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진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격차는 더 커졌다(이용관, 2021).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일일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이기쁨·지상훈, 2021).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제활동도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매출과 이윤이 급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비노인인 경제활동 연령집단, 그리고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손병돈·문혜진, 2021).

9)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February 18, 2021 Report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이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지금까지의 취약성(vulnerability)은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일을 해도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삶을 사는 노동자들을 '노동빈곤'(working poor) 상태로 부르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정책의 초점은 빈곤에 있었지 노동은 본격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황현일·조효래, 2022). 최저생계 수준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개념화하려는 취약노동자(vulneralbe working) 또는 취약고용(vulnerable employment)이라는 용어는 근래에 들어 일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① 가구 월평균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제2호 (고령자) 만 55세이상인 자

10)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37416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하는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다. 노숙인

라.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마.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확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 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사.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한'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차상위계층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7인가구 차상위계층 3,890,296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제22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평생사회안전망을 시스템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장애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 제50조 1항 「장애인 연금법」 제2조 4호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름)로 구성된 가족 구성

이와 같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사회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황현일·조효래, 2022).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들마다'취약성'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 취약노동자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약노동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불리한 인적 속성에서 취약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노동환경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도 고용취약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노동자,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산재보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취약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나영선 외(2003), 유경준·심상달(2004), 이경용 외(2006), 권영준(2009), 이병훈·이시균(2010), 이규용 외(2013), 윤영삼(2019), 정흥준(2020), 성문주(2022), 심상완 외(2022)).

현재 서울시 조례에서는 취약노동자를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기초지자체인 양천구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다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2018)에서 제시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이다.

<표 2-3> 취약노동자

연구자	취약노동자
나영선 외 (2003)	**전통적인 경제·사회적 배제집단:** 저소득층(복지수혜자 층), 저학력 노동자, 중고령 취업자, 여성취업자
	노동시장 배제 계층: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및 구직자, 비정규근로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여성, 중고령자, 조기퇴직자
	특수취약계층: 장애인, 농어촌거주자, 전과기록 보유자, 수용자
	한시적인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유경준·심상달 (2004)	직업능력이 취약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부,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갱생보호자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 단순 직무의 비정규직, 영세기업의 저임금 직종, 일자리가 불안하고 숙련 수준도 낮은 근로자
	고령 노동자: 저소득 중장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근로자
이경용 외 (2006)	**산재 다발 집단**: 건설업 및 제조업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산재보상보험법: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소규모사업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설업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하청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적 취약집단: 비정규노동자, 여성, 고령, 외국인, 장애 노동자
권영준 (2009)	**노동환경 측면**: 불안정 고용(비정규노동자),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성, 고령, 청소년, 외국인
이병훈·이시균 (2010)	**고용지위**: 비정규직 노동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이규용 외 (2013)	**인적특성**: 장기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여성, 노인, 청년
윤영삼 (2019)	**차별, 차등,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의 작동만으로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일자리의 노동자**: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자, 영세업체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돌봄·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 1인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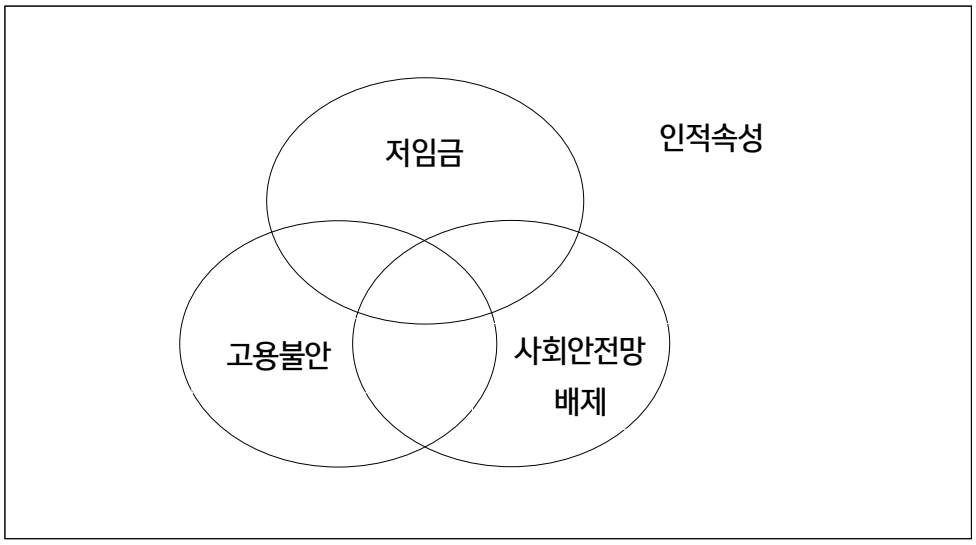
<표 2-3>의 계속 : 취약노동자

연구자	취약노동자
정흥준 (2020)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고용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일일(단기) 노동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성문주 (2022)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 보유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경력단절·경력전환 근로자
심상완 외 (2022)	**불리한 인적 속성:** 이주자, 여성, 청소년, 중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 저임금노동자, 고용형태 취약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 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주 15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작업 및 근로환경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취약한 노동자, 작업환경으로 안히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취약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위험(risk)에 노출되어 있으나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으로 정의했다.[11] 구체적으로 (1)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일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의 위험에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 (2)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임시 근로계약, 근로시간, 사용자책임 소재, 노동자성 문제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차별에 노출된 노동자, (3) 사용자의 회피 또는 제도의 미인지로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배제 노동자, (4) 사회·제도적인 요인들이 개인적인 속성에서 나타나는 취약노동자(예: 여성, 고령, 저학력,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1),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그림 2-12] 취약계층의 유형화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1; 박영삼(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특징' 2022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사업 최종보고회 토론문 자료

2) 취약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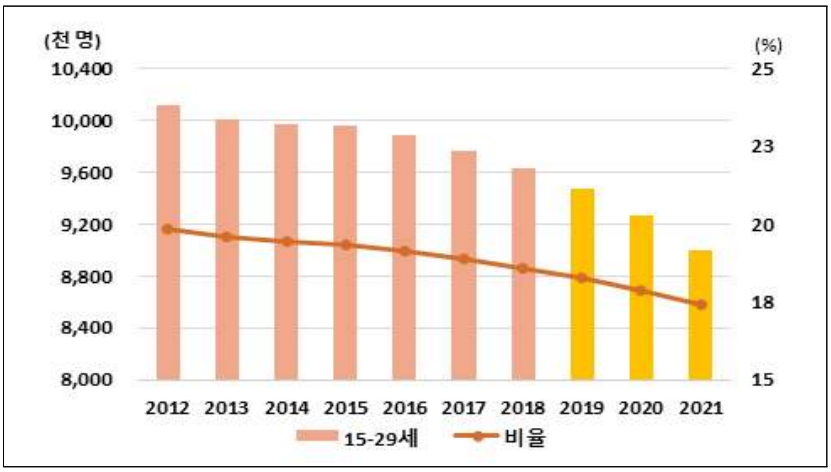
가) 인적 속성

노동시장에서 연령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은 청년과 노인이다. 청년은 경제위기시 이들이 경험하는 일자리 상실의 규모가 크며, 회복이 더디고,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함선유 외, 2021).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는 2021년 약 9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청년 인구는 매년 20만 명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110만 명 정도 줄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분포의 하위에 속한다. 그리고 연령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거나,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이나 경비, 청소 등의 단순노무직으로 저임금과 빈곤,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취약계층 고령자 연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취약계층'판단기준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다. 2021년 55세 이상 인구는 약 1천 7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1%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5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약 5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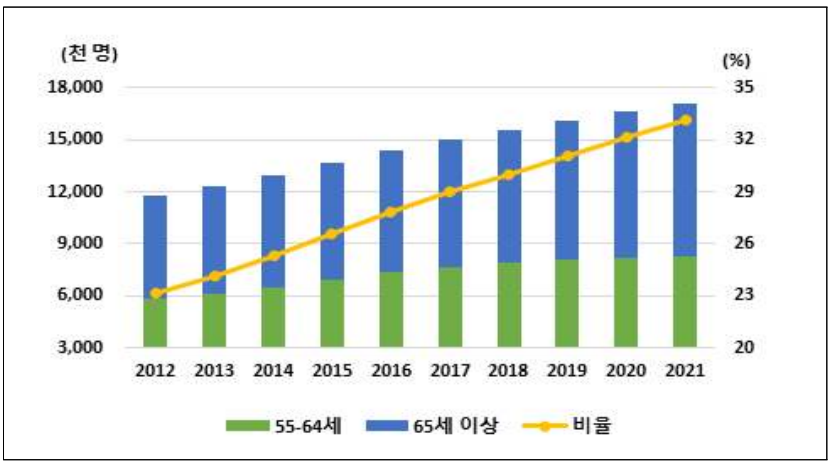
해 5백 2십만 명 증가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에 약 8백 8십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를 차지한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까지 차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그림 2-13] 청년(15~29세) 인구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1

[그림 2-14] 고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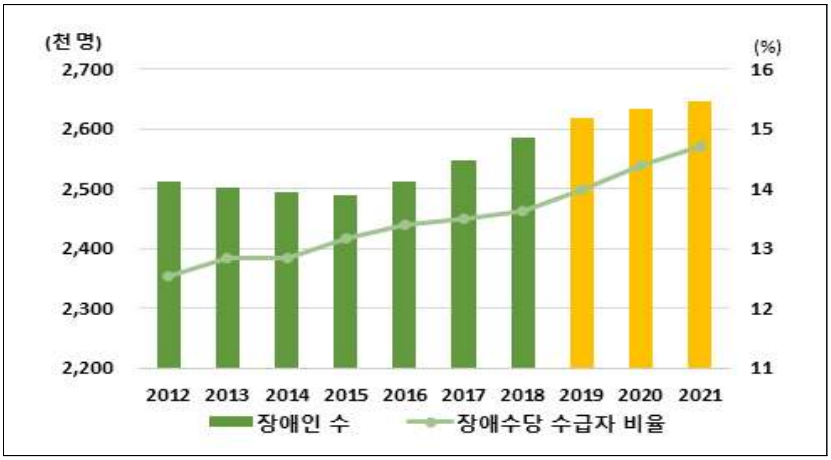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1

12)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9.29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우며, 진입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기준 장애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27.4%로 전체 단순노무종사자(13.3%)의 2배 이상이며,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3.1만원으로 최저임금(월 175만원) 수준이다.

[그림 2-15] 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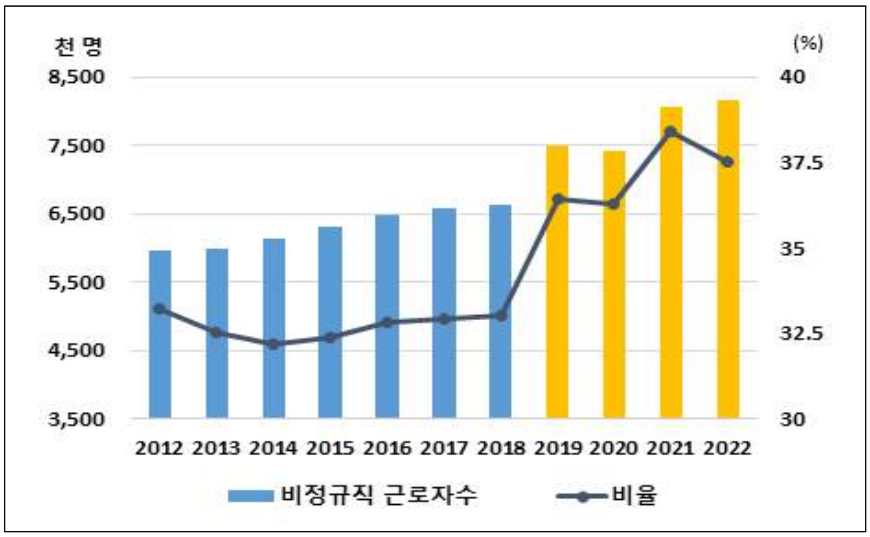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2012~202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21년 264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3~6급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장애수당 수급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는 14% 이상 지급받고 있다.

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노동자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2년 815만 명으로 2021년에 8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3년 비정규직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이다.

[그림 2-16] 비정규직 고용동향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각주: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모두 포함

비정규직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한다.[13)]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2022년 535만 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한시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한시적 근로자는 18만 명 증가했고, 증감율은 3%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2022년 369만 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0%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 시간제 근로자는 18만 명 증가했다. 비전형 근로자는 2022년 213만 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전형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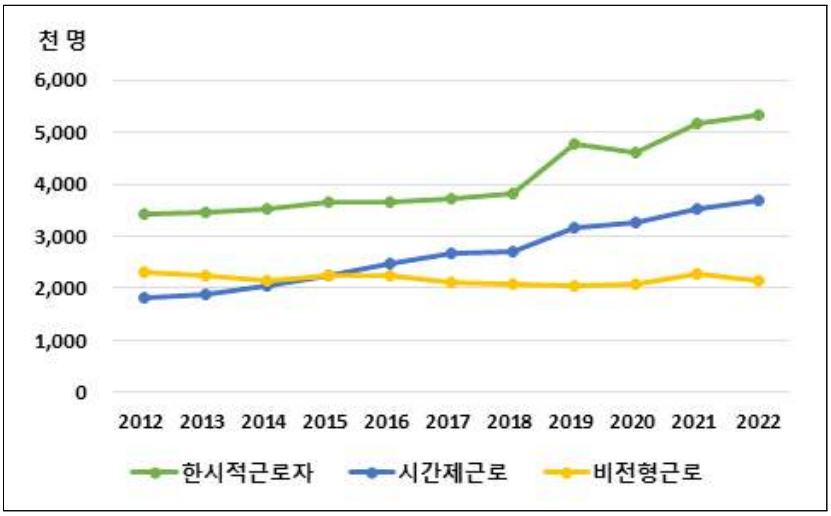
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근로자 정의,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표 2-4> 비정규직 고용동향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22	8,156	37.5	5,348	24.6	3,687	17.0	2,131	9.8
2021	8,066	38.4	5,171	24.6	3,512	16.7	2,278	10.8
2020	7,426	36.3	4,608	22.5	3,252	15.9	2,073	10.1
2019	7,481	36.4	4,785	23.3	3,156	15.3	2,045	9.9
2018	6,614	33.0	3,823	19.1	2,709	13.5	2,071	10.3
2017	6,578	32.9	3,725	18.6	2,663	13.3	2,112	10.6
2016	6,481	32.8	3,671	18.6	2,488	12.6	2,245	11.4
2015	6,308	32.4	3,655	18.8	2,236	11.5	2,229	11.4
2014	6,123	32.2	3,529	18.6	2,035	10.7	2,137	11.3
2013	5,977	32.5	3,446	18.7	1,883	10.2	2,234	12.1
2012	5,954	33.2	3,427	19.1	1,828	10.2	2,304	12.8

각주: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그림 2-17]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고용동향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또한,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2년 기간제 근로자는 469만 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58%를, 비기간제 근로자는 66만 명으로 2021년에 비해 2만 5천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8%를 차지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로 구분되

며, 2022년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19만 명, 용역근로자 57만 명, 특수형태근로자 56만 명, 일일근로자 81만 명, 가정내근로자 9만 5천명이다. 2021년 보다 일일근로는 14만 명 감소하였고, 가정내근로는 1만 6천명 증가하였다. 용역근로자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5> 한시적 근로자 고용동향

	기간제		비기간제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22	4,689	57.5	659	8.1
2021	4,537	56.3	634	7.9
2020	3,933	53.0	675	9.1
2019	3,799	50.8	985	13.2
2018	3,005	45.4	818	12.4
2017	2,930	44.5	795	12.1
2016	2,939	45.3	732	11.3
2015	2,872	45.5	784	12.4
2014	2,763	45.1	767	12.5
2013	2,770	46.3	676	11.3
2012	2,729	45.8	697	11.7

각주: 비율(%)은 비정규직 대비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표 2-6> 비전형 근로자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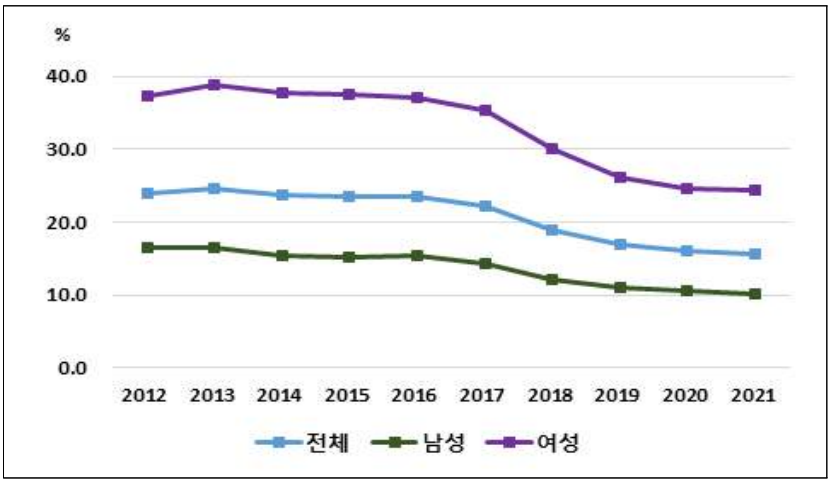
	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내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22	189	2.3	567	6.9	561	6.9	814	10.0	95	1.2
2021	211	2.6	585	7.2	560	6.9	955	11.8	79	1.0
2020	164	2.2	552	7.4	498	6.7	896	12.1	49	0.7
2019	182	2.4	615	8.2	528	7.1	748	10.0	46	0.6
2018	189	2.9	596	9.0	506	7.6	801	12.1	53	0.8
2017	188	2.9	694	10.5	497	7.6	801	12.2	30	0.4
2016	201	3.1	702	10.8	502	7.7	874	13.5	42	0.6
2015	211	3.3	660	10.5	502	8.0	886	14.0	55	0.9
2014	195	3.2	608	9.9	533	8.7	816	13.3	58	0.9
2013	205	3.4	649	10.9	553	9.3	829	13.9	74	1.2
2012	216	3.6	682	11.5	554	9.3	879	14.8	69	1.2

각주: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다) 저임금노동

저임금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의 취약노동에 해당한다. 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1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중위 임금은 월 297만원이며, 저임금기준은 월 198만원 미만 노동자다.

[그림 2-18] 저임금노동자 비율



각주: 저임금노동자비율=(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노동자 수÷전체 임금노동자 수)×100
출처: 통계청,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021년 15.6%로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노동자가 더 높으며, 2021년에는 남성 10.2%, 여성 24.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5.6%)은 미국(22.7%)보다는 낮으나, 멕시코(13.2%), 일본(10.7%), 브라질(8.2%), 뉴질랜드(1.6%) 보다는 높은 편이다.[15]

14)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15)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36

Ⅲ.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16)]

3장은 2장에서 살펴본 취약노동의 범위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취약노동의 개념을 응용하여, 서울지역 취약노동자의 노동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인적속성별(청년, 기혼여성, 노인,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노동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와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서울지역 노동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장에서 제시한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현황은 대부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했고, 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와 서울특별시 도시정책지표조사도 일부 활용했다.

1.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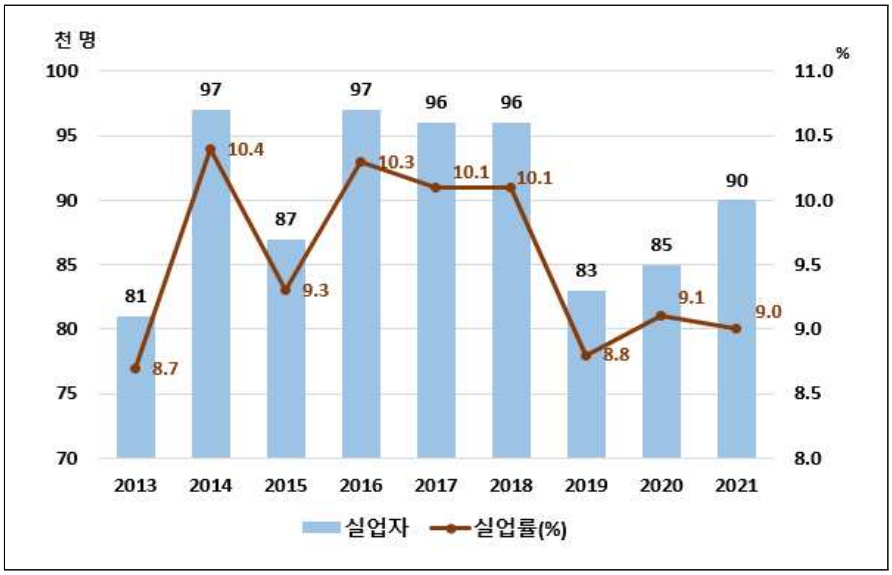
1) 청년

2021년 15~29세 청년 실업자는 9만 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15~29세 경제활동인구가 6만 1천명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었던 구직단념자 등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직활동을 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된 가운데, 이들이 취업하기 보다는 아직 실업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021년 청년 취업자는 90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7천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0.5%로 전년대비 3.9%p 증가하여, 청년의 고용상황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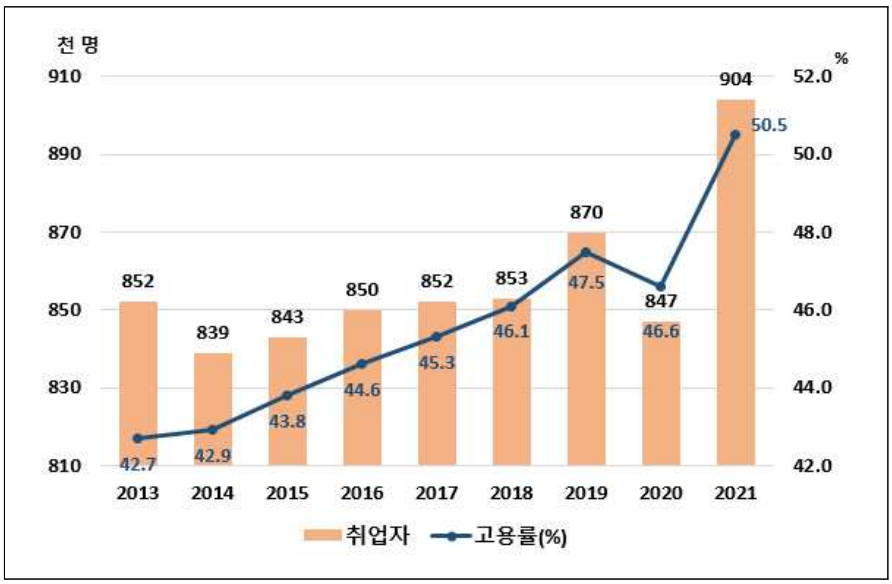
16) 3장에서는 근로자를 모두 노동자로 표기한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로 표기한다.

[그림 3-1]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실업률



각주: 청년 실업률(%)=(15-29세 실업자 수 ÷ 15-29세 경제활동인구)×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그림 3-2]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률



각주: 청년 고용률(%)=(15-29세 취업자 수 ÷ 15-29세 인구수)×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표 3-1> 2013-2021 서울시 청년(15~29세) 경제활동

	15~29세 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고용률(%)	실업률(%)
2021	1,789	**993**	796	**904**	**90**	**50.5**	**9.0**
2020	1,818	**932**	886	**847**	**85**	**46.6**	**9.1**
2019	1,830	953	877	870	83	47.5	8.8
2018	1,850	949	901	853	96	46.1	10.1
2017	1,881	948	933	852	96	45.3	10.1
2016	1,907	948	959	850	97	44.6	10.3
2015	1,924	930	994	843	87	43.8	9.3
2014	1,956	936	1,019	839	97	42.9	10.4
2013	1,996	933	1,063	852	81	42.7	8.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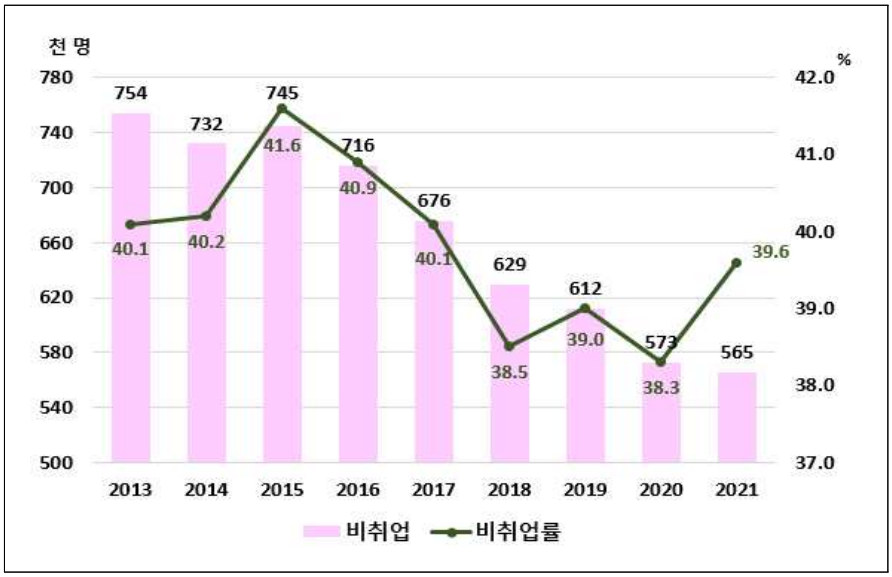
2) 기혼여성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취업여성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15~54세 기혼여성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88만 인구에서 2021년 143만 인구로 무려 45만 인구가 줄었다. 매년 약 5만 6천명 정도 기혼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혼여성 비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는 56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취업여성 비율은 39.6%로 전년대비 1.3%p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지역 15세~54세 기혼여성 인구 감소 즉,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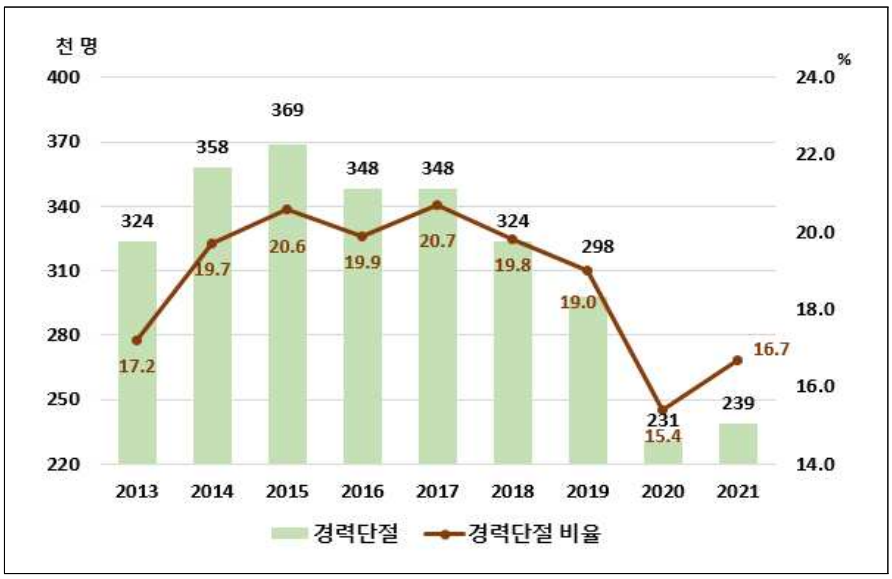
경력단절 기혼여성 인원은 2017년에 34만 8천명이었으나, 2019년 29만 8천명, 2020년 23만 1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1년에 23만 9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15~54세 기혼여성 인구 대비 경력단절 기혼여성 비율도 2021년에 16.7%로 전년대비 1.3%p 증가했다.

[그림 3-3]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비취업률



각주: 기혼여성 비취업률(%)=(비취업 기혼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인구)×1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2021

[그림 3-4]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경력단절 비율



각주: 기혼여성 경력단절 비율(%)=(경력단절 기혼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인구)×1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2021

<표 3-2> 2013-2021 서울시 기혼여성(15~54세) 경력단절

	15~54세 기혼여성 (천명)	비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인원(천명)	비율(%)	인원(천명)	비율(%)
2021	**1,430**	**565**	**39.6**	**239**	**16.7**
2020	1,497	573	38.3	**231**	15.4
2019	1,568	612	39.0	**298**	19.0
2018	1,635	629	38.5	324	19.8
2017	1,684	676	40.1	**348**	20.7
2016	1,750	716	40.9	348	19.9
2015	1,791	745	41.6	369	20.6
2014	1,819	732	40.2	358	19.7
2013	**1,880**	754	40.1	324	17.2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2021

3)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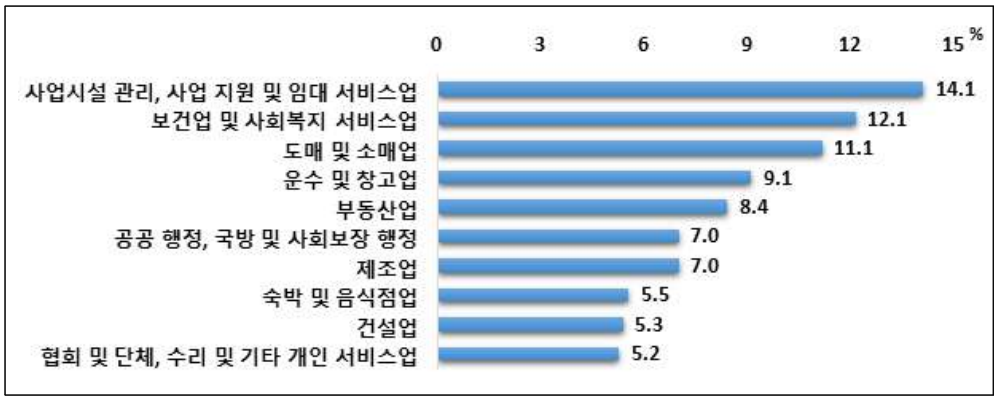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약 42만 명이며[17], 이 중 46%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노인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1%)이며,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1%), 도매 및 소매업(11.1%), 운수 및 창고업(9.1%) 순이다.

노인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45.7%)이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0.8%), 판매 종사자(10.3%), 서비스 종사자(9.4%)도 노인 취업자 비율이 약 10% 정도 차지한다.

노인 일자리가 건물관리, 청소업무와 같은 단순노무·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의 질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별·직업별 인원수를 가중치 적용 후 계산
지역별 고용조사 상, 하반기 자료에서 평균값을 사용했고, 결측치, 가중치 적용 오차 등으로 산업별 인원 합계와 직업별 인원 합계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그림 3-5] 산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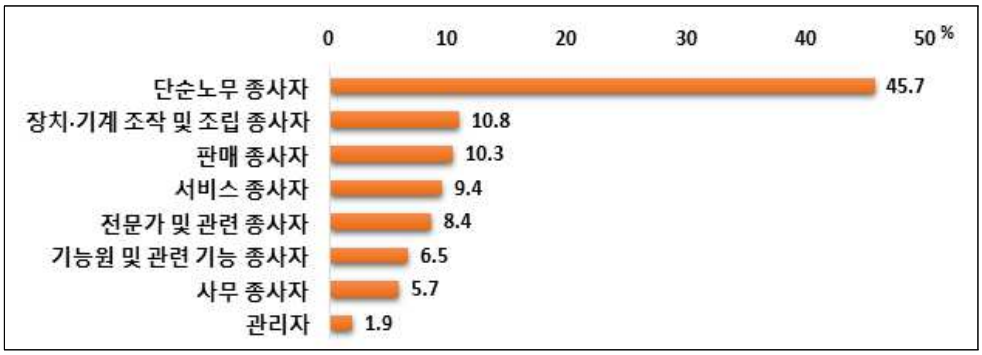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하반기, A형)

<표 3-3> 산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인원(명)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4,621	1.10
제조업	29,132	6.9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1	0.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442	1.06
건설업	22,362	5.34
도매 및 소매업	**46,554**	**11.11**
운수 및 창고업	**37,984**	**9.07**
숙박 및 음식점업	23,111	5.52
정보통신업	2,933	0.70
금융 및 보험업	6,774	1.62
부동산업	35,029	8.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03	3.08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8,877**	**14.0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143	6.96
교육 서비스업	16,872	4.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634**	**12.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895	5.2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975	2.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555	1.33
총계	419,017	100.00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그림 3-6] 직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비율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하반기, A형)

<표 3-4> 직업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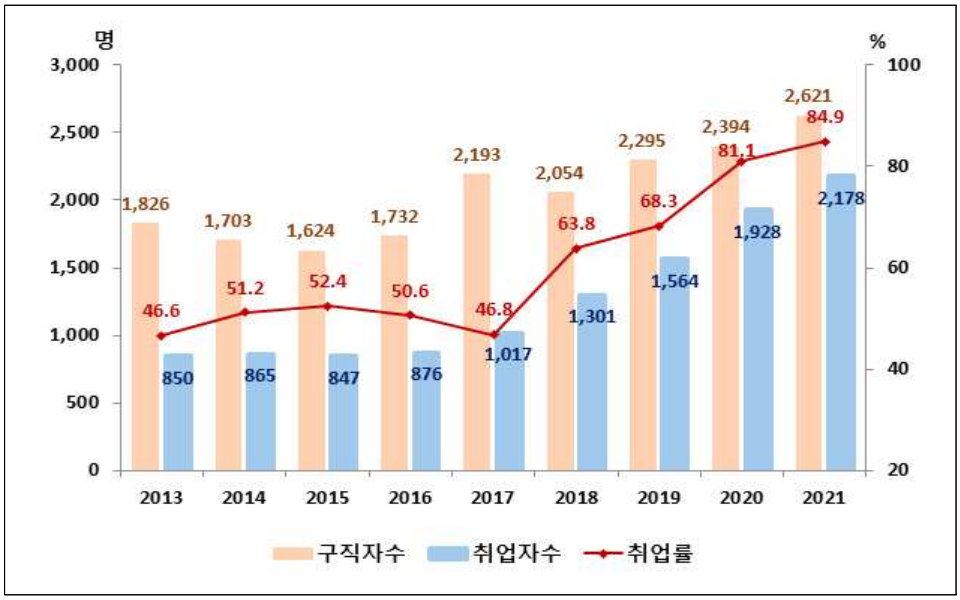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인원(명)	비율(%)
관리자	7,851	1.8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205	8.42
사무 종사자	23,872	5.71
서비스 종사자	39,225	9.39
판매 종사자	43,053	10.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81	1.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7,184	6.5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5,197	10.82
단순노무 종사자	190,826	45.66
총계	417,893	100.00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하반기, A형)

4) 장애인

2021년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지역 장애인 구직자는 2천 6백명, 취업자는 2천 2백명으로 취업률은 84.9%이다. 장애인 취업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취업알선은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성공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1%이다.

[그림 3-7] 2013-2021 서울시 장애인 취업자



각주: 취업률=취업자수/구직자수*1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 2013-20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표 3-5> 2013-2021 서울시 장애인 취업자

	구인수(명)	구직자수(명)	알선(명)	취업자수(명)	취업률(%)
2021	6,877	**2,621**	**3,350**	**2,178**	**84.9**
2020	6,908	2,394	**3,562**	1,928	81.1
2019	5,938	2,295	**3,795**	1,564	68.3
2018	5,790	2,054	2,986	1,301	63.8
2017	6,567	2,193	3,684	1,017	46.8
2016	5,555	1,732	2,995	876	50.6
2015	5,008	1,624	2,769	847	52.4
2014	5,758	1,703	2,250	865	51.2
2013	5,794	1,826	2,390	850	46.6

각주: 취업률=취업자수/구직자수*10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 2013-20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 노동조건

1) 불안정 노동

고용불안정성 측면에서 취약노동자를 구분할 때,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및 종사상 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사업유지 안정성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

<표 3-6>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전체	**934,955**	**22.5**	**239,110**	**5.7**
제조업	47,659	13.1	14,442	4.0
건설업	41,587	11.5	**100,290**	**27.6**
도소매업	**111,722**	**30.8**	16,740	4.6
운수·창고업	30,360	8.4	13,059	3.6
숙박·음식점업	**123,039**	**33.9**	36,284	10.0
정보통신업	31,243	8.6	1,130	0.3
금융·보험업	57,222	15.8	-	0.0
부동산업	30,055	8.3	1,036	0.3
전문, 기술서비스업	26,080	7.2	1,614	0.4
사업서비스업	70,933	19.5	23,764	6.5
공공행정	53,114	14.6	2,539	0.7
교육서비스업	**122,146**	**33.6**	2,591	0.7
보건·사회복지업	**101,157**	**27.9**	5,715	1.6
예술·여가서비스업	28,712	7.9	2,425	0.7
기타·개인서비스업	37,448	10.3	7,242	2.0
가구 내 고용활동	18,420	5.1	9,349	2.6

각주: 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 비율(%)로 계산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시직 노동자는 93만 5천명, 일용직 노동자는 23만 9천명이다. 이는 서울 전체 임금근로자의 28.2%가 고용불안정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직 노동자가 많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2만명), 교육서비스업(12만명), 도소매업(11만명), 보건·사회복지업(10만명)이며,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건설업(10만명)이다.

<표 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 전체	**568,857**	**62.8**	**84,955**	**9.4**
제조업	33,730	44.1	13,503	17.7
건설업	33,452	64.6	2,363	4.6
도소매업	**132,845**	59.3	27,076	**12.1**
운수·창고업	**94,294**	**92.7**	1,263	1.2
숙박·음식점업	**44,399**	39.2	24,800	**21.9**
정보통신업	24,923	**76.4**	301	0.9
금융·보험업	3,131	57.3	-	0.0
부동산업	22,957	70.7	2,615	8.0
전문·기술서비스업	29,772	55.8	2,212	4.1
사업서비스업	12,690	58.9	2,105	9.8
교육서비스업	42,683	**76.4**	1,616	2.9
보건·사회복지업	3,069	14.6	510	2.4
예술·여가서비스업	29,491	**80.8**	1,010	2.8
기타·개인서비스업	**57,096**	**77.2**	4,455	6.0
가구 내 고용활동	1,705	100.0	-	0.0

각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비임금근로자 중 비율(%)로 계산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서울지역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62.8%이며, 무급가족종사자는 9.4%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업(13만명), 운수·창고업(9만 4천명), 기타·개인서비스업(5만 7천명), 숙박·음식점업(4만 4천명) 순이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92.7%), 예술·여가서비스업(80.8%), 기타·개인서비스업(77.2%), 교육서비스업(76.4%), 정보통신업(76.4%) 순이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21.9%), 제조업(17.7%), 도소매업(12.1%)이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임시·일용직 현황을 거주지 기준과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살펴봤다. 임시직 노동자는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지역 사업체 소재지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체 소재지는 강남구, 영등포구, 구로구에 많이 있다.

<표 3-8> 자치구별 임시직·일용직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거주지	사업체 소재지	거주지	사업체 소재지
서울 전체	**934,955**	**839,890**	**239,110**	**190,231**
종로구	16,605	32,157	3,395	5,443
중구	12,022	40,610	3,129	6,806
용산구	25,391	26,440	4,337	4,297
성동구	21,785	24,490	5,220	6,007
광진구	33,781	25,412	10,946	7,687
동대문구	35,130	37,305	11,021	10,600
중랑구	40,041	20,275	9,121	6,221
성북구	48,600	35,630	7,578	5,634
강북구	40,630	27,468	8,113	5,653
도봉구	39,936	21,434	7,770	4,404
노원구	**59,241**	40,384	6,755	5,120
은평구	**55,620**	26,298	9,622	6,029
서대문구	34,484	26,359	5,829	4,292
마포구	34,341	**46,810**	6,609	8,213
양천구	42,510	26,781	5,688	4,443
강서구	**53,535**	31,316	12,728	9,201
구로구	39,544	28,195	**24,829**	**12,113**
금천구	30,058	24,962	16,068	10,890
영등포구	32,662	41,000	**23,231**	**12,791**
동작구	40,134	24,138	7,327	4,798
관악구	48,609	30,939	**19,730**	8,743
서초구	29,561	37,777	3,721	5,903
강남구	33,102	**90,717**	2,854	**13,372**
송파구	51,209	**44,191**	9,017	11,151
강동구	36,424	28,803	14,472	10,421

각주: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인원(명)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송파구, 관악구, 강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강남구, 동대문구, 강서구 지역 사업체 소재지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구로구, 송파구, 광진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체 소재지는 중구, 동대문구, 송파구에 많이 있다. 따라서 강서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송파구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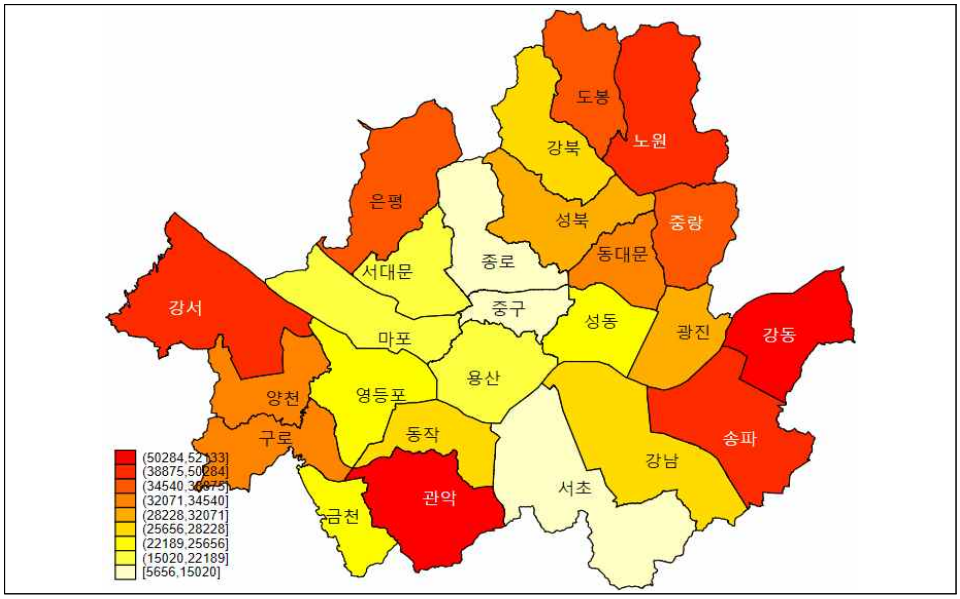
<표 3-9> 자치구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거주지	사업체 소재지	거주지	사업체 소재지
서울 전체	**568,857**	**521,887**	**84,955**	**77,678**
종로구	12,137	20,095	2,567	4,455
중구	11,160	23,825	3,133	**7,519**
용산구	15,274	15,421	3,282	2,681
성동구	16,247	15,666	3,556	2,883
광진구	23,833	18,419	**5,688**	4,991
동대문구	25,518	**28,051**	4,639	**5,130**
중랑구	27,414	20,513	3,998	3,300
성북구	28,168	22,262	5,022	3,413
강북구	20,449	15,860	2,411	1,428
도봉구	24,121	17,352	2,032	1,664
노원구	27,831	22,294	3,127	2,222
은평구	27,465	20,151	4,076	2,479
서대문구	22,390	18,545	3,351	2,125
마포구	24,114	25,120	3,172	2,710
양천구	28,996	21,933	4,174	3,052
강서구	**30,290**	**26,280**	2,289	1,642
구로구	21,531	17,611	**5,220**	4,418
금천구	13,579	12,510	2,149	1,712
영등포구	17,903	20,772	2,603	1,968
동작구	17,235	14,322	3,262	1,775
관악구	**30,156**	23,425	2,973	3,289
서초구	18,766	20,565	2,033	2,287
강남구	27,671	**34,941**	2,413	3,251
송파구	**31,471**	26,058	**5,540**	**5,184**
강동구	25,137	19,895	2,244	2,100

각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원(명)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다음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취약노동자 분포를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맵(Map)으로 나타냈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지역 만 15세 이상 40,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로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노동자 고용형태에서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18].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관악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중랑구 지역 즉, 서울시 외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3-8] 자치구별 임시·일용직 노동자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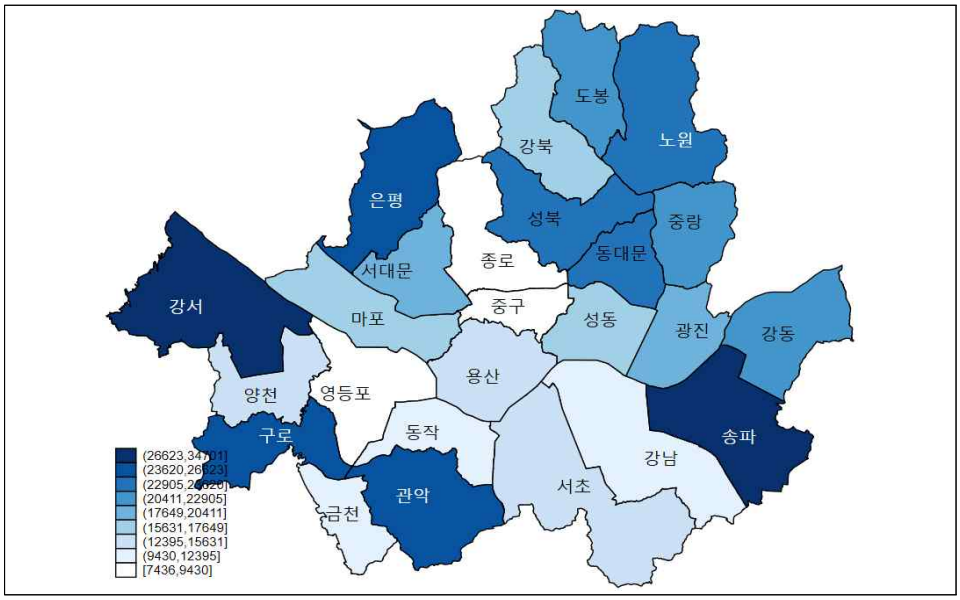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강서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지역에, 특수고용종사자는 강서구,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도봉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에서 특수고용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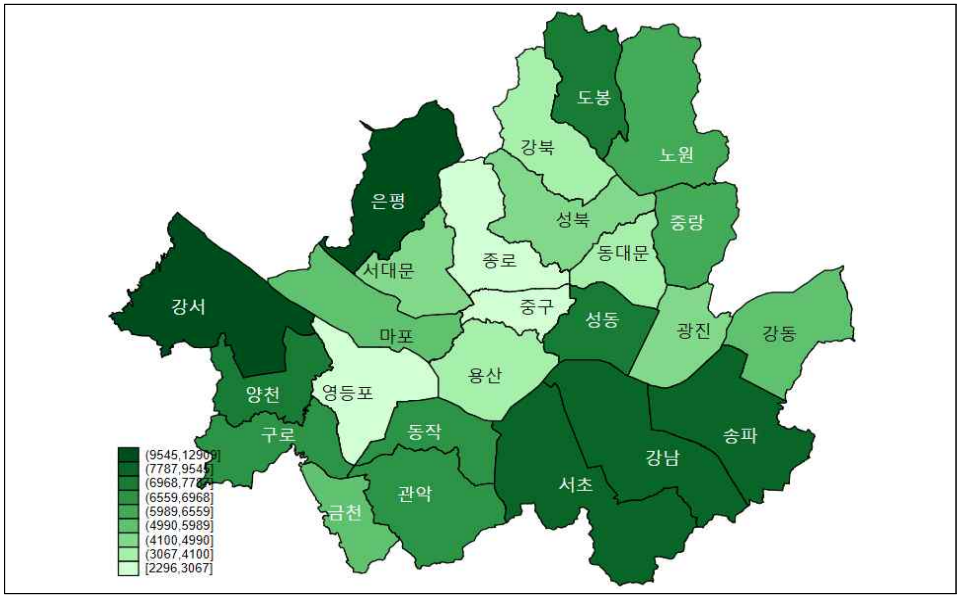
18) 서울서베이 자료는 종사자수 규모면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와 차이가 있으나, 맵(Map)을 활용하여 분포를 보여주는데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그림 3-9] 자치구별 1인 자영업자 분포 (단위: 명)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그림 3-10] 자치구별 특수고용종사자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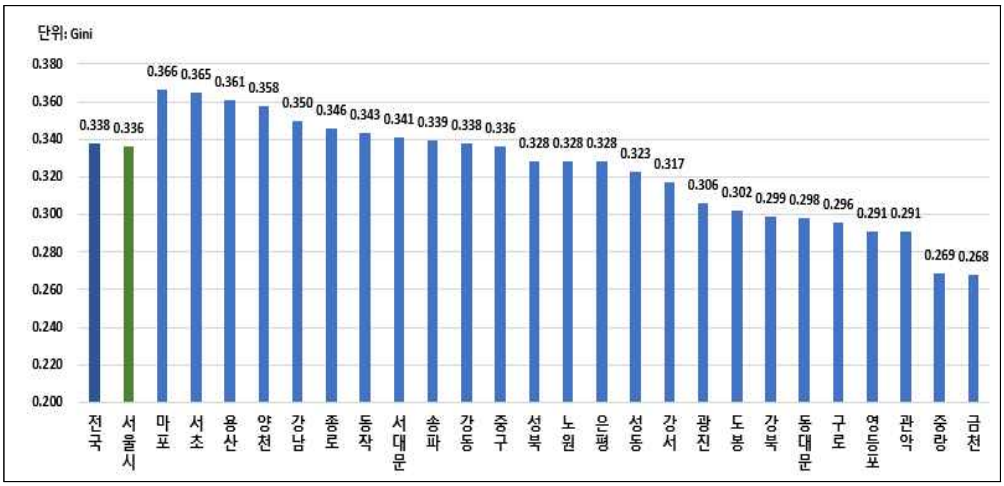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2) 저임금과 임금격차

2021년 기준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19]는 69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3천명 감소했으나 **전국 대비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 비율(17%)은 여전히 5% 이상 높은 편**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임금격차가 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지니계수(Gini Index)[20]로 살펴본 **서울지역 임금격차(0.336)는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전라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크다. 그리고 서울지역 자치구별 임금격차는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에서 크고, 금천구, 중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3-11] 서울지역 자치구별 임금격차(Gini)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시군구 가중치 적용

이와 같이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격차는 지역 노동시장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임금격차는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우진·최은영, 2020).

19)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2/3미만 노동자로 정의.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
20) 지니계수(Gini Index)는 임금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배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의 값을, 완전불평등한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의미함

<표 3-10> 직종별 저임금 노동자

직업(중분류)	인원(명)	직업(중분류)	인원(명)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15,764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4,60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83,527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4,25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7,516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636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71,945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3,57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57,353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322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2,48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10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6,883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2,803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25,423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92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41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1,868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9,960	금융 사무직	1,75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8,451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650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18,01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610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7,853	농·축산 숙련직	1,416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5,6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1,14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5,21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048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5,074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983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13,477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964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관련직	11,488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960
영업직	9,380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447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6,127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414
기타 기능 관련직	5,370	전문 서비스 관리직	404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5,052	법률 및 행정 전문직	317
서울 소계			**748,659**

출처: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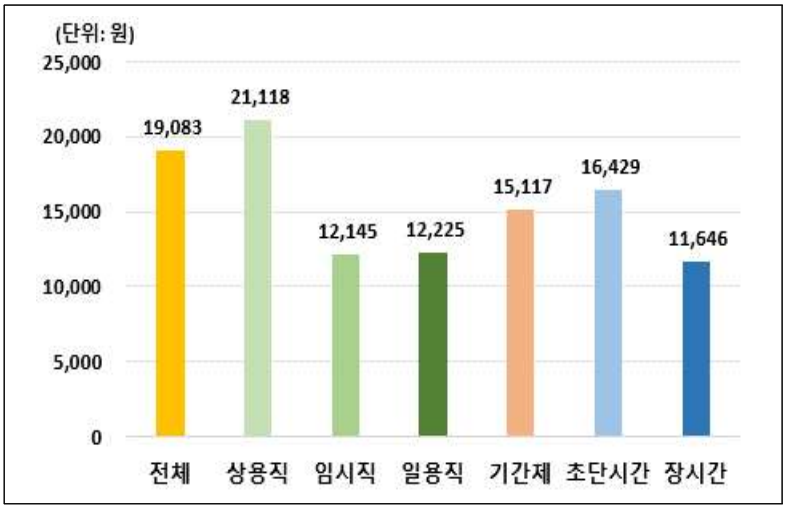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월 173만원 미만) 세부 직종을 살펴보면,[21]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1만 6천명이며, 그 다음으로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8만 4천명,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만 8천명,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7만 2천명,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5만 7천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만 2천명,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만 7천명 순이다. 이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종사자 등의 저숙련 일자리로 고용불안정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1)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시군 중분류 자료는 현재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투입하지 못했음

가)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2021년 서울지역 임금노동자의 시간당임금 평균은 19,083원이다. 상용직의 시간당 임금은 21,118원, 임시직은 12,145원, 일용직은 12,225원으로 임시일용직의 시간당임금은 상용직의 58% 수준이다.

[그림 3-12] 종사상 지위 및 고용상태별 시간당임금(평균)



각주: 초단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장시간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15,117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정년제 포함) 노동자는 20,126원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18,934원,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16,429원,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11,646원이다. 장시간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 61% 수준이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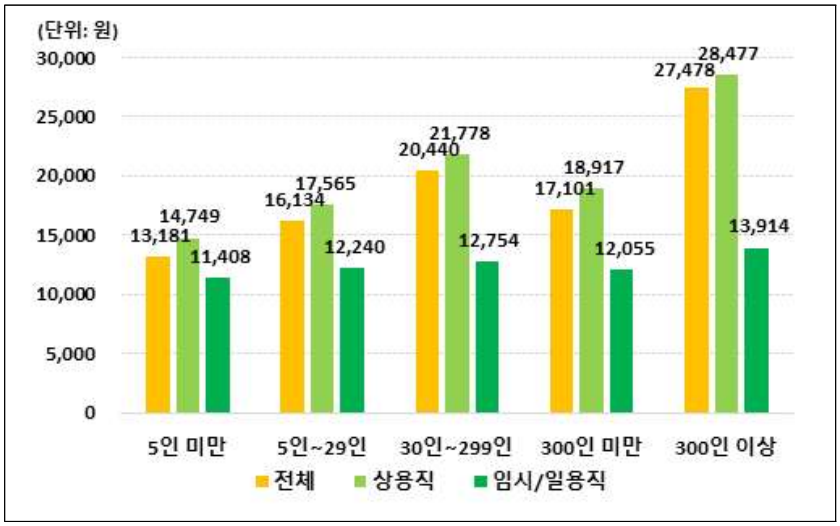
나)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 17,101원, 300인 이상 사업장 27,478원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도 있다. 상용직은 300인 미만 사업장

22)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업 근무시간 기준이며, 장시간 노동자는 총 근무시간(주업+부업)기준임

18,917원, 300인 이상 사업장 28,477원으로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임시일용직은 300인 미만 사업장 12,055원, 300인 이상 사업장 13,914원으로 약 2천원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에 다른 임금격차는 상용직에서 더 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상용직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300인 이상 규모에서 그 격차는 더 크다. 마찬가지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아지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도 증가한다.

[그림 3-13]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임금(평균)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다) 산업·직업별 임금수준

서울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1,431원)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3,632원), 부동산업(14,804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14,839원) 순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반대로 서울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8,598원)이며, 그 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883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4,164원), 국제 및 외국기관(23,406원), 정보통신업(22,825원), 교육서비스업(20,416원) 순이다.[23)]

23) 산업·직업별 임금수준은 월평균임금에서 주당 주업근무시간*4.345을 나눈 값으로 시간당임금 평균값을 계산. 시도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산업·직업별 표본구성 등에 따라 결과 값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3-14] 산업별 시간당임금(평균)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는 시간당임금이 10,733원으로 관리자(42,382원)의 1/4수준이다. 그리고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1만원 정도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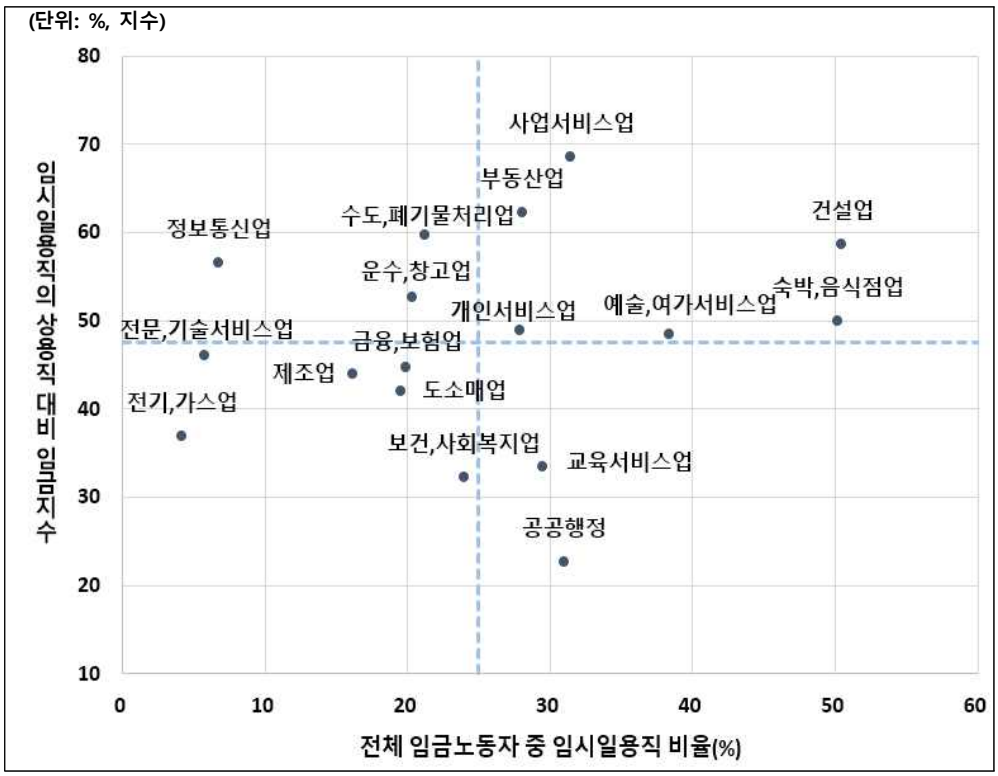
[그림 3-15] 직업별 시간당임금(평균)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라) 임시일용직 고용과 임금지수

서울지역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지수를 산출했다. 2021년 서울지역 상용직 임금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은 47.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수도, 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임시일용직 임금지수가 높고,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업에서 임시일용직 임금지수가 낮다. 그리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기,가스업(4.2%)이 가장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50.5%)이 가장 높다.

[그림 3-16]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2021년)[24)]



주 1): 임시일용직의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임시일용직 평균임금/상용직 평균임금(=100)
2): 종축과 횡축의 파란 점선은 전체 업종 평균값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24) 강승복(2005), '임시·일용직 고용과 업종별 임금 및 생산성',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분석 응용

[그림 3-16]은 서울지역 17개 업종에 대해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 간의 산업별 분포이다.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업종들은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 예술, 여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 임시일용직이 많은 영세서비스업이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율은 높으면서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가 낮은 업종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으로, 이 업종들의 고용증가가 저임금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임금지수가 높으면서, 비율이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 수도, 폐기물처리업, 운수, 창고업으로 서울지역 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통신업과 전통적 성격이 강한 운수업이 있다.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이 모두 낮은 업종은 보건, 사회복지업,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전문, 기술서비스업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종과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은 전통적 성격이 강한 업종들이 있다.

<표 3-11> 임시일용직 비율 및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2021년)

산업(대분류)	임시·일용직 비율(%)	상용직 대비 임금지수 (상용직=100)
제조업	16.16	43.95
전기,가스업	4.17	36.87
수도,폐기물처리	21.26	59.71
건설업	50.48	58.61
도소매업	19.52	41.99
운수,창고업	20.36	52.66
숙박,음식점업	50.18	49.90
정보통신업	6.76	56.62
금융,보험업	19.86	44.70
부동산업	28.03	62.31
전문,기술서비스업	5.78	46.04
사업서비스업	31.47	68.58
공공행정	30.97	22.67
교육서비스업	29.49	33.48
보건,사회복지업	23.93	32.25
예술,여가서비스업	38.40	48.49
기타개인서비스업	27.91	48.91
전 업 종	**24.98**	**47.51**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최근 초단시간 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8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뿐만 아니라 숙련을 쌓지 못해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단시간 노동자는 117만 3천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28.2%를 차지한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8만 6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5%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6.7%)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19.0%) 고령자 비율도 높다. 15세~29세 청년도 8.2%를 차지한다.

<표 3-12> 산업별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산업(대분류)	비율(%)	산업(대분류)	비율(%)
가구 내 고용활동	13.0	운수 및 창고업	2.0
교육서비스업	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11.6	부동산업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11.4	제조업	1.4
숙박 및 음식점업	11.2	건설업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	수도, 폐기물처리업	0.7
협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
도매 및 소매업	3.6	정보통신업	0.5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서울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13%)으로 가사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1.4%), 숙박 및 음식점업(11.2%) 순으로 높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행정 분야에서는 시간제 행정보조원 등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한다.

3)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은 국가지표체계 정의에 따르면 주당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 주업과 부업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이다. 장시간 노동

은 업무로 인한 과로, 피로도 증가,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임금노동자 중 주당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66만 9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16.1%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32만 2천명(7.8%),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는 18만 3천명(4.4%)이 있다. 장시간 노동자는 여성(12.0%)보다 남성(19.9%)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50~64세 장년층(18.9%) 비율이 높다.

<표 3-13> 산업별 장시간 노동자 비율

산업(대분류)	비율(%)	산업(대분류)	비율(%)
운수 및 창고업	27.2	가구 내 고용활동	16.3
건설업	2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13.6
숙박 및 음식점업	24.0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11.9
수도, 폐기물처리업	21.3	정보통신업	11.9
부동산업	19.9	금융 및 보험업	11.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7
제조업	1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
도매 및 소매업	16.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0.9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27.2%)으로 택배기사, 버스 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원 등이 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25.5%), 숙박 및 음식점업(2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1.3%)도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20%이다.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폐기물 처리는 새벽시간 또는 심야 노동으로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다.

4) 5인 미만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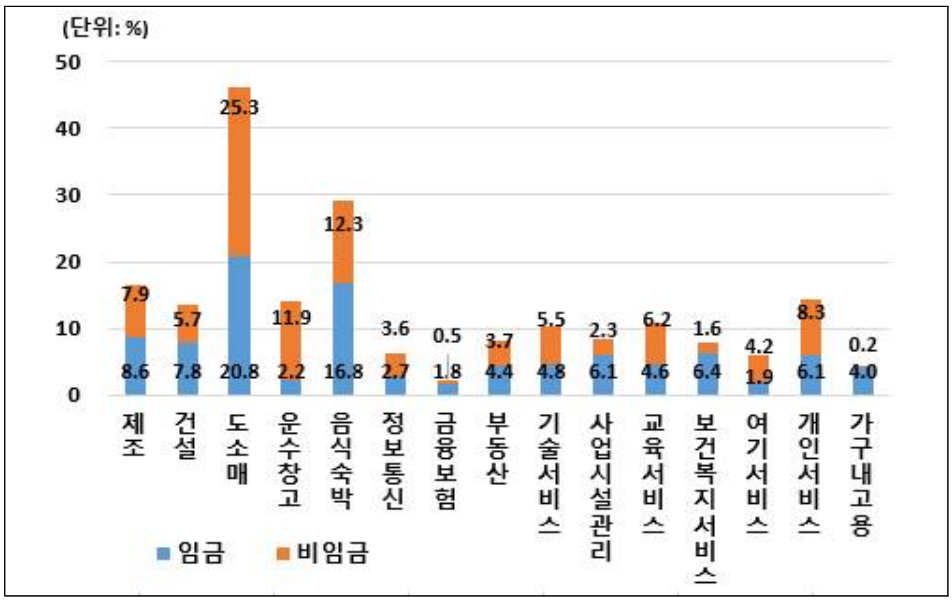
서울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34,882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약 30.3%를 차지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32만명, 임시직 27만명, 일용직 10만명, 자영업자 75만명 정도이며,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용직 비율이 서울 전체 일용직의 43.5%를 차지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로 서울지역 3/4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표 3-14>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

구분		인원(명)	비율(%)
임금근로자	상용직	320,778	10.7
	임시직	273,324	29.2
	일용직	104,048	**43.5**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89,023	**7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8,857	100.0
	무급가족종사자	78,852	92.8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그림 3-17] 산업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서울지역 산업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도소매업이 절반(46.1%) 가까이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음식숙박업(29.1%), 제조업(16.5%), 개인서비스업(14.4%), 운수창고업(14.1%), 건설업(13.5%), 교육서비스업(10.8%), 기술서비스업(10.3%) 순으로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자보다 비임금노동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여가서비스,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있는 산업이다.

가) 근로조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88만원으로 서울지역 전체 사업장 노동자의 63% 수준이다.[25]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여 182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 하위 20% 평균은 61만원이며, 상위 20% 평균은 366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위 20% 임금은 전체 사업장 노동자 하위 20% 임금의 61% 수준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 임금은 전체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 임금의 58% 수준이다.

<표 3-1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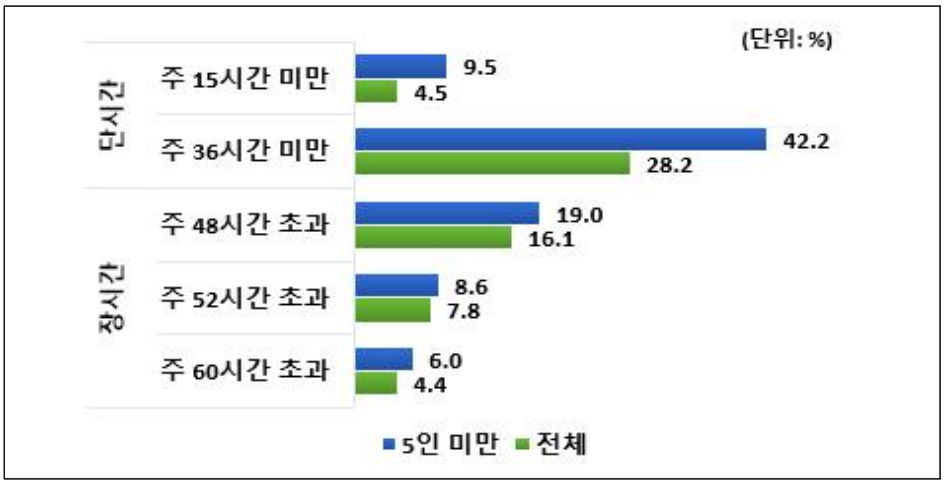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월 평균임금	평균	**188만원**	**302만원**
	하위 20%	**61만원**	**100만원**
	상위 20%	**366만원**	**632만원**
시간당임금	평균	12,842원	18,558원
	하위 20%	6,469원	8,124원
	상위 20%	23,744원	38,268원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이며, 단시간 및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 주 36시간 미만 노동자는 42.2%,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9.5%이다. 서울 전체 사업장 노동자의 단시간 비율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운 수치다. 또한, 장시간 노동 비율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더 높다. 주 48시간 초과 노동자는 19.0%(전체 16.1%),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8.6%(전체 7.8%),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는 6.0%(전체 4.4%)이다.

2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임금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3-1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단시간/장시간 비율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나) 산업재해

최근 5년(2017~2021) 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27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2%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년 20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고사망이 56.1%, 부딪힘 10.6%, 물체에 맞음 4.5%, 끼임 3.0% 순으로 많다.

[그림 3-19]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자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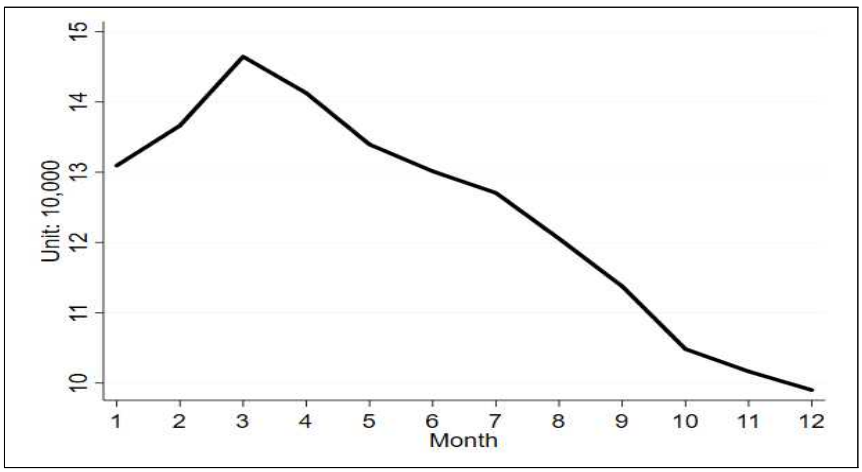
3. 사회보장제도와 취약노동

1)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이 나빠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용안전망이 갖춰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2019년 서울지역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107만 3천명에서 2020년 149만 7천명으로 약 42만 명 늘어났다.[26] 2021년에는 148만 6천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27]의 약 2.8%(월평균 실업급여 지급자수 123,848명)가 매월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3월에 146,449명으로 가장 많고, 12월에 98,996명으로 가장 적다.

[그림 3-20] 2021년 월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단위: 만 명)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2021년 실업급여수급자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2만 6천명으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만 9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14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만 8천명, 제조업 12만 8천명, 건설업 10만 8천

26) 월별 실업급여 지급자수 합계(중복 인원)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20030010011
27) 2021년 서울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401,436명

명 순으로 인원이 많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미가입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표 3-16>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산업(대분류)	인원(명)	산업(대분류)	인원(명)
도매 및 소매업	226,504	금융 및 보험업	42,62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8,7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541
숙박 및 음식점업	149,1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7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69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810
제조업	127,821	전기, 가스, 증기 및공기조절 공급업	2,686
건설업	108,482	농업, 임업 및 어업	1,5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186	국제 및 외국기관	495
정보통신업	76,371	광업	2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66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3
운수 및 창고업	64,280	분류불능	3
서울 소계			**1,486,172**

각주: 2021.1-2021.12월 합계(중복 인원)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2021년 실업급여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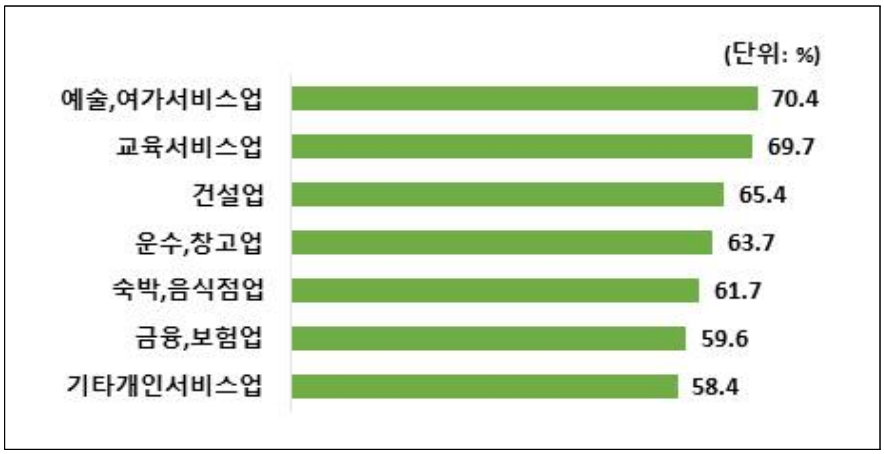
2) 고용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28]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제외)이며,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출근이라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48.2%(74만명)로 고용보험 미가입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율은 84.2%,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율은 17.6%로 전체 사업장 상용직 92.9%, 임시일용직 31.5%보다 낮다. 특히, 임시일용직에서 그 격차가 더 컸다.

28) 고용보험 가입/미가입 계산은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비율, 미가입 노동자 비율이며, 특수직역은 제외함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단순노무직(76.4%)이며, 산업별로는 예술, 여가서비스업(70.4%), 교육서비스업(69.7%), 건설업(65.4%), 운수, 창고업(63.7%) 순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율이 높다.

[그림 3-21] 산업별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율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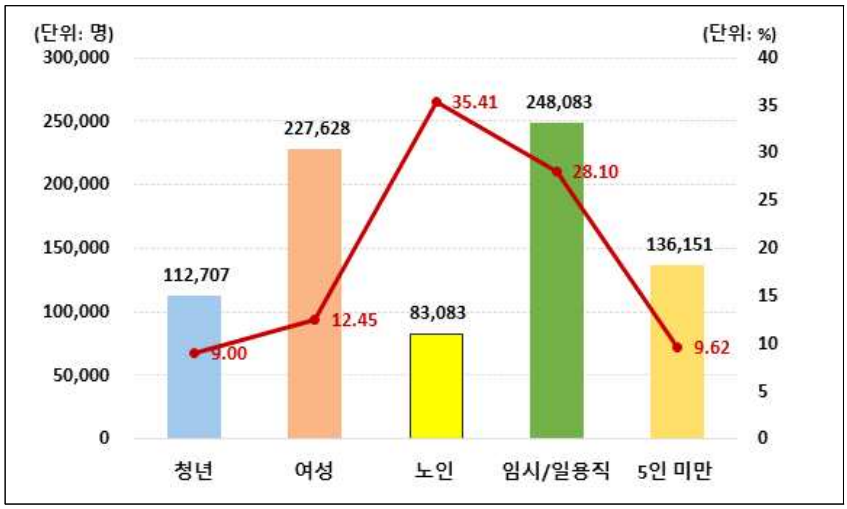
[그림 3-22] 직업별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비율

자료: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3)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29]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에는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74,060명,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3,903,402명)의 9.58%이다[30]. 최저임금 미만 여성 노동자는 227,628명(12.5%), 15~34세 미만 청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12,707명(9%), 65세 이상 노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83,083명(35.4%), 임시 일용직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48,083명(28.1%),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36,151명(9.62%)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금노동자(234,641명)의 1/3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로 노인 노동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2021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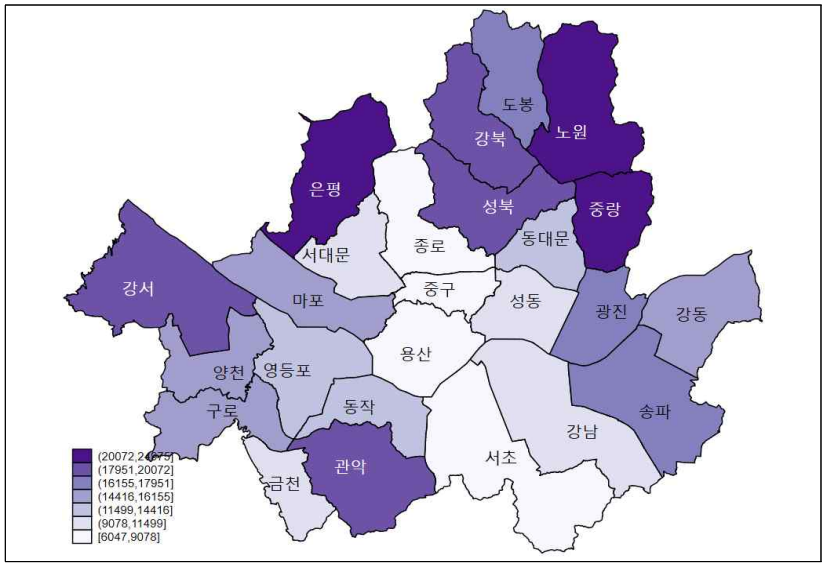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시군구 가중값 적용

29)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30) 이 수치는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이며, 보다 정확한 임금정보가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지역코드 부재로 산출할 수 없었음.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월 평균임금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시간제 노동자로 시간당 임금 계산에 왜곡이 생길 수 있음(과대 추정 우려)

2021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외곽지역인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에 각각 2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강서구, 관악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도봉구, 강동구, 마포구, 구로구에 각각 1만 5천~2만 명, 양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강남구에 각각 1만~1만 5천명,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 1만 명 이하로 거주하고 있다.

[그림 3-24] 2021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분포



출처: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상/하반기, A형), 시군구 가중값 적용

4.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1) 산업재해 사고사망

최근 5년 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11명이다. 2021년 서울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2020년보다 16명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20명 이상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자치구는 6곳으로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다. 강서구는 2021년에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강남구에도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표 3-17>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사고 사망 현황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5년간 합계	`20년	`21년	증감
서울	**111**	**83**	**66**	**85**	**66**	**-19**	**411**	**0.19**	**0.15**	**-0.04**
종로구	5	2	1	2	5	3	15	0.08	0.20	0.12
중구	4	2	0	4	3	-1	13	0.10	0.07	-0.03
용산구	1	4	2	2	1	-1	10	0.14	0.07	-0.07
성동구	5	4	4	6	4	-2	23	0.38	0.24	-0.14
광진구	5	3	1	2	4	2	15	0.23	0.46	0.23
동대문구	3	3	1	1	3	2	11	0.11	0.32	0.21
중랑구	1	3	4	0	0	0	8	0.00	0.00	0
성북구	8	2	2	2	4	2	18	0.25	0.47	0.22
강북구	1	0	3	0	0	0	4	0.00	0.00	0
도봉구	2	2	1	1	0	-1	6	0.21	0.00	-0.21
노원구	2	1	0	0	0	0	3	0.00	0.00	0
은평구	4	3	0	5	1	-4	13	0.75	0.14	-0.61
서대문구	8	4	1	2	2	0	17	0.25	0.24	-0.01
마포구	3	3	1	5	2	-3	14	0.23	0.09	-0.14
양천구	4	2	2	3	3	0	14	0.36	0.37	0.01
강서구	**9**	**11**	**5**	**8**	**7**	**-1**	**40**	**0.38**	**0.32**	**-0.06**
구로구	4	2	4	0	3	3	13	0.00	0.19	0.19
금천구	3	1	6	5	2	-3	17	0.27	0.10	-0.17
영등포구	**7**	**3**	**7**	**12**	**2**	**-10**	**31**	**0.35**	**0.06**	**-0.29**
동작구	5	1	0	3	1	-2	10	0.37	0.12	-0.25
관악구	3	3	2	3	2	-1	13	0.39	0.25	-0.14
서초구	7	6	5	5	4	-1	27	0.12	0.10	-0.02
강남구	**5**	**7**	**7**	**7**	**5**	**-2**	**31**	**0.10**	**0.07**	**-0.03**
송파구	11	4	3	3	7	4	28	0.10	0.24	0.14
강동구	1	7	4	4	1	-3	17	0.34	0.09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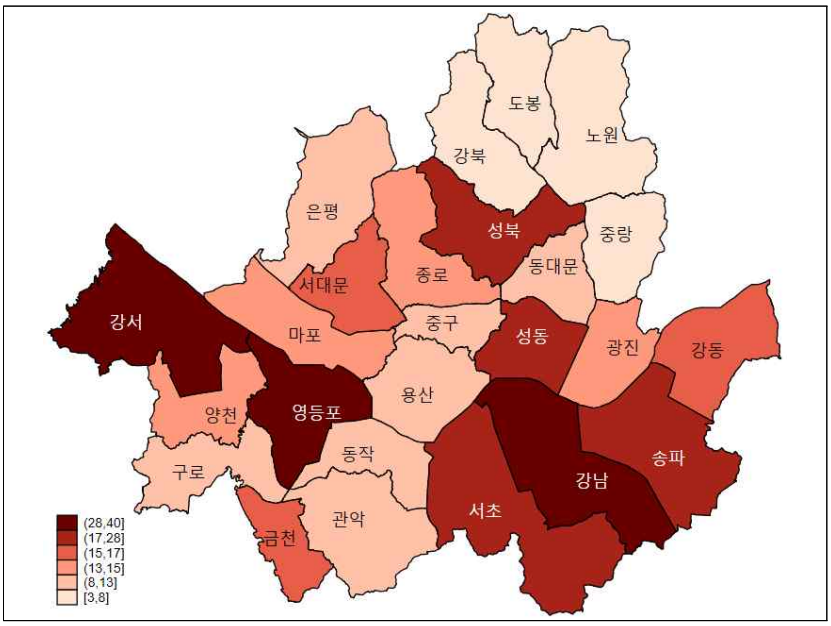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사고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체와 상권들이 밀집한 자치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 수는 떨어짐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부딪힘 38건, 물체에 맞음 21건, 끼임 19건, 깔림, 뒤집힘 13건, 기타 119건이다. 산재사고 사망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188명으로 가장 많고, 50~59세 122명, 40~49세 62명, 30~39세 24명, 18~29세 15명으로 고연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사고사망도 한 해 평균 7명 이상 발생한다.[31]

최근 3년간 작업내용별 사고사망자 수는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기구, 설비설치·보전작업 39건,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28건, 청소 및 부가적작업 11건,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이 5건 등이다.[32]

[그림 3-25] 2017-2021 서울시 자치구별 사고사망자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2) 노동환경 위험요인

서울지역 노동환경 유해·위험요인은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서울지역에서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작업장 유해환경 위험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진동 17.5%, 소음 10.5%, 분진 8.2%이며,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복동작 55.8%, 통증자세 33.4%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여성은 간병 등 사람을 이동하거나, 단순 반복동작을 하는 일에 많이 종사하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취약하다.

---

31)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32) 작업내용별 사고사망재해 현황은 2019년도부터 자료가 제공됨

<표 3-18> 노동환경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

구분		근무시간의 1/4~3/4			근무시간 내내, 거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환경위험	**진동**	**12.4**	15.9	8.2	**5.1**	5.3	2.3
	소음	**8.9**	11.3	6.0	**1.6**	1.8	1.2
	고온	7.2	9.2	4.8	0.7	0.9	0.5
	저온	6.6	8.7	4.2	1.0	1.5	0.3
생물·화학적 위험	**분진**	**6.6**	9.5	3.2	**1.6**	2.4	0.7
	유기용제	3.2	4.6	1.5	0.5	0.7	0.2
	화학물질	3.4	3.8	2.8	0.5	0.8	0.3
	간접흡연	4.0	5.3	2.4	0.3	0.5	0.1
	감염물질	1.6	1.9	1.2	0.4	0.4	0.4
인간공학적 위험	**통증자세**	**27.1**	27.0	27.1	**6.3**	5.8	6.9
	사람이동	6.6	5.2	8.2	0.8	0.6	1.1
	중량물취급	23.5	27.1	19.1	3.5	3.5	3.5
	반복동작	**33.5**	31.3	36.2	**22.3**	20.8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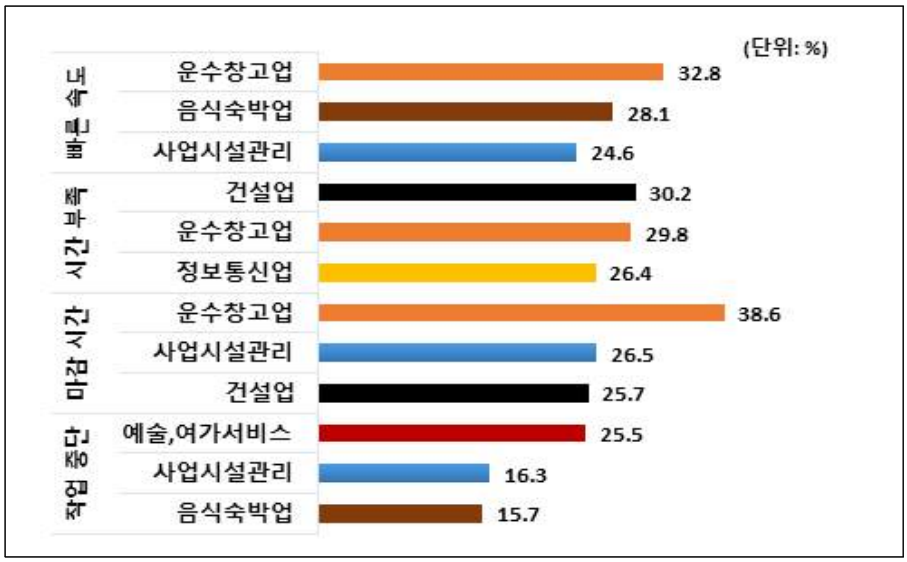
각주: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해당 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3) 노동 강도

가) 일의 양적 요구

서울지역 근로환경조사에서 육체적인 일의 양적 요구가 높은 노동자는 근무시간의 3/4 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는 사람(빠른 속도), 근무시간의 3/4 이상을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마감 시간),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별로/전혀 없는 사람(시간 부족), 잦은 작업 중단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작업 중단)이다. 이러한 육체적 일의 양적 요구가 높은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 상위 3개를 살펴보면,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는 빠른 속도,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은 시간 부족,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 건설업은 마감 시간, 예술, 여가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음식숙박업은 작업 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창고업은 빠른 속도 32.8%, 시간 부족 29.8%, 마감 시간 38.6%로 육체적인 일의 양적 요구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림 3-26] 일의 양적 요구 경험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나) 작업속도 결정요인

서울지역 노동자의 작업속도 결정요인은 다음 5가지 요인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로 측정했다.[33] 즉, a) 동료가 수행한 업무, b)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의 직접적 요구, c)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 d)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e) 상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한 것이 3개 이상인 비율이다. 이는 자신의 업무속도 결정요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외부적 요인에 의한 작업속도 결정 경험 비율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전문기술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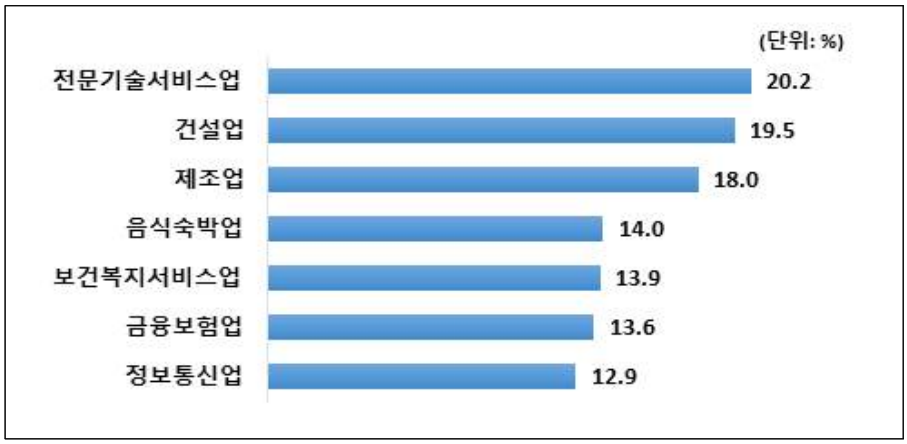
다) 감정 노동

서울지역 근로환경조사 결과, 감정 노동 경험 비율은 업무 중에 a) 항상/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감정 노동), b) 업무시간의 3/4 이상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룬다(화난 고객), c) 업무시간의 1/4 이상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

33)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근로환경조사 결과 산출방식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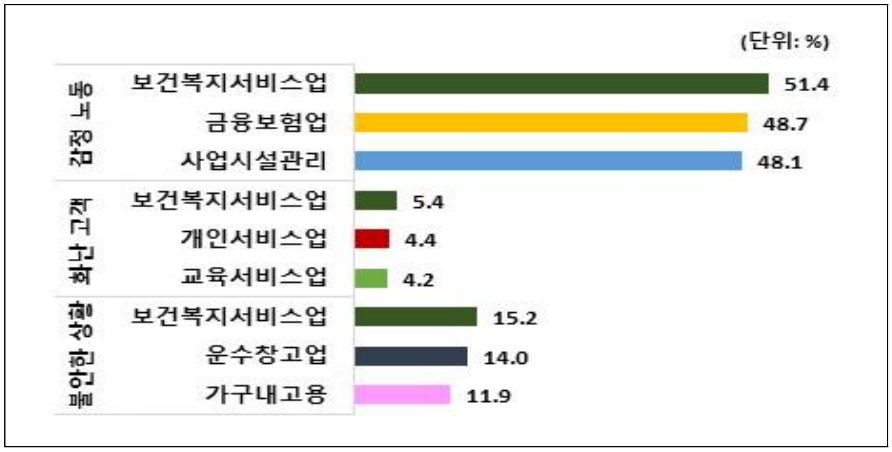
황에 놓인다(불안한 상황)고 응답한 노동자이다. 감정 노동 경험 비율이 높은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 상위 3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시설관리는 감정 노동, 보건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화난 고객, 보건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가구내고용은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은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경우(51.4%)와 화난 고객 상대(5.4%), 근무시간 중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15.2%)도 높다.

[그림 3-27] 타인/외부적 요인에 의한 작업속도 결정 경험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그림 3-28] 감정 노동 경험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4) 사회적 환경

서울지역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반사회적 행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4.9%, 모욕적 행위를 경험한 경우는 1.9%이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등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0.3%이고, 여성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0.9%이다. 차별대우 경험은 연령 차별 3.5%, 학력 차별 3.4%이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2.6%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폭력, 위협, 성희롱, 연령 차별, 성 차별, 학력 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왕따/괴롭힘, 출신 지역 차별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적지지 환경을 살펴보면, 작업 상황에서 동료들이 도와주고 지지한다고 답한 남성은 67.5%로 여성보다 2%p 많고,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한다고 답한 남성은 61.9%, 여성은 62.2%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3-19>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경험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반사회적 행동	지난 한 달 동안 경험	**언어폭력**	**4.9**	4.8	5.1
		성적 관심	0.7	0.7	0.7
		위협	0.6	0.5	0.6
		모욕적 행위	**1.9**	2.0	1.8
	지난 1년 동안 경험	신체적 폭력	0.2	0.3	0.2
		성희롱	0.4	0.1	**0.9**
		왕따/괴롭힘	0.2	0.3	0.2
		연령 차별	**3.5**	3.1	4.0
		성 차별	1.2	0.8	1.8
		학력 차별	**3.4**	3.1	3.7
		출신 지역 차별	0.9	1.1	0.6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2.6**	2.4	2.9
사회적 지지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6.2	**67.5**	65.2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2.1	61.9	62.2

각주: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해당 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5)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동자는 서울지역 취업자 중 76%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직종은 사무 종사자 81.7%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0.7%, 관리자 79.4%, 판매 종사자 78.3%, 서비스 종사자 75.1% 순이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약 절반 가까이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했고, 단순노무 종사자도 66.2%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있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중 지난 1년간 한 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요통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7.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7.3%, 단순노무 종사자 30.7%이며, 상지 근육통과 하지 근육통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각각 52.0%, 27.2%이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상지 근육통 39.9%, 하지 근육통 19.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상지 근육통 43.9%, 하지 근육통 17.7%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기능원, 장치·기계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이다.

[그림 3-29] 주관적 건강상태'좋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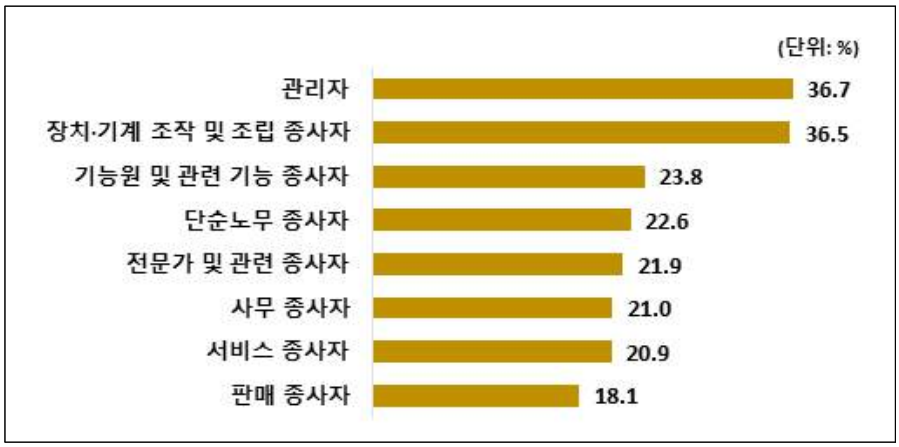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그림 3-30] 근골격계 건강 문제 비율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서울지역 취업자 중 22%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한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의 수면 장애를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경험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36.7%)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36.5%)가 수면 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림 3-31] 수면 장애 경험 비율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5. 소 결

3장에서는 서울지역 취약노동자 현황을 최신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봤다. 인적속성, 노동조건, 사회보장제도, 근로환경 및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고,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세부 항목별로 살펴봤다.

먼저, 취약노동자를 인적속성별(청년, 기혼여성, 노인, 장애인)로 구분하여 고용 동향을 분석했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청년(15~29세) 실업률, 고용률과 기혼여성의 비취업률, 경력단절 비율, 장애인의 취업률을 분석했다. 노인(65세 이상)의 경우는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봤다. 그 결과 2021년 청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5만 7천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3.9%p 증가하여, 청년의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었으나, 기혼여성의 비취업률은 전년대비 1.3%p 증가, 경력단절 비율도 1.3%p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고용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취업자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45.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사업시설관리(건물관리, 청소업무)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노인 일자리가 육체적 노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건(고용불안정성, 저임금, 초단시간, 장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측면에서 취약노동자를 구분하여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고용불안정성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임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보고, 이들의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봤다. 그리고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고용불안정성 노동자의 규모를 거주지별, 사업체 소재지별로 제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시직 노동자(93만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 거주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 사업체: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 일용직 노동자(24만명) 건설업
- 거주지: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 사업체: 강남구, 영등포구, 구로구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7만명) 운수·창고업, 예술·여가서비스업
- 거주지: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 사업체: 강남구, 동대문구, 강서구
▷ 무급가족종사자(8만5천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
- 거주지: 광진구, 송파구, 구로구 / 사업체: 중구, 송파구, 동대문구

그리고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는 69만 4천명(2021년 기준), 전국 대비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 비율(17%)은 5% 이상 높다.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며,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조리 및 음시서비스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도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 그리고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또한, 서울지역 임금격차(0.336)도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한다. 임시일용직의 시간당임금은 상용직의 58%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의 61%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도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 VS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시간당임금은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임시일용직 시간당임금은 약 2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차이와 임시일용직 비율에 따른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34]

<표 3-20> 임시일용직 임금지수와 비율

임금지수	비율	산업
높음	높음	숙박, 음심점업, 건설업, 예술, 여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높음	낮음	정보통신업, 수도, 폐기물처리업, 운수, 창고업
낮음	높음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낮음	낮음	보건, 사회복지업,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업

서울지역 초단시간 노동자는 18만 6천명(전체 임금노동자의 4.5%)이며, 여성과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높다. 청년도 8.2%를 차지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사노동자가 있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13.0%)과 교육서비스업(12.1%)이다. 장시간 노동자는 66만 9천명(전체 임금노동자의

34) 임시일용직 임금지수 산정에 대해서는 3장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음

16.1%)이며, 남성과 장년층(50~64세) 비율이 높다.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27.2%)과 건설업(25.5%)이다.

그리고 서울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3만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약 30.3%를 차지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로 서울지역 3/4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6.1%는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 평균임금은 서울지역 전체 사업장 노동자의 63% 수준이고, 최저임금 월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이며, 단시간 및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 또한, 최근 5년(2017~2021) 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27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2% 수준이다.

다음으로 노동의 사회적안전망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현황을 살펴봤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총 148만 6천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2.8%가 매월 실업급여를 받았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80만명(51.8%)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단순노무직, 산업은 예술, 여가서비스업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7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9.6%)이다. 이 중 여성 노동자는 23만명, 15~34세 미만 청년 노동자는 11만명,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는 8만명이고, 임시일용직은 25만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4만명이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과 산업안전에서 산업재해 사고사망, 노동환경 위험요인, 노동강도, 사회적 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2021년 서울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6명, 최근 5년 간 서울지역에서 총 411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사망자 재해유형은 떨어짐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자 연령은 60세 이상 188명, 50~59세 122명으로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환경 유해·위험요인 노출 비율은 진동 17.5%, 소음 10.5%, 분진 8.2%이며, 인간공학적 위험은 반복동작 55.8%, 통증자세 33.4%이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육체적인 일이 양적 요구가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으로 빠른 속도, 시간부족, 마감 시간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다. 그리고 타인/외부적 요인에 이 의해 작업속도 결정 경험이 높은 산업은 전문기술서비스업이며, 감정 노동 경험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반사회적 행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언어폭력은 4.9%, 모욕적 행위는 1.9% 경험했고, 지난 1년 동안 연령 차별은 3.5%, 학력 차별은 3.4% 경험했다. 반대로 사회적지지에 대한 경험으로 '작업 상황에서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는 66.2%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취업자 중 76%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 하지만 서울지역 취업자 중 22%는 수면 장애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근골격계 질환(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Ⅳ.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환경 변화

4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5차(2017년)~6차(2020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관적인 일에 대한 전망 및 고용불안정성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근로환경조사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력 구조, 작업환경,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내용으로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35]

1. 분석 개요

코로나19 전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관적인 일에 대한 전망과 고용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로환경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내 일자리는 전망이 좋다(직업 전망). b) 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업무 인정). c)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직업불안정성). d)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직가능성).

위 4개의 문항들은 5차, 6차 설문에 모두 포함된 문항이고, c) 문항은 다른 문항과 의미가 반대(부정적임)이며,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⑥ 해당 없음 ⑦ 모름/무응답 ⑧ 거절'이며, 산출방식은 응답자 중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36]

분석방법은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위해 2017년과 2020년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관적 일에 대한 전망과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고, ANOVA(분산분석)으로 평균 차이를 검정한다. 그리고 인구특성별, 종사상지위별, 소득계층별, 직업별, 산업별로 각각을 구분하여 비율을 제시하고, ANOVA(분산분석)으로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다. 직업별 구분은 대분류, 소분류를, 산업

35) 근로환경조사 모집단은 만 15에 이상 취업자, 표본 수는 5만 명, 시도 지역 코드가 제공되며, 서울지역 표본 수는 약 9천명임(가중치 적용 약 5,081천명, 2021년 기준)
36)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근로환경조사 결과 산출방식과 동일

별 구분은 대분류, 중분류를 제시한다. 표본 수의 한계로 가중치 적용 30개 미만 산업·직업은 분석하지 않는다.

2. 직업 전망

서울지역 취업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2020년에 40.5%로 2017년 42.7%보다 2.2%p 낮아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6~64세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졌고,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 남성의 직업 전망도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서는 고졸, 전문대졸의 직업 전망이 낮아졌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p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자영업자의 직업 전망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소득 1분위 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의 직업 전망이 매우 낮아진 것은 코로나19가 고소득층에도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어 삶의 만족도 점수 하락 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직업별 직업 전망을 살펴보면, (241)의료 진료 전문가의 직업 전망이 높아졌고, (399)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의 직업 전망은 낮아졌다. 서비스 종사자 중에는 (422)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와 (441)조리사의 직업 전망이 낮아졌다.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직업 전망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판매 종사자 중 (510)영업 종사자는 13.0%p, (521)매장 판매 종사자는 3.2%p 낮아졌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 (710)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는 직업 전망이 높아졌고, (762)전기공은 직업 전망이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보다는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일자리 전망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 (873)자동차 운전원의 직업 전망은 13.9%p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운송업계의 이동 제약과 관련 있어 보인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직업 전망이 조금 높아졌지만, 다른 직군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52)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99)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의 직업 전망이 10%p 이상 높아졌다.

<표 4-1> 직업 전망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42.7**	**40.5**	**-2.2**	***
연령	15~35세	46.1	44.6	-1.5	
	36~64세	**43.2**	**40.6**	**-2.6**	***
	65세 이상	21.0	20.9	-0.2	
성별	**남성**	**44.4**	**41.3**	**-3.1**	***
	여성	40.6	39.7	-1.0	
학력	중졸 이하	16.6	18.9	2.3	
	고졸	**32.2**	**27.0**	**-5.2**	***
	전문대졸	43.2	41.0	-2.2	**
	대졸 이상	54.8	54.2	-0.6	
종사상 지위	상용직	49.3	47.8	-1.5	
	임시직	23.2	23.4	0.2	
	일용직	21.5	23.3	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2.7	29.3	-3.4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1.6**	**38.6**	**-13.0**	***
	무급가족종사자	26.1	29.0	2.9	
소득 5분위	1분위	25.0	24.1	-0.9	
	2분위	36.0	41.6	5.7	***
	3분위	47.1	45.2	-1.8	
	4분위	52.7	56.1	3.3	*
	5분위	**55.8**	**39.0**	**-16.8**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표 4-2> 직업별 직업 전망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42.7	40.5	-2.2	***
직업	1. 관리자	70.4	55.3	-15.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4	56.1	-0.3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64.9	64.0	-0.9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5.8	64.3	-1.5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5	50.4	-8.1	
	241. 의료 진료 전문가	45.1	72.4	27.3	**
	242. 약사 및 한의사	73.6	60.4	-13.2	
	243. 간호사	65.2	61.8	-3.4	
	245.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54.1	53.1	-1.0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58.7	59.0	0.3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41.0	47.7	6.7	
	252. 학교 교사	65.3	75.1	9.8	
	253. 유치원 교사	52.7	60.9	8.2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0.6	48.1	-2.5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46.0	47.9	1.9	
	285. 디자이너	60.7	53.3	-7.4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52.7	45.4	-7.3	
	3. 사무 종사자	49.9	50.3	0.4	
	311. 행정 사무원	56.4	58.2	1.8	
	312. 경영 관련 사무원	52.3	52.5	0.2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47.3	52.0	4.7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47.9	40.8	-7.1	
	320. 금융 사무 종사자	49.8	56.9	7.1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64.9	65.1	0.2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2.5	33.2	0.7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33.4	18.5	-14.9	**
	4. 서비스 종사자	37.9	35.9	-2.0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6.8	47.3	10.5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60.1	50.8	-9.3	**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23.7	28.3	4.6	
	441. 조리사	34.3	28.4	-5.9	**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25.0	20.6	-4.4	
	5. 판매 종사자	33.1	29.8	-3.3	**
	510. 영업 종사자	47.3	34.3	-13.0	***
	521. 매장 판매 종사자	28.5	25.3	-3.2	*

<표 4-2>의 계속 : 직업별 직업 전망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42.7**	**40.5**	**-2.2**	***
직업	530.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42.9	36.2	-6.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9**	**32.0**	**-10.9**	***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7.9**	**29.4**	**1.5**	***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38.3	12.1	-26.2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22.0	20.7	-1.3	
	751. 자동차 정비원	59.8	54.8	-5.0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42.7	21.5	-21.2	
	762. 전기공	**62.9**	**38.5**	**-24.4**	*
	772.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34.4	29.8	-4.6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3.8**	**21.3**	**-12.5**	***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26.2	20.3	-5.9	
	873. 자동차 운전원	**28.6**	**14.7**	**-13.9**	***
	9. 단순노무 종사자	**17.3**	**21.9**	**4.6**	**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6.8**	**21.3**	**14.5**	**
	922. 배달원	31.7	28.5	-3.2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2.3	18.0	5.7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20.6	17.3	-3.3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4.4	15.1	0.7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10.3**	**24.2**	**13.9**	**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19.6	21.2	1.6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7.8	25.5	17.7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25.7**	**43.3**	**17.6**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직업 전망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직업 전망은 낮아졌고,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직업 전망은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료 제조 분야의 직업 전망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직업 전망은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는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19.6%p,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8.3%p 낮아졌다. 정보통신업은 직업 전망이 높아진 업종도 있고, 낮아진 업종도 있다.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직업 전망이 높아졌고,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

합 및 관리업은 직업 전망이 낮아졌다. 이는 OTT서비스 확산과 관련하여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산업 성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는 보험 및 연금업의 직업 전망이 낮아졌고,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직업 전망 또한 낮아졌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47.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94)협회 및 단체가 26.6%p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직업 전망이 더 높아져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3> 산업별 직업 전망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42.7**	**40.5**	**-2.2**	***
산업	**C. 제조업**	**44.7**	**41.1**	**-3.6**	
	10. 식료품 제조업	37.9	31.8	-6.1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8.3**	**25.2**	**-13.1**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7	22.9	4.2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8.2**	**32.7**	**-35.5**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9.9**	**73.1**	**33.2**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40.7	44.3	3.6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치 제조업	49.6	54.7	5.1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4.7	35.7	-19.0	
	28. 전기장비 제조업	59.6	51.0	-8.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9.3	60.1	0.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4.0	53.5	9.5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2	29.6	-8.6	
	F. 건설업	**43.1**	**43.6**	**0.5**	
	41. 종합 건설업	38.4	39.9	1.5	
	42. 전문직별 공사업	46.7	45.8	-0.9	
	G. 도매 및 소매업	**36.2**	**33.5**	**-2.7**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6.5**	**36.9**	**-19.6**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3**	**39.0**	**-8.3**	**
	47. 소매업	31.5	31.6	0.1	

<표 4-3>의 계속 : 산업별 직업 전망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42.7**	**40.5**	**-2.2**	***
산업	**H. 운수 및 창고업**	**33.7**	**29.7**	**-4.0**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3.7	29.4	-4.3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7.9	21.8	-6.1	
	I. 숙박 및 음식점업	**32.1**	**26.6**	**-5.5**	***
	J. 정보통신업	**61.6**	**55.5**	**-6.1**	
	58. 출판업	**58.1**	**59.4**	**1.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8.0	53.3	35.3	*
	61. 우편 및 통신업	68.6	54.8	-13.8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9.1	53.8	-15.3	*
	K. 금융 및 보험업	**49.1**	**45.9**	**-3.2**	
	64. 금융업	49.6	57.1	7.5	
	65. 보험 및 연금업	**52.6**	**36.0**	**-16.6**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3.7	43.1	-0.6	
	L. 부동산업	**36.9**	**31.8**	**-5.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0**	**56.3**	**-5.7**	
	71. 전문 서비스업	56.7	53.4	-3.3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0.1	57.3	-12.8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5.3	56.7	-8.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4.7**	**29.9**	**5.2**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7.1	30.5	3.4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25.4	24.4	-1.0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3.9**	**41.5**	**-12.4**	**
	P. 교육 서비스업	**49.5**	**51.5**	**2.0**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4**	**51.0**	**5.6**	*
	86. 보건업	53.7	58.8	5.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5.0	41.2	6.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4.3**	**27.3**	**-17.0**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2.5**	**15.2**	**-47.3**	***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8.3	34.1	-4.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7.8**	**41.2**	**-6.6**	**
	94. 협회 및 단체	**65.4**	**38.8**	**-26.6**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4.7	42.8	-1.9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7**	**41.0**	**-6.7**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8**	**12.6**	**-4.2**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3. 업무 인정

서울지역 취업자 중 코로나19 이후'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는다는 비율도 2017년 51.5%에서 2020년 50.7%로 감소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35세, 36~64세는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전보다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오히려 6.3%p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고령층의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자의 경우 업무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학력에서 보면, 남성과 대졸 이상에서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에서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은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노동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7%p로 크게 낮아졌고,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소득 5분위의 업무 인정이 낮아진 것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2020년에는 최고소득분위에서 업무 인정에 대한 인식이 50.5%로 낮아졌다. 그러나 최고소득분위(5분위)를 제외하면, 2020년도에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당한 업무 인정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하위계층(1, 2분위)의 업무 인정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높아진 것은 고령자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직업별 업무 인정을 살펴보면, 관리자의 업무 인정이 매우 낮아졌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인정도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관리자의 위기감이 주관적인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는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2.5%p), (235)기계·로봇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3.3%p), (286)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31.5%p)의 업무 인정이 낮아졌다. 그리고 사무종사자 중 (314)비서 및

사무 보조원의 업무 인정은 높아졌고, (399)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의 업무 인정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 직종들은 사무 종사자 중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4-4> 업무 인정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51.5	50.7	-0.8	
연령	15~35세	53.4	51.5	-1.9	
	36~64세	52.6	51.9	-0.7	
	65세 이상	**30.1**	**36.4**	**6.3**	**
성별	**남성**	**53.8**	**51.5**	**-2.3**	*
	여성	48.6	49.8	1.2	
학력	중졸 이하	30.6	34.1	3.4	
	고졸	42.6	43.4	0.9	
	전문대졸	49.6	48.1	-1.5	
	대졸 이상	**62.5**	**60.0**	**-2.5**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7.5	58.0	0.5	
	임시근로자	**35.5**	**35.2**	**-0.3**	**
	일용근로자	32.9	39.9	6.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6	38.0	-1.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0.2**	**42.4**	**-17.7**	***
	무급가족종사자	38.4	37.9	-0.4	
소득 5분위	**1분위**	**33.0**	**38.2**	**5.3**	***
	2분위	**45.3**	**51.7**	**6.4**	***
	3분위	54.2	53.9	-0.3	
	4분위	60.1	61.9	1.8	
	5분위	**66.5**	**50.5**	**-16.0**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표 4-5> 직업별 업무 인정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51.5	50.7	-0.8	
직업	**1. 관리자**	**76.7**	**47.8**	**-28.9**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3.8**	**59.8**	**-4.0**	**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5.6**	**63.1**	**-12.5**	*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6.4	71.6	5.2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0	46.7	-23.3	*
	241. 의료 진료 전문가	70.2	59.6	-10.6	
	242. 약사 및 한의사	75.2	83.9	8.7	
	243. 간호사	61.0	63.4	2.4	
	245.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59.0	47.6	-11.4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58.4	48.4	-10.0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48.9	55.1	6.2	
	252. 학교 교사	85.1	77.3	-7.8	
	253. 유치원 교사	63.7	73.9	10.2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9.6	53.4	3.8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59.2	56.6	-2.6	
	285. 디자이너	61.9	50.6	-11.3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9.6**	**48.1**	**-31.5**	***
	3. 사무 종사자	**58.2**	**56.9**	**-1.3**	
	311. 행정 사무원	61.4	58.0	-3.4	
	312. 경영 관련 사무원	61.4	58.0	-3.4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58.7	59.0	0.3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27.8**	**49.3**	**21.5**	**
	320. 금융 사무 종사자	64.2	68.9	4.7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61.3	60.3	-1.0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41.7	45.1	3.4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53.3**	**33.9**	**-19.4**	**
	4. 서비스 종사자	**44.1**	**46.7**	**2.6**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4.2**	**52.8**	**18.6**	***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57.7	55.6	-2.1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39.1	46.5	7.4	
	441. 조리사	43.5	44.5	1.0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30.4	37.7	7.3	
	5. 판매 종사자	**44.1**	**44.1**	**0.0**	
	510. 영업 종사자	59.0	57.7	-1.3	
	521. 매장 판매 종사자	40.8	39.8	-1.0	

<표 4-5>의 계속 : 직업별 업무 인정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51.5	50.7	-0.8	
직업	530.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41.9	40.7	-1.2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8.0**	**49.3**	**1.3**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35.3	42.1	6.8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44.1	55.5	11.4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37.0	50.2	13.2	
	751. 자동차 정비원	54.6	51.3	-3.3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63.0**	**35.4**	**-27.6**	**
	762. 전기공	**62.9**	**40.8**	**-22.1**	*
	772.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40.2	26.4	-13.8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2	37.8	-4.4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36.3	32.2	-4.1	
	873. 자동차 운전원	36.4	35.0	-1.4	
	9. 단순노무 종사자	**34.5**	**39.9**	**5.4**	**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29.5	28.7	-0.8	
	922. 배달원	44.8	43.2	-1.6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0.7	38.3	7.6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42.2	43.6	1.4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38.3	31.5	-6.8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22.6**	**39.7**	**17.1**	**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28.3	41.4	13.1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22.8**	**47.1**	**24.3**	*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30.7**	**51.7**	**21.0**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그리고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인정은 18.6%p 높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에서 (761)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과 (762)전기공은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27.6p%, 22.1%p 낮아졌다. 이는 현장에서 대면 업무를 해야하는 기능 종사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세부 직종을 살펴보면 (952)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92)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9)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의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10%p 이상 높

아졌는데, 이러한 직종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업무 인정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업무 인정은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료 제조 분야의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 중 (42)전문직별 공사업의 업무 인정은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공사업 종사자들이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14.4%p 낮아졌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업무 인정을 받는다는 비율이 6.3%p 낮아졌다. 특히, (65)보험 및 연금업(12.6%p),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6.0%p)에서 많이 낮아졌는데, 보험 영업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에서 코로나19 이후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는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은 낮아졌다. 또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활활동 모두 업무 인정은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8%p),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27.4%p), (94)협회 및 단체(37.5%p)는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이 매우 낮아졌는데, 대부분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합당한 업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이 높아졌다. 이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특성상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도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방글, 2021). 따라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 인정이 높아진 것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필수업종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업무 인정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4-6> 산업별 업무 인정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51.5	50.7	-0.8	
산업	**C. 제조업**	**52.8**	**56.0**	**3.2**	
	10. 식료품 제조업	50.6	47.0	-3.6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5.7	53.1	7.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4.8	43.1	-1.7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7.6	64.8	-2.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3.6	72.0	-1.6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치 제조업	63.2	48.1	-15.1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7.0**	**69.4**	**32.4**	**
	28. 전기장비 제조업	56.3	61.8	5.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4	59.4	-14.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9.4	67.0	17.6	
	33. 기타 제품 제조업	59.3	48.6	-10.7	
	F. 건설업	**53.6**	**50.9**	**-2.7**	
	41. 종합 건설업	53.5	59.2	5.7	
	42. 전문직별 공사업	**53.7**	**45.9**	**-7.8**	*
	G. 도매 및 소매업	**45.7**	**44.5**	**-1.2**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2.0	49.9	-12.1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8.8	53.9	-4.9	
	47. 소매업	40.7	41.3	0.6	
	H. 운수 및 창고업	**45.2**	**44.6**	**-0.6**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3.7	43.8	0.1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1.9	40.9	-11.0	
	I. 숙박 및 음식점업	**41.6**	**43.2**	**1.6**	
	J. 정보통신업	**64.6**	**59.1**	**-5.5**	
	58. 출판업	65.7	56.9	-8.8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7.6	55.0	7.4	
	61. 우편 및 통신업	57.1	70.7	13.6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6.0**	**61.6**	**-14.4**	*
	K. 금융 및 보험업	**64.0**	**57.7**	**-6.3**	*
	64. 금융업	61.3	66.2	4.9	
	65. 보험 및 연금업	**67.3**	**54.7**	**-12.6**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5.3**	**49.3**	**-16.0**	**
	L. 부동산업	**47.0**	**45.7**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6**	**59.4**	**-2.2**	
	71. 전문 서비스업	64.2	61.9	-2.3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표 4-6>의 계속 : 산업별 업무 인정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51.5	50.7	-0.8	
산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4.2	68.0	13.8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4**	**45.1**	**-16.3**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6.2**	**46.6**	**10.4**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3.1	42.5	9.4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36.7	44.3	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6.1**	**48.3**	**-17.8**	***
	P. 교육 서비스업	**59.2**	**63.4**	**4.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7**	**56.4**	**5.7**	*
	86. 보건업	58.4	61.1	2.7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41.0**	**50.5**	**9.5**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8**	**30.0**	**-30.8**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7.9**	**34.1**	**-43.8**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5.1**	**27.7**	**-27.4**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2**	**44.8**	**-7.4**	***
	94. 협회 및 단체	**81.7**	**44.2**	**-37.5**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8.3	43.4	-4.9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5**	**45.5**	**-6.0**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5.2**	**20.5**	**-24.7**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의 업무에 합당한 인정을 받는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4. 직업불안정성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직업불안정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5.3%p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 저학력에서 코로나19 이후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의 직업불안정성이 10%p이상 높아졌고, 소득분위에서는 2분위, 1분위, 3분위 순으로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관리자를 제외한 대분류 직종 모두에서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7.1%p로 가장 많이 높아졌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는 (242)약사 및 한의사(30.0%p), (253)유치원 교사

(26.3%p), (254)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18.1%p), (286)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24.5%p)의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사무종사자 중에서는 (312)경영 관련 사무원(4.4%p), (313)회계 및 경리 사무원(6.1%p)이 서비스 종사자 중에서는 (422)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10.1%p), (441)조리사(7.6%p)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표 4-7> 직업불안정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9.0**	**14.3**	**5.3**	*******
연령	15~35세	10.8	14.1	3.3	***
	36~64세	8.4	14.3	5.9	***
	65세 이상	**6.9**	**14.3**	**7.4**	*******
성별	남성	8.9	12.1	3.1	***
	여성	**9.1**	**16.9**	**7.8**	*******
학력	**중졸 이하**	**8.1**	**22.5**	**14.4**	*******
	고졸	8.9	14.9	6.1	***
	전문대졸	7.0	12.4	5.4	***
	대졸 이상	10.1	13.6	3.5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6	12.9	3.2	***
	임시근로자	**11.3**	**22.2**	**10.9**	*******
	일용근로자	**8.5**	**20.1**	**11.6**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2	12.1	6.0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8	14.9	9.1	***
	무급가족종사자	8.3	9.4	1.1	
소득 5분위	1분위	10.7	16.5	5.8	***
	2분위	**6.6**	**15.8**	**9.2**	*******
	3분위	11.0	15.5	4.5	***
	4분위	8.0	11.6	3.5	**
	5분위	7.0	11.4	4.4	***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표 4-8> 직업별 직업불안정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9.0	14.3	5.3	***
직업	**1. 관리자**	**9.0**	**3.9**	**-5.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1**	**12.8**	**3.7**	***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3	9.1	1.8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9.9	5.8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15.3	-0.1	
	241. 의료 진료 전문가	16.3	7.3	-9.0	
	242. 약사 및 한의사	**3.2**	**33.2**	**30.0**	***
	243. 간호사	7.1	13.1	6.0	
	245.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15.4	18.2	2.8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14.2	14.8	0.6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8.4	10.8	2.4	
	252. 학교 교사	10.4	16.1	5.7	
	253. 유치원 교사	**5.9**	**32.2**	**26.3**	***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7.7**	**25.8**	**18.1**	***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0.1	13.1	3.0	
	285. 디자이너	14.9	9.7	-5.2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6**	**26.1**	**24.5**	***
	3. 사무 종사자	**10.0**	**14.5**	**4.5**	***
	311. 행정 사무원	12.0	8.4	-3.6	
	312. 경영 관련 사무원	**8.8**	**13.2**	**4.4**	***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12.6**	**18.7**	**6.1**	**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9.9	13.7	3.8	
	320. 금융 사무 종사자	9.4	9.0	-0.4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13.8	26.2	12.4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11.8	17.4	5.6	
	4. 서비스 종사자	**9.6**	**15.7**	**6.1**	***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9.6	13.3	3.7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6.8**	**16.9**	**10.1**	***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15.4	18.3	2.9	
	441. 조리사	**7.3**	**14.9**	**7.6**	***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17.3	17.3	0.0	
	5. 판매 종사자	**7.6**	**14.2**	**6.6**	***
	510. 영업 종사자	**7.1**	**17.1**	**10.0**	***
	521. 매장 판매 종사자	**7.0**	**12.5**	**5.5**	***
	530.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2.5	15.4	2.9	

<표 4-8>의 계속 : 직업별 직업불안정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9.0	14.3	5.3	***
직업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6**	**12.4**	**4.8**	***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3.4**	**15.8**	**12.4**	***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	**17.1**	**9.9**	**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3.9**	**13.5**	**9.6**	**
	751. 자동차 정비원	10.9	8.9	-2.0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3.5	11.1	7.6	
	762. 전기공	15.4	9.8	-5.6	
	772.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13.4	3.1	-10.3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9**	**13.0**	**7.1**	***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5.3**	**18.0**	**12.7**	***
	873. 자동차 운전원	**3.3**	**11.5**	**8.2**	***
	9. 단순노무 종사자	**11.7**	**18.0**	**6.3**	***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7.6**	**31.1**	**23.5**	***
	922. 배달원	18.5	16.3	-2.2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2**	**28.6**	**19.4**	***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6.7	8.7	2.0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2.3**	**3.8**	**-8.5**	*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7.2	8.1	0.9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7	12.6	2.9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2.6**	**31.8**	**29.2**	**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10.4	6.1	-4.3	

각주: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판매 종사자 중에서는 (510)영업 종사자(10.0%p), (521)매장 판매 종사자(5.5%p)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에서는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12.4%p), (721)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9.9%p), (722)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9.6%p)의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에서는 (823)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12.7%p), (873)자동차 운전원(8.2%p)이, 단순노무 종사자 중에서는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23.5%p), (941)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9.4%p), (992)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29.2%p)의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특히,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는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업무 인정도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직업불안정성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을 제외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8%p)의 직업불안정성이 가장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0.0%p), 숙박 및 음식점업(7.2%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7%p) 순이다. 제조업에서는 (10)식료품 제조업(14.9%p),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2.8%p),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6.1%p)에서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고, (13)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치 제조업(13.3%p)은 오히려 직업불안정성이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컴퓨터, 영상, 음향 제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4-9> 산업별 직업불안정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9.0**	**14.3**	**5.3**	***
산업	**C. 제조업**	**10.9**	**14.1**	**3.2**	*
	10. 식료품 제조업	8.5	23.4	14.9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7	25.5	12.8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4	20.5	16.1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9	14.0	-4.9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0	5.0	-9.0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8	2.7	-4.1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치 제조업	**25.8**	**12.5**	**-13.3**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2	13.1	-9.1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1.6	-1.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3	8.2	-6.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4	7.7	0.3	
	F. 건설업	**7.9**	**13.2**	**5.3**	**
	41. 종합 건설업	8.3	10.2	1.9	
	42. 전문직별 공사업	**7.6**	**15.0**	**7.4**	***
	G. 도매 및 소매업	**8.7**	**13.4**	**4.7**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5**	**21.8**	**16.3**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9.7	11.6	1.9	

<표 4-9>의 계속 : 산업별 직업불안정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9.0	14.3	5.3	***
산업	**47. 소매업**	**8.7**	**13.6**	**4.9**	***
	H. 운수 및 창고업	**6.4**	**9.6**	**3.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3	9.9	2.6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	8.5	6.8	
	I. 숙박 및 음식점업	**9.2**	**16.4**	**7.2**	***
	J. 정보통신업	**8.3**	**11.0**	**2.7**	
	58. 출판업	8.2	12.8	4.6	
	61. 우편 및 통신업	13.1	7.5	-5.6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5	7.7	2.2	
	K. 금융 및 보험업	**10.2**	**13.8**	**3.6**	
	64. 금융업	10.2	7.8	-2.4	
	65. 보험 및 연금업	**12.0**	**19.8**	**7.8**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6	14.4	6.8	
	L. 부동산업	**7.1**	**13.7**	**6.6**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2**	**15.9**	**6.7**	**
	71. 전문 서비스업	8.3	17.6	9.3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2	14.7	8.5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2	14.6	-1.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8**	**13.4**	**5.6**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6	9.6	4.0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9.2**	**15.6**	**6.4**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6**	**24.5**	**10.9**	**
	P. 교육서비스업	**8.5**	**18.5**	**10.0**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9**	**12.9**	3.0	
	86. 보건업	10.7	13.6	2.9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12.1	3.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9**	**19.7**	**10.8**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	22.3	15.5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7	18.2	8.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	**15.0**	**5.5**	***
	94. 협회 및 단체	8.8	10.1	1.3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3.2	14.9	1.7	
	96. 기타 개인서비스업	**7.3**	**15.7**	**8.4**	***

각주 :1) 서울지역 취업자 중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건설업에서는 (42)전문직별 공사업(7.4%p),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6.3%p)과 (47)소매업(4.9%p)의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65)보험 및 연금업(7.8%p),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75)사업지원 서비스업(6.4%p)의 직업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기타 개인서비스업(8.4%p)의 직업불안정성도 높아졌다.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전후 직업불안정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5. 이직가능성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직가능성 인식도 감소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가능성은 높으며, 2020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가능성도 높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직가능성은 중졸 이하 6.0%p, 고졸 4.4%p 낮아졌고, 대졸 이상은 오히려 3.8%p 높아졌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이직가능성은 낮아졌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이직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불안정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소득 최하위계층의 이직가능성은 코로나19 이후 낮아졌으나, 고소득계층(4분위)의 이직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소득분위별 이직가능성은 최고소득분위(5분위)를 제외한 분위에서는 31%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사무종사자는 이직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이직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대면노동을 해야 하는 기능 종사자나 조립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직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비대면 근무가 가능한 사무종사자의 경우 이직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는 (231)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252)학교 교사의 이직가능성은 각각 15.7%p, 14.4%p 높아졌고, (245)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는 이직가능성이 18.8%p 낮아졌다. (314)비서 및 사무 보조원(13.3%p)과 (422)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6.7%p)의 이직가능성도 높아졌다.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이직율이 높은 직종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오진숙·윤천성, 2012).

<표 4-10> 이직가능성

구분		이직 가능성			
		2017	2020	증감	*
전체		30.3	30.2	-0.1	
연령	15~35세	39.4	38.8	-0.5	
	36~64세	27.8	27.4	-0.4	
	65세 이상	14.1	14.3	0.3	
성별	남성	28.9	27.8	-1.1	
	여성	32.1	33.1	1.0	
학력	**중졸 이하**	**20.5**	**14.5**	**-6.0**	***
	고졸	**33.0**	**28.6**	**-4.4**	***
	전문대졸	31.9	31.9	0.0	
	대졸 이상	**28.9**	**32.7**	**3.8**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4	31.8	0.5	
	임시근로자	**35.5**	**30.4**	**-5.1**	**
	일용근로자	**46.1**	**35.2**	**-10.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9**	**24.5**	**4.6**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8.6**	**24.9**	**-3.8**	**
	무급가족종사자	13.0	10.8	-2.2	
소득 5분위	**1분위**	**35.0**	**30.6**	**-4.4**	***
	2분위	30.7	31.7	1.0	
	3분위	33.3	31.9	-1.4	
	4분위	**27.6**	**31.4**	**3.7**	**
	5분위	24.7	25.2	0.6	

각주 :1) 서울지역 취업자 중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표 4-11> 직업별 이직가능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30.3	30.2	-0.1	
직업	1. 관리자	12.4	6.9	-5.5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2	35.1	0.9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5.5	41.3	-4.2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3	36.0	15.7	**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2.9	32.7	9.8	
	241. 의료 진료 전문가	54.6	52.4	-2.2	
	242. 약사 및 한의사	43.6	49.4	5.8	
	243. 간호사	38.2	47.3	9.1	
	245.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42.7	23.9	-18.8	*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40.9	38.2	-2.7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44.0	41.7	-2.3	
	252. 학교 교사	21.7	36.1	14.4	**
	253. 유치원 교사	40.7	40.3	-0.4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39.0	44.1	5.1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0	29.0	1.0	
	285. 디자이너	39.5	41.3	1.8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4.5	17.0	-7.5	
	3. 사무 종사자	24.8	29.5	4.7	***
	311. 행정 사무원	15.2	17.1	1.9	
	312. 경영 관련 사무원	23.8	27.1	3.3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2.0	35.3	3.3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17.1	30.4	13.3	*
	320. 금융 사무 종사자	20.5	25.5	5.0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41.1	36.5	-4.6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28.5	38.3	9.8	
	4. 서비스 종사자	37.4	36.9	-0.5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4.0	38.7	-5.3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34.4	41.1	6.7	*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53.1	42.2	-10.9	
	441. 조리사	32.6	34.4	1.8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6.5	41.2	-5.3	
	5. 판매 종사자	27.8	26.2	-1.6	
	510. 영업 종사자	27.5	28.4	0.9	
	521. 매장 판매 종사자	26.6	23.0	-3.6	**
	530.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36.5	29.8	-6.7	

<표 4-11>의 계속 : 직업별 이직가능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30.3	30.2	-0.1	
직업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3	23.4	-10.9	***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19.9	26.7	6.8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40.7	16.8	-23.9	***
	751. 자동차 정비원	32.2	33.0	0.8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34.5	17.6	-16.9	
	762. 전기공	34.1	23.0	-11.1	
	772.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42.8	19.8	-23.0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7	18.9	-6.8	**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18.8	11.1	-7.7	
	873. 자동차 운전원	28.8	22.2	-6.6	
	9. 단순노무 종사자	30.0	30.4	0.4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31.6	21.2	-10.4	
	922. 배달원	40.5	47.8	7.3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6.2	19.3	3.1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25.8	19.5	-6.3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47.5	35.4	-12.1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50.6	35.4	-15.2	*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31.1	44.7	13.6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16.1	27.7	11.6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24.0	45.8	21.8	**

각주 :1) 서울지역 취업자 중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521)매장 판매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직가능성이 3.6%p 낮아졌고, (721)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의 이직가능성도 23.9%p 매우 낮아졌다.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고용시장 불황, 자진퇴사 감소 등으로 섬유패션산업 이직자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772)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도 코로나19 이후 이직가능성이 23.0%p 낮아졌다. 단순노무 종사자 중에서는 (952)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는 이직가능성이 15.2%p 낮아졌고, (999)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는 이직가능성이 21.8%p 높아졌다. 즉, 서비스 단순 종사자는 최저임금 종사자로 코로나19 이후에도 현재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했을 때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이직가능성이 낮아졌다. 건설업에서는 (41)종합 건설이 11.3%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27.6%p 낮아졌고, 이들 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표 4-12> 산업별 이직가능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30.3**	**30.2**	**-0.1**	
산업	**C. 제조업**	**25.1**	**22.9**	**-2.2**	
	10. 식료품 제조업	**14.5**	**26.5**	**12.0**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7.1**	**22.5**	**-14.6**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2.0	23.9	-8.1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3	19.6	-2.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7.9	24.0	6.1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8.7	14.7	6.0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치 제조업	31.1	25.3	-5.8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6	28.3	-1.3	
	28. 전기장비 제조업	23.9	25.0	1.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8**	**17.2**	**-22.6**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3	17.7	-3.6	
	33. 기타 제품 제조업	37.2	24.6	-12.6	
	F. 건설업	**32.7**	**25.9**	**-6.8**	**
	41. 종합 건설업	**25.6**	**14.3**	**-11.3**	**
	42. 전문직별 공사업	38.2	32.8	-5.4	
	G. 도매 및 소매업	27.2	29.1	1.9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7.6	34.5	6.9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4.6	27.7	3.1	
	47. 소매업	27.9	29.3	1.4	
	H. 운수 및 창고업	**28.4**	**30.7**	**2.3**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1.0	30.0	-1.0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3.9**	**32.7**	**18.8**	*
	I. 숙박 및 음식점업	**36.7**	**37.1**	**0.4**	

<표 4-12>의 계속 : 산업별 이직가능성

구분		2017	2020	증감	*
전체		**30.3**	**30.2**	**-0.1**	
산업	**J. 정보통신업**	**32.1**	**34.7**	**2.6**	
	58. 출판업	38.6	32.3	-6.3	
	61. 우편 및 통신업	22.7	24.7	2.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2	39.5	4.3	
	K. 금융 및 보험업	**25.4**	**27.6**	**2.2**	
	64. 금융업	21.6	26.8	5.2	
	65. 보험 및 연금업	37.4	30.7	-6.7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7.7	24.3	6.6	
	L. 부동산업	**24.5**	**26.9**	**2.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4**	**38.9**	**3.5**	
	71. 전문 서비스업	39.4	41.0	1.6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2.9	39.3	6.4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2	34.4	-3.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8.0**	**27.8**	**-0.2**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5.5	16.3	0.8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32.7	26.4	-6.3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5**	**15.8**	**0.3**	
	P. 교육 서비스업	**31.6**	**33.3**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7**	**35.7**	**-5.0**	*
	86. 보건업	40.3	35.2	-5.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41.3	36.2	-5.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8**	**20.2**	**-23.6**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7	14.3	-7.4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1**	**23.5**	**-27.6**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9	30.4	-0.5	
	94. 협회 및 단체	32.7	21.8	-10.9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2.6	26.0	-6.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7	33.4	3.7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5.2**	**35.3**	**-9.9**	

각주 :1) 서울지역 취업자 중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동의 비율(%)

2) 별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또한, 제조업에서도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14.6%p,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6%p 이직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이직가능성이 높아진 업종도 있다. 제조업 중 (10)식료품 제조업(12.0%p)과 운수 및 창고업 중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8.8%p)은 이직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종으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6. 소 결

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전망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인식은 나빠졌고, 직업불안정성도 높아졌다. 특히, 남성의 직업 전망과 업무 인정이 낮아졌고, 직업불안정성도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의 경우 직업 전망이 나빠졌고, 이직가능성도 낮아졌으나, 대졸 이상은 업무 인정이 낮아졌고, 이직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졸의 일자리 환경이 나빠졌고, 대졸 이상에서는 자신의 업무에서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노동자의 업무 인정과 이직가능성은 낮아졌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안정성, 이직가능성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지역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사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위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직업 전망이 나빠졌고, 업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악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직업불안정성은 높아졌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코로나19 이후 업무에서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무종사자는 이직가능성이 높으며, 판매 종사자는 직업 전망이 낮아졌다.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직업 전망과 이직가능성이 낮아져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노동환경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불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직업 전망과 업무 인정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이에 대한 해

석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단순노무 종사자와 같은 육체노동 일자리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37]

산업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환경이 나빠졌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직업 전망과 업무 인정이 낮아졌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직업 전망과 업무 인정이 좋아졌다. 이는 팬데믹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직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4-13>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구분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 불안정성	이직 가능성
전체		-		+	
연령	15~35세			+	
	36~64세	-		+	
	65세 이상		+	+	
성별	**남성**	**-**	**-**	**+**	
	여성			+	
학력	중졸 이하			+	-
	고졸	**-**		**+**	**-**
	전문대졸	-		+	
	대졸 이상		-	+	+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	**-**
	일용근로자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	**-**
	무급가족종사자				
소득 5분위	1분위		+	+	-
	2분위	**+**	**+**	**+**	
	3분위			+	
	4분위	**+**		**+**	**+**
	5분위	**-**	**-**	**+**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37) 코로나19로 사무·판매 일자리 줄어…양극화 계속될것-매일경제(http://vip.mk.co.kr/news/view/21/21/3487115.h)

<표 4-14> 직업별·산업별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구분		직업 전망	업무 인정	직업 불안정성	이직 가능성
전체		-		+	
직업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사무 종사자			+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단순노무 종사자	+	+	+	
산업	제조업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교육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출처: 안전보건공단, 5~6차 근로환경조사

V.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적 속성, 노동시장의 지위와 노동조건, 사회보장제도 접근성, 산업안전 및 위험의 노출 등 취약성의 원인과 형태에 따라 정책도 구체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서울지역 취약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는 임금과 관련된 처우개선과 고용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에는 최저임금준수, 현장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운수·창고업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성 강화는 입직신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

건설업은 서울시 일용직 노동자의 27.6%를 차지한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산업이다. 또한, 임금체불·삭감 등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평균소득 수준이 낮고 포괄임금제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 특성상 공사가 끝나면 고용이 종료되어 미취업기간이 발생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건설업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관련된 처우개선(등급별 임금 차등, 임금삭감 억제 등)과 고용관계 개선(일용직→비일용직)이 필요하다(김명수 외, 2020)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노동자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를 지급하고 있지만, 건설일용노동자가 실제 지원을 받을려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 활용과 홍보, 간소화된 행정절차로 건설업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용한 기능인등급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기능인등급제를 통해 실제 기능등급을 받은 건설노동자는 2000여 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능인 대부분이 일용직에 있어 교육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장기 방안으로서 일용직 건설업 종사자의 기능교육을 지원해 고급 이상의 기능등급을 보유하게 하여 일용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김진하 2022).

2)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서비스 산업에서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33.9%, 교육서비스업 33.6%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일용직 노동자 규모도 10%를 차지한다. 이들 산업이 특성상 임시일용직 노동자 채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최저임금준수와 계약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큰 업종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근로감독 하에 임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준수, 업종 특성을 반영한 현장감독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

서울지역 운수·창고업은 비임금근로자 중 1인 자영업자 비율이 92.7%로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이다. 남재욱(2021)은 우리나라 1인 영세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폐업 등 사업상의 불안정성도 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정부와 서울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기업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고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두루누리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배달·택배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가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입직신고가 필요하다(김진하, 2022).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전체 택배기사 5만 명 중 입직신고한 택배기사는 1~만 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역 내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기 위해 서울시 내 대리점/영업점의 입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진하·황민영, 2021).

2.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1)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약 12만 명)이다(2020년 기준). 고령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청소 노동은 가치가 평가절하된 상태로 시장화되면서 저임금이라는 문제가 나타났고,[38] 경비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저임금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근로 정책은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청소, 경비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은 충족되도록 근로시간 확보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 생활임금은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수요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민간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경비는 용역 및 파견 형태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의 보호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초단시간 노동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도 초

38)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0140

단시간 근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단시간 노동자는 18만 6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5%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6.7%, 65세 이상 고령자가 19.0%다(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13.0%)`으로 주로 가사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이다. 문지선·김영미(2017)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로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울산 동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3년부터 초단시간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저임금과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부터 초단시간 노동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방안이다.[39]

3)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021년 서울지역 임시일용직의 시간당임금은 상용직의 58% 수준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시간당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시간당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임금 격차가 고용 형태와 대기업/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임금 자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으로 2022년에 시행된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 실험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3.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30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성남시의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

3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04

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등도 서울시가 추진해온 사업들과 유사한 좋은 모범사례이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 제도와 정책에서 아우르지 못한 사각지대 부분은 서울시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보완해야 하는 다른 한 축에는 전국민고용보험과 전국민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다. 2025년 완성을 목표로 확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가입자의 이탈, 미납 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영세사업자와 종사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의 발굴과 지원도 중요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김진하, 2022).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서울지역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7만 명,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감독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기적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철 외, 2019). 또한, 서울지역 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시 부가금 지급의무부과 등 노무관리 지도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준수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지역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1)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서울지역에서 장시간 노동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27.2%)으로 택배기사, 버스 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원 등은 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운수업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만, 노선버스업은 제외된다. 그리고 택배기사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현재의 생산성 및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저해할 수 있다(박우람·박윤수, 2019).

서울시는 장시간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쉼터를 설치하였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거점(5곳 상암쉼터, 합정쉼터, 서초쉼터, 북창쉼터, 녹번쉼터)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비노동자, 셔틀버스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이동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곳에는 카페테리아, 상담실, 회의장 등이 있으며, 노동자들은 따뜻한 음료, 안마의자, 휴대폰충전기, 혈압측정기, 편의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동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서울지역 산업재해 예방 조치

최근 5년간(2017~2021년) 서울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411명, 매년 70명 가까이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수행사업으로 해당 권역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가 지자체에도 있음을 알리고 있다. 거리청소, 산림·녹지정비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추락, 질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서울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위험대비 매뉴얼 대응조치 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유해화학물질 및 쓰레기 수거 작업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산업안전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5.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서울시 노동센터 지원사업

서울시는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자권리보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

약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설치됐고,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해왔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캠페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코로나 돌봄 휴가 지원 등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2014.12.08.)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사업, 노동단체 지원, 노동네트워크 구성, 휴서울노동자쉼터, 서울노동포털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국가통계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실증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정책기획·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3) 지역노동 네트워크 활성화

노동자 종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이다. 각 지역 단위에서 노동자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노동자 지원종합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는 광역 2개, 권역 4개, 자치구 17개의 노동센터들이 있고, 지역 노동센터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단체·노동단체 등과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 노동환경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승복(2005), 임시·일용직 고용과 업종별 임금 및 생산성,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년 7월호(통권 제7호)

권영준(2009),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 1 – 취약계층 노동자의 정의 및 국내 실태, 산업보건, 254호, p27-34.

김명수·최명섭·김태훈·김준혁(20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고용영향 분석-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김윤태(2022)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불평등과 국가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12권1호, p.251-280

김진하(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특징, 2022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보고회 토론자료

김진하·황민영(2021),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19호 2021. 3. 8.

나영선·강일규·전재식·고혜원·김봉환(2003), 지식강국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2021),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의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논단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February 18, 2021 Report

문지선·김영미(2017),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산업학회, 23권 1호, pp.129-164

박영삼(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특징, 2022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사업 최종보고회 토론문 자료

박우람·박윤수(2019), 장시간 근로의 경제적 원인에 관한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15.

박창현·유민정(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제2020-11호

방글(2021),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시장 특성 및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사업 2021-059

서울시(2018),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

섬유제조·패션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2020년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문주(2022),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손병돈·문혜진(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3권 3호, pp.9∽31.

송상윤(2021), 코로나19와 노동시장, 한국은행 금요강좌 제864회(2021.10.15.)

심상완·조효래·권순식·황현일·김보배·진형익(2022), 취약노동자_경남의 노동현실과 지역노동정책의 과제,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 총서 제1권, 이담북스

여유진(2021),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오삼일·이종하·배기원(2022),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2-17호

오진숙·윤천성(2012), 미용서비스종사자의 리더십 지각이 장기근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4호, pp.21-32.

유경준·심상달(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유명환·이정민(2021), 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 대응 위원회 결의안(2021) “Work in the time of COVID”,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유진성(2022),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22-08

윤영삼(2019), 부산지역의 노동존중방안 연구: 취약노동자정책을 중심으로, 부산발전포럼, 제178호, 78-81.

이경용·박정선·문용호·이관형·최성원·이나루·김민수·오지영(2006),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이규용·강병식·김동현·노용진·문병기·반정호·안준기·장은숙(2013),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기쁨·지상훈(2021),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21년 3월호

이병훈·이시균(2010), 취약노동자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제87호, 204-236.

이용관(2021),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2호, pp.71∽90

이우진·최은영(2020), 한국의 임금격차와 요인별 기여, 경제발전연구 제26권 2호

이철·손정순·윤미경(2021),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019-04

전병유(2005),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

전병유(202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영향 진단 및 대응방향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 자료

정한나·윤정혜·박세정·황성수·박비곤(2020),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20-054

정홍준(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2020-04)

최혜지·원영희·남기철(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한국노동연구원(2022),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107호 (2022-01)

한국은행(2022), 美노동시장의 퇴근 특징과 평가 한국은행 제2022-1호 국제경제리뷰

함선유·이원진·김지원(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21-06

황현일·조효래(2022), 노동의 불안정화와 취약노동자, 취약노동자_경남의 노동현실과 지역노동정책의 과제,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 총서 제1권, 이담북스

< 기타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1),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서울지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2021년 실업급여수급자

대한상공회의소(2022), 코로나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도자료 2022.08.31.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view/21/21/3487115.h)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2012~20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202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장애인 취업 통계, 2013-20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2018)

서울특별시,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안전보건공단,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코로나19로 사무·판매 일자리 줄어…양극화 계속될 것

코로나19로 사무·판매 일자리 줄어…양극화 계속될것-매일경제

통계청, 2019~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 KOSIS

통계청,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상/하반기, A형)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2.9.29.

통계청, e-나라지표(2022.07.27. 다운로드)

통계청,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근로자 정의,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21

한국경제연구원(2022), ‘코로나19,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보도자료, 2022.08.03.

한국경제연구원(2022.05.09.) 경제동향과 전망(2022년 1분기) 보도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2.05.09.) 경제동향과 전망(2022년 1분기)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2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70378/

http://vip.mk.co.kr/news/view/21/21/3487115.h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04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68793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20030010011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014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37416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https://www.oecd.org/economy/weekly-tracker-of-gdp-growth

https://www.politico.com/interactives/2020/coronavirus-impact-on-low-income-jobs-by-occupation-chart/?fbclid=IwAR0ZSSbuPcQY8chKwXurWpJNnN_seReA3IQNaQb43_2f-5oBP4jQFzBnV88

◎ 집필진

- 최은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2022년 12월 31일
- 발행인 이남신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02)6925-4349, www.labors.or.kr

ISBN 979-11-87917-45-8 (비매품)

연구보고서 2022-01

발 행 일 2022. 12. 31.
발 행 인 이남신
발 행 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 6935-4359 상담전화 1661-2020 Fax. 070-8250-4349
www.labors.or.kr

비매품/무료
93300

ISBN 979-11-87917-45-8